

전략연구 2016-12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활용을 중심으로-

정지은 · 이인배 · 서재승

발 간 사

21세기는 여러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결합하는 융합의 시대로 불리고 있으며, 이런 흐름에 맞춰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은 지금까지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활용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지역적인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진행된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은 지역화 과제, 접근성의 확대, 지역의 정체성 구축 등 지역과 연관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주체는 문화재단과 문화기반시설로, 이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충남에서도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이 연계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용 정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 및 충남 여건에 맞는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정지은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이인배 선임연구위원과 그 동안 많은 조언과 참여를 아끼지 않아주신 자문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수행과 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연구심의위원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31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연구 요약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상상력·창의력 기반의 소프트파워 부상에 따라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생애 주기별 문화 복지와 예술교육, 통합적 사고능력, 스마트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문화예술 교육 정책은 사회의 상상력·창의성·다양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의 주요한 가치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충남은 도민들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이 전국 6위로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향유 지수 3개 부분이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이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아직 미흡하여 정책적 활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 여건 분석 및, 지역문화기반 시설과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여건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이와 연계되는 지역문화기반시설 및 지역문화재단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운영 실태분석 및 과제를 도출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동향을 분석하고, 충청남도과 각 시·군 시행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진행되어야 할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둘째,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충남의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현황조사(2013년 기준) 분석과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시설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설문 조사(2015년 기준)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밝히고, 향후 충청남도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차원의 전략수립과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1)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분석

① 정책분석 및 국내외 사례 분석(전문가 워크숍)의 시사점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이론고찰, 중앙정부 정책 검토 및 국내외 사례 분석(전문가 워크숍)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대상의 수요 다양화에 대응하는 사업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충남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인력 확충 및 전문 인력 양성, 전문성 강화, 예술장르의 다양성 확보 등 역량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충남 문화기반시설, 광역문화재단과 도내 기초문화재단간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연계가 이루어지는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문제점으로 제기된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 자체 예산의 부족’, ‘설비·장비·공간 등의 인프라 부족’, ‘전문 인력의 부족’, ‘일회성 이벤트나 단순 기능교육 프로그램 위주 운영’, ‘협력 체계의 미흡’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충남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의 실태분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지역문화지수 결과에 따르면, 충남 15개 시·군은 ‘종합순위’, ‘시·군·구별’, ‘문화 대분류별 평가’에서 모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 결과는 상대적 열위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충남의 지역문화 격차를 향후에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충남이 전국 평균보다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보

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천안시·공주시·아산시·금산군·당진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청양군과 계룡시’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충남 시·군별 문화기반시설 현황은 천안 25개소, 공주시 17개소, 아산시 15개소, 금산군이 각각 13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양군과 계룡시가 4개소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충남에는 총 4개의 문화재단이 있으며 홍성에 소재한 광역문화재단인 충남문화재단을 비롯하여 아산문화재단, 천안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대도시 중에서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중인 ‘천안시·아산시’와 농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금산군’과 적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청양군’을 실태분석의 사례 지역으로 채택하였다.

③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실태분석(중앙정부)의 시사점

전반적인 우리나라 문화기반시설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으로 ‘중점 대상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이용자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각 시설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자의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인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추진과제로 문화취약계층 대상의 예술교육 접근 확대를 강조하는 만큼, 향후에는 충남의 문화기반시설들이 특수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할 때 어려운 점으로 ‘담당 인력의 부족’과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꼽혔는데, 충남의 사회문화예술교육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충남의 각 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의 보완이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문화예술교육의 예산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각 시설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예산의 비중도 전체 지역 평균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기에, 각 시설별 문화예술교육의 예산도 높여야 한다.

④ 충남의 시설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설문조사 분석의 시사점

전반적으로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강사 수는 2013년에는 11.5명에서 2015년에는 9.99명으로 감소하였고, 문화예술교육의 실시 여부는 83.2%에서 93.9%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예산은 2013년 317백만 원에서 2015년에는 1,321백 만 원으로 현저히 증가하였고, 총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는 18.26개로, 단순 관람·강사·전시 형태의 교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은 2015년을 기준으로 ‘지역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조사되었으며, 중점 교육 대상은 1순위를 어린이(39.2%), 청소년(19.6%), 성인(17.6%)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이유로 ‘예산 재정확보(27.5%)’와 ‘참여자 인식 부재(25.5%)’로 꼽았고, 향후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2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 인력 지원(21%)’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은 전문 인력과 예산의 확충이 이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여전히 예산과 전문 인력의 보완이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지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으로 꼽힌다. 충남의 지역문화재단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문화재단과 문화기반시설의 교류를 통해 ‘전문 인력의 보강’ 및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인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추진과제로 문화취약 계층 대상의 예술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점차 다양한 대상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받는 대상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참여자의 관심과 홍보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초 수요조사와 만족도 조사, 우수 사례 발굴에 대한 부분도 보완되어야 한다.

2) 활용과제의 도출

충남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애학습의 문화예술교육과정 개발’,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시설·교육기관 간 문화거버넌스 구축 지역 내

사회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과 활용’, ‘도민 문화향유를 위한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활성화’, ‘우수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활성화’,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의 개발 및 홍보’, ‘지자체 추진체계의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제시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진전략을 일곱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생애주기와 교육대상 계층별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둘째,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 교육기관 등 연계 문화예술교육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
셋째,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 인력을 활용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넷째,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별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발굴과 시행,
다섯째, 지역주민이 주도형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사업 강화와 지역축제의 참여 확대,
여섯째, 충남 우수 문화예술교육 경연대회 개최와 모델 프로그램 개발의 확산,
일곱째, 충남 문화예술교육 정책역량강화와 자립형 시책의 발굴 및 사업의 추진 등이다.
이상과 같은 일곱 가지의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① 생애주기와 교육대상별 과정개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단계적 개발 사업은 충남 생애주기별 사회문화예술사업 종합분석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개최, 충남 생애주기별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발굴과 시책추진 등이다.

노년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집중 육성 및 운영사업에 대한 내용은 ‘행복 100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유니버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집중 육성과 사업추진’, ‘다문화 문화예술교육사업 발굴과 시책추진’ 등이다.

②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충남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간 프로그램 상호 교류 사업의 내용은 ‘업무협약 체결 및 정기 워크숍 개최’, ‘충남문화재단과 천안, 아산, 당진문화재단 통합문화예술교육 연대 사업 추진’,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용시책 발굴과 운영’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충남 교육기관과 문화시설, 단체, 문화재단 등 문화예술교육의 협력 사업의 내용은 ‘충남 문

화예술교육 거버넌스 포럼 구성 및 운영: 충남문화재단 등과 문화예술교육 협력 정기 워크숍 및 모니터링 사업 실시' 등이다.

시·군별 공공교육시설 및 유희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학교 설립 및 운영사업은 '충남 문화예술 특성화 학교 연계 방학문화예술학교 개설 및 운영', '충남 도내 대학 평생교육원 문화예술학교 개설 및 운영', '충남 문화예술권역별 문화예술학교 설립 운영 : 북부권 제외(당진문화예술학교 활용)', '당진문화예술학교 인접 시군 연계 거점 문화예술학교의 육성' 등이다.

③ 지역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과 활용

지역 내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문화예술교육 참여활동 강화사업은 '충남 문화예술교육 사업 수급계획 수립과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예총 충남도연합회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전문 인력 활용', '충남 문화예술교육 사업 전문 인력 운영사업 추진' 등이다.

지역문화재단과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추진사업은 '충남문화재단 및 시·군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 전문 인력 확충 : 통합공모사업 연계 전담인력',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기반시설의 예술 강사 등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④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활용성 제고

문화기반시설별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 지원 사업은 '충남 문화기반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수요 조사', '시·군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추진(충남 문예회관 시범사업 등)'과 '문화기반시설 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등)' 등이다.

충남과 시군 문화재단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사업은 '충남문화재단과 천안·아산·당진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협력 MOU체결', '충남 문화재단 연대 통합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공모사업 지원', '충남 문화재단 연합 워크숍 정기 개최' 등이다.

⑤ 주민주도형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지역주민 주도형 사회문화예술교육 동아리 사업 강화사업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동아리 구성 지원',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창작 공간 및 발표활동 지원 : 문화기반시설 활용사업, 문화 활동 동아리 역량강화 강사지원 사업' 등이다.

문화예술교육 지역주민과 동아리의 지역축제 참여기회 확대사업은 ‘지역축제 연계 문화예술교육사업과 프로그램 발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이수 지역주민과 동아리 지역축제 참여 부대행사 육성’, ‘모범사례 시상’, ‘지역축제 시 문화예술교육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등이다.

⑥ 충남 우수 문화예술교육 모델사업 추진

충남 우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사업은 ‘충남 문화예술사업과 프로그램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우수 문화예술 동아리 국제행사 참가 지원’ 등이다.

충남학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확산사업은 ‘충남학 및 시·군별 인문학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지역 인문학 특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시범 운영(금강 문화예술, 내포문화예술 등)’ 등이다.

⑦ 조직과 시책강화 및 협력체계 개선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전문성과 연계업무의 네트워크 강화사업은 ‘충남 문화예술교육 인력 전문성 강화와 확충’,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관련 문화기반시설 활용 등 네트워크 강화 사업 추진’, ‘충남도와 각 시·군 문화예술교육사업 업무연찬회 실시’ 등이다.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 시책강화와 자립형 프로그램 발굴 및 시행사업은 ‘충남 문화예술교육 진흥사업계획서 작성 : 문화예술권역 선정과 거점사업 발굴’, ‘문화예술권역 문화재단(사업주체)별 자립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충남도민 문화향유 핵심사업화 : 충남 문화예술권별 거점 교육사업 추진’ 등이다.

3.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향후 연구의 각 전략별 별도계획에서 보완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5
3. 연구 흐름과 연구수행체계	8
4. 선행연구와 차별성	9

제2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동향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	13
1)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13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	15
3)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흐름과 목표	16
2.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추진 정책	18
1) 문화예술교육의 추진 정책	18
2)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목적 및 의의	19
3)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구성 및 내용	20
3. 중앙정부 기본계획 :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발표	22
1) 배경 및 목적	22
2) 비전과 목표	24
3) 추진과제	25
4) 과제별 추진기관	26

4. 국내외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여건	27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공급 주체	27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실천적 주체	36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사업 경과	38
4) 해외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여건	40
5. 국내외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사례 조사	43
1) 일본의 시가현	43
2) 일본의 아이치 섬머 세미나	51
3) 안산문화재단의 사회문화예술교육	54
4)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55
6. 시사점 : 시·군 시행계획의 필요사항 및 기본내용	58

제3장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분석 및 과제도출

1. 분석의 틀	60
2.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 수행을 위한 실태분석	61
1) 충남의 문화지수	61
2)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실태분석	63
3) 충남 지역문화재단의 실태분석	75
3. 중앙정부 :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실태분석	78
1) 조사 대상 시설 수와 운영 주체	78
2) 시설 유형에 따른 이용자 분포와 직원 수	79
3) 시설 유형에 따른 예산	80
4) 시설 유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81
5) 분석 종합 및 시사점	90
4. 충남의 시설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설문조사 분석	94
1) 조사 분석의 개요	94
2) 충남 문화기반시설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	95
3) 충남 지역문화재단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	120

4) 분석 종합 및 시사점	127
5. 소결 및 활성화 과제도출	135

제4장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

1. 접근 틀과 정책추진과제	137
1) 접근 틀과 기본방향	137
2) 추진전략	138
2.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전략과 추진방안	139
1) 생애주기와 교육대상별 과정개발	139
2)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143
3) 지역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과 활용	149
4)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활용성 제고	153
5) 주민주도형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157
6) 충남 우수 문화예술교육 모델사업 추진	161
7) 조직과 시책강화 및 협력체계 개선	16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정책제언	169
1) 요약 및 종합정리	169
2) 정책제언	174
2. 향후 연구과제	177

참고 문헌	178
부록 1	181
부록 2	184
부록 3	195
부록 4	203

표 목 차

[표 1] 전문가워크숍 개최 내용	6
[표 2] 외부 전문가 원고 위탁	6
[표 3]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12
[표 4] 사회·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기존 정책사업 연구보고서 검토	17
[표 5] 우리나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유형 분류(대상별)	17
[표 6]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요 이슈	18
[표 7]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기본원칙	19
[표 8]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정 과정	20
[표 9]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의 구성 내용	21
[표 10]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의 과제	22
[표 11]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추진과제	25
[표 12] 부처(시·도)별 협업과제	26
[표 13] 사회문화예술교육 공급주체 유형	27
[표 14] 문화체육관광부 내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28
[표 1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 사회문화예술교육본부의 역할	29
[표 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사회문화예술교육본부의 역할	30
[표 17]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내 사회문화예술교육본부의 역할	31
[표 18] 예술경영지원센터 내 사회문화예술교육본부의 역할	32
[표 19] 광역시·도 문화재단 인력 현황	34
[표 20] 기초문화재단 현황	35
[표 2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분야 지원 사업 현황	38
[표 22] 충청남도 기초지자체와 일본의 자매결연 도시	43
[표 23] 시가현의 개요 및 특징	44
[표 24] 시가현의 문화시책 및 중점시책	44
[표 25] 시가현의 문화예술교육 운영 현황	47
[표 26] 일본 아이치 섬머 세미나 특징	52

[표 27] 안산문화재단 jj프로젝트 개요	55
[표 28]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요	56
[표 29] 분석의 틀	60
[표 30] 시·군구 기준별 상위지역	61
[표 31] 충남 문화기반시설 현황	64
[표 32] 인구 백만명당 문화시설 수	65
[표 33] 시·군별 도서관(교육청 주체) 현황	66
[표 34] 시·군별 도서관(지자체 주체) 현황	67
[표 35] 시·군별 박물관 현황	68
[표 36] 시·군별 미술관 현황	70
[표 37] 시·군별 문예회관 현황	71
[표 38] 전국 대비 충남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률	72
[표 39] 시·군별 지방문화원 현황	73
[표 40] 시·군별 문화의 집 현황	74
[표 41]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현황	75
[표 42] 충남문화재단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	76
[표 43] 당진문화예술학교의 시민문예아카데미 현황	77
[표 44] 문화기반시설조사 응답현황 및 이용자수	78
[표 45] 시설유형에 따른 이용자 분포	79
[표 46] 시설유형에 따른 직원과 시간제 강사	80
[표 47] 시설유형에 따른 예산	80
[표 48] 시설유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	81
[표 49] 시설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받은 경험과 시행요인	82
[표 5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설 기준	83
[표 51] 외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여부	84
[표 5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과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전체시설)84	
[표 5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과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개별시설)85	
[표 54] 각 시설별 문화예술교육의 여건	85
[표 55] 2015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계획 여부	86

[표 56] 중점 교육 대상(전체시설)	87
[표 57] 중점 교육 대상(개별시설)	87
[표 58]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전체시설)	88
[표 59]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개별시설)	88
[표 6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전체시설)	89
[표 6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개별시설)	89
[표 62] 시설유형에 따른 이용자 분포(2013년)	95
[표 63] 시설유형에 따른 이용자 분포(2015년)	95
[표 64] 시설유형에 따른 직원과 시간제 강사(2013년)	96
[표 65] 시설유형에 따른 직원과 시간제 강사(2015년)	96
[표 66] 시설유형에 따른 예산(2013년)	98
[표 67] 시설유형에 따른 예산(2015년)	98
[표 68] 시설유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2013년)	99
[표 69] 시설유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2015년)	99
[표 70] 시설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받은 경험과 시행요인(2013년)	100
[표 71] 시설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받은 경험과 시행요인(2015년)	100
[표 7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설 기준(2013년)	101
[표 7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설 기준(2015년)	102
[표 7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유무(2015년)	102
[표 7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과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전체시설)	103
[표 7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 1순위(전체시설)	103
[표 7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 2순위(전체시설)	103
[표 78]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과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개별시설)	104
[표 7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 1순위(개별시설)	104
[표 8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 2순위(개별시설)	105
[표 81] 각 시설별 문화예술교육의 여건(2014년)	106
[표 82] 각 시설별 문화예술교육의 여건(2015년)	106
[표 83] 2015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계획 여부	106
[표 84] 2016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계획 여부	107

[표 85] 중점 교육 대상(전체시설, 2014년)	107
[표 86] 중점 교육 대상 1순위(전체시설, 2015년)	108
[표 87] 중점 교육 대상 2순위(전체시설, 2015년)	108
[표 88] 중점 교육 대상(개별시설, 2014년)	109
[표 89] 중점 교육 대상 1순위(개별시설, 2015년)	109
[표 90] 중점 교육 대상 2순위(개별시설, 2015년)	110
[표 91]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전체시설, 2014년)	111
[표 92]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순위(전체시설, 2015년)	111
[표 93]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순위(전체시설, 2015년)	111
[표 94]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개별시설, 2014년)	112
[표 95]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순위(개별시설, 2015년)	113
[표 96]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순위(개별시설, 2015년)	113
[표 9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전체시설, 2014년)	115
[표 98]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1순위(전체시설, 2015년)	115
[표 9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2순위(전체시설, 2015년)	115
[표 10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3순위(전체시설, 2015년)	116
[표 10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개별시설, 2014년)	117
[표 10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1순위(개별시설, 2015년)	118
[표 10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2순위(개별시설, 2015년)	118
[표 10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3순위(개별시설, 2015년)	119
[표 10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대상(2015년)	119
[표 106]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인력현황 및 교육담당인력 고용형태	120
[표 107]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사업 분야	121
[표 108]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환경 및 여건	122
[표 109]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시행 맥락	123
[표 110]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목적	123
[표 111]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관련 조사 시행 여부	124
[표 112]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 시 어려운 점(2015년)	124
[표 113] 2016년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시행 의향 및 중요사업	125

[표 114] 2016년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중점 대상	125
[표 115] 2016년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제 ·	126
[표 116]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의 종합 분석(2015년)	134
[표 117]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운영시 어려운 점과 활성화 방안	134
[표 118] 접근 틀과 기본방향	137
[표 119] 기본방향별 추진전략	138
[표 120] 당진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사업과 프로그램 사례	167

그림 목 차

[그림 1]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2
[그림 2] 분야별 주요 연구내용	5
[그림 3]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7
[그림 4] 연구 접근개념과 연구 흐름도	8
[그림 5]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	14
[그림 6]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과정	16
[그림 7]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정책 방향	23
[그림 8]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전·목표·추진전략	24
[그림 9]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추진체계	37
[그림 10] 각국 문화적 맥락이 접목된 사회문화예술교육	40
[그림 11] 일본의 아트 브류트 미술관 현황	49
[그림 12] 아트 브류트 작품	50
[그림 13] 아이치 섬머 세미나의 현장 모습	53
[그림 14] 2014년 기준 전국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62
[그림 15] 전국 대비 미술관 현황	70
[그림 16] 문화기반시설의 응답된 기관	78
[그림 17]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주체	78
[그림 18] 문화예술교육 실시 여부	81
[그림 19] 시설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산 지원 경험 여부	82
[그림 20] 시설별 개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행요인	82
[그림 2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설 기준	83
[그림 22] 다른 기관과 문화예술교육을 연계 및 협력한 적이 있음	84
[그림 23] 201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계획 여부	86
[그림 24] 안산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예시	140
[그림 25]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사례	142

[그림 26] 충남문화재단과 문화원연합회, 한국예총충청남도연합회 협력 워크숍 사례	144
[그림 27]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문화재단의 업무협약식 사례 등	146
[그림 28] 당진문화예술학교의 설립 및 운영사례	148
[그림 29] 한국예총충청남도연합회의 지역 활동 사례	150
[그림 30]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아카데미의 운영 사례	152
[그림 31]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사례	154
[그림 32] 충남문화재단의 업무협약과 공모사업 지원 사례	156
[그림 33] 당진문화재단의 지속가능성 확보 추진체계	158
[그림 34] 당진문화예술학교의 동아리 성과 발표 사례	159
[그림 35] 경기종합예술제와 문화예술동아리페스티벌의 사례	160
[그림 36] 안산 청소년 극단 <고등어> 활동의 사례	162
[그림 37] 충남학 포럼과 강사위촉	164
[그림 38]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과 협동조합 창립 사례	165
[그림 39] 문화예술교육의 자립화와 사회공헌사업 사례	168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과 필요성¹⁾

(1)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통합 역할 증대를 위한 중앙정부 정책 강화

최근 상상력·창의력 기반의 소프트파워 부상에 따라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현재 생애주기별 문화 복지와 예술교육, 통합적 사고능력, 스마트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은 현재 소통과 사회 통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화적 체험과 배움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존중감 향상, 상상력 및 창의성 함양, 협동심과 인성 계발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융성, 창조경제, 국민행복 실현의 토대로, 중앙정부에서는 국민행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보편화·일상화 및 지역 특성에 맞춘 문화자치 실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2) 국내 문화예술교육의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과 시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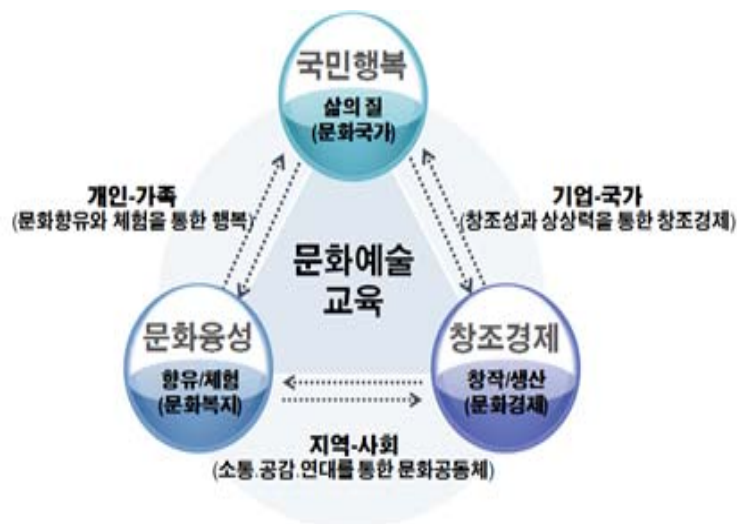
국내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정책기반의 조성으로 정부는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2007년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발표」, 2012년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 2014년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등의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의 범위를 ‘학교문화예술교육’²⁾과

1)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1~6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의미하며, 현재 지역문화시설과 연계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한국형 엘시스테마의 꿈의 오케스트라(‘10년), 청소년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12년), 지역아동센터(‘12년), 청소년 비행예방센터(‘12년))와 문화소외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아동·노인·장애인 복지기관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06년)), 생활권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시민문화예술교육 모델개발 사업(‘11년), 군·교정시설·소년원학교(‘12년), 의경·북한이탈주민(‘14년))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업과 언론사가 연계한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07)’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며,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이전까지 공급과 매개 부문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수요부문까지 확장하였고, 문화정책 영역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을 다양한 사회정책영역과 연계시킴으로써 거버넌스적 접근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p.2.

〔그림 1〕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 2)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초·중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의 교육체계와 외부 문화예술자원 간의 효율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추진하는 정책을 의미함(류정아, 2007)

(3) 충남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출과 개선 방안 필요

지난 10년간 정부주도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양적성장을 이루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계층과 지역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앙집중형(정부→진흥기관→지역기관·단체·강사)’의 사업구조로 인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지역의 문화단체 및 사회커뮤니티와 상생하며, 문화예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역할이 미흡하다.

지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지역문화기반시설이 중앙정부 정책 지원에 한정되어 지역의 진흥거점 역할에 한계가 존재한다. 지방분권화로 추진체계가 지역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문화 상생을 위해 지역과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로 재편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문화재단 및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의 문화기반 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각 지역광역센터의 위상과 처우환경이 낮아 실질적 매개자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며, 충남 지역에 기반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전략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충남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의 구체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은 2015년에 총 2,519개 중 149개로서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 단위의 충남문화재단과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총 49개) 중 3개의 기초문화재단(아산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 천안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다. 충남문화재단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산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꿈의 오케스트라 <아산온궁오케스트라>’이고 2년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였으나 2016년에는 선발되지 않았다. 당진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연령별·장르별 교육프로그램인 ‘문화예술학교’를 운영 중이다.

충남도민은 최근 1년간 학교교육 이외에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이 21.6%이며,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 시 애로사항을 살펴보았을 때 ‘비용이 많이 듭니다(29.4%)’, ‘관심 있는 강좌가 없음(16.6%)’,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음(16.2%)’의 순으로 드러났다(충남문화재단,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 거점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진행되지 않은 광역단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는 부분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을 분석하여,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하며,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동향을 분석하고, 충청남도과 각 시·군 시행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진행되어야할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둘째,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충남의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실태조사(2013년 기준) 분석과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시설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설문 조사(2015년 기준)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밝히고, 향후 충청남도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차원의 전략수립과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와 도내 4개 시·군(천안시·아산시·청양군·금산군)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대상지역의 대도시(천안·아산)와 농촌지역(청양·금산)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로는 2015년을 분석의 기준연도로 하였고, 통계자료 분석은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최근 5여년 간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대상은 충남의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과 지역문화재단으로 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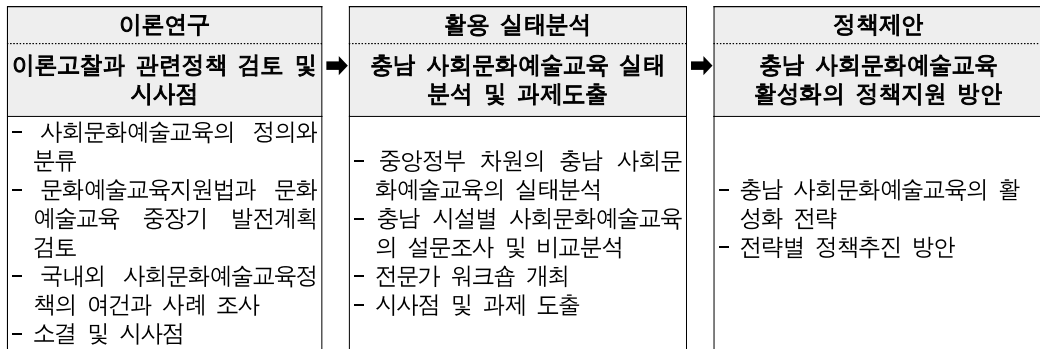
연구내용은 크게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관련 계획의 검토 및 분석,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이론 고찰과 관련 정책의 검토, 충남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실태 조사,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수립 활성화 과제와 전략, 활성화 방안 등이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관련 중앙정부 기본계획의 분석을 실시하며, 세부 내용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목적 및 의의, 시행령 제정 과정, 구성 및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한국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흐름과 목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2014년 실시된 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 정책의 시사점 및 국내외 우수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셋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충남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및 지역문화재단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실태분석(2013년 기준)과 충남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실태 설문조사(2015년 기준)를 실시하여, 소결 및 활용과제의 도출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접근틀과 기본방향 제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2) 분야별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① 이론연구 및 문헌고찰, ② 전문가 워크숍 개최, ③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④ 충남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사업 실태조사, ⑤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 및 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1) 이론연구 및 문헌고찰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이론 고찰과 정책의 검토는 문헌조사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관련 계획 정책보고서, 조사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국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중앙 정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14년 사회문화예술교육 실태(2013년 기준)’을 참고하여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의 실태조사(2015년 기준)를 위한 조사 항목을 도출하였다.

(2) 전문가 워크숍 개최

국내외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실태 파악 및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5일에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정책의 이슈와 우수 사례들을 통해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 파악 및 방향성 제시를 협의하였다.

[표 1] 전문가워크숍 개최 내용

	주제	참석자
발제	· 해외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현황 및 충남에 대한 시사점	(주)종합과학연구원 서재승 원장
	·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운영 방안 및 충남의 정책 방향	안산문화재단 강창일 대표
	· 국내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운영 현황 및 충남의 정책 방향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백령 연구위원
지정토론	차민경 겸임교수(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문옥배 사무처장(당진문화재단), 이종원 차장(동아일보 문화기획팀)	

(3)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 여건’에 대한 원고를 외부 연구진에 집필을 의뢰하여 작성하였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 여건’ 중에서 해외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여건, 국내외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우수 사례 조사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였다.

[표 2] 외부 전문가 원고 위탁

외부전문가	소속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간
서재승 원장	(주)종합과학연구원	해외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여건 및 국내외 사례 조사	2016. 8~9

(4) 충남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사업 실태조사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과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사업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훈련된 조사원을 통하여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담당자들에게 진행하였다.

문화기반시설의 조사 내용은 ① 기관의 일반적 현황,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 ③ 문화기반시설의 역할과 위상, ④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향후 시행계획, ⑤ 응답자 기본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화재단의 조사 내용은 ① 재단(센터)의 일반적 현황, ② 문화예술교육 사업 환경과 여건, ③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과 관리, ④ 문화예술교육 사업 향후 시행계획, ⑤ 응답자 기본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5)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 및 과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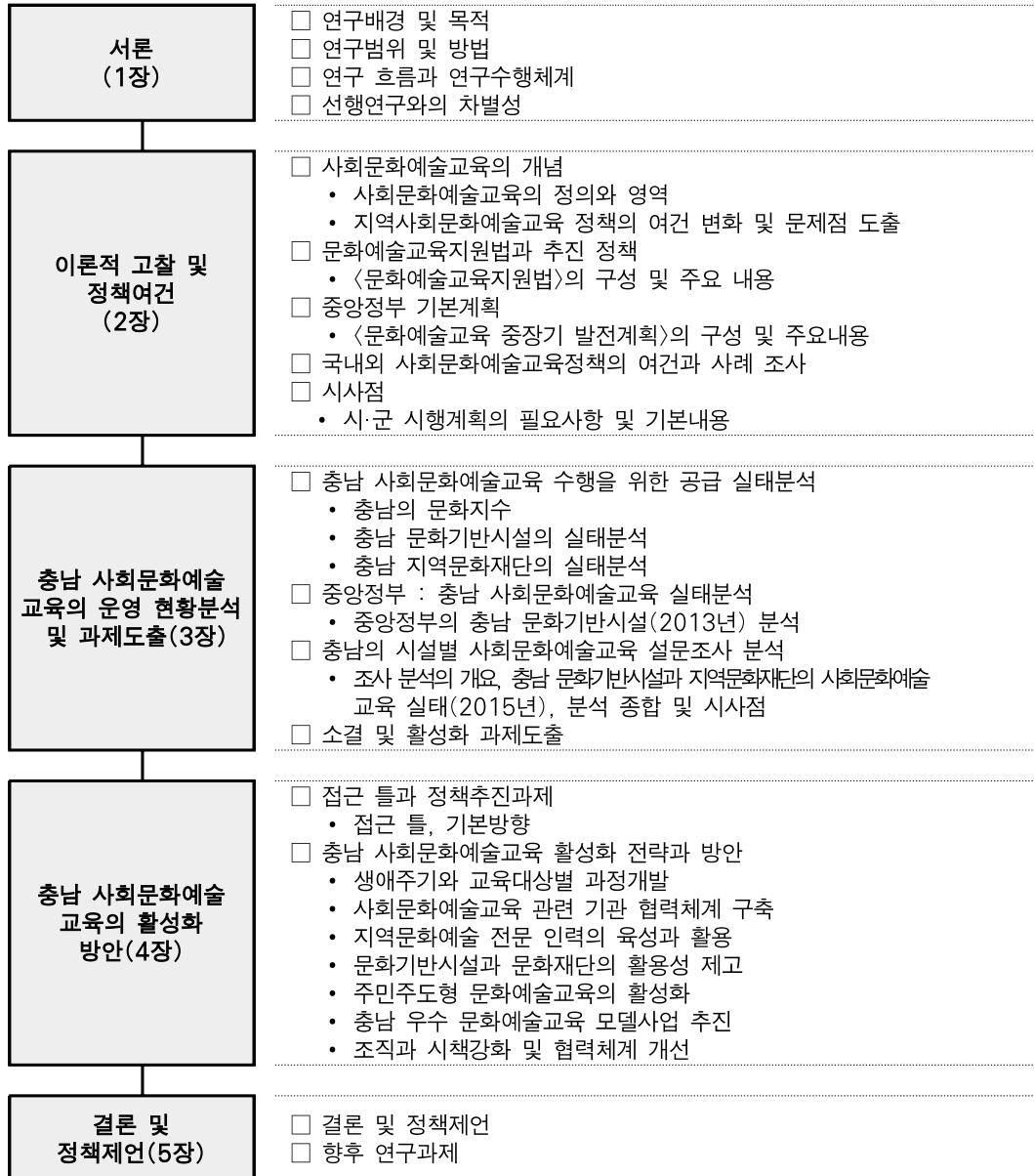
연심회, 자문회의 및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충남과 시·군 여건에 적합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의 기본방향과 종합 과제를 도출하였다.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문헌 고찰과 정책 검토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의의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법률, 조례 ◦ 국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여건 - 연구진 워크숍 - 외부전문가 연구 참여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 추진사업 실태분석 ◦ 충남 문화기반시설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현황 및 실태분석 - 공공도서관, 문화원, 문화의 집,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재단 등 관련사업
전문가 자문·협의 및 연구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연구 자문 ◦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 도출 및 창의적인 정책방안 제시 - 외부 문화예술교육정책 전문가 연구 참여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도출 ◦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 문화예술교육 분야 전문가, 중앙정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계자,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 전문가 등 초청 워크숍 ◦ 활성화 방안 및 정책대안 반영

[그림 3]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3. 연구 흐름과 연구수행체계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흐름의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연구 접근개념과 연구 흐름도

4. 선행연구와 차별성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기존연구를 주제별로 범주화하면 ①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 ② 문화예술교육 통계 연구, ③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 ④ 문화기반시설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로는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김세훈 외, 200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방안 연구(양현미 외, 2004)」,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박영정 외, 2010)」, 「2013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정현수 외, 2014)」가 이루어졌다.

김세훈 외(2004)의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실질적인 정책 사업들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제시하였고, 문화예술교육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 중요사항을 검토하였다.

양현미 외(2004)의 연구에서는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과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방안,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박영정 외(2010)의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중장기 방향으로서의 ‘시민문화예술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그 실행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정현수 외(2014)의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온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정당성을 찾고,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2) 문화예술교육 통계 연구

문화예술교육 통계 연구로는 「2010 문화예술교육 통계 조사(박민규 외, 2010)」가 있는데,

문화예술교육 통계 데이터 구축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향후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중요한 기초 준거 자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3)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석 연구(양현미 외, 2010)」, 「2011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분석 연구(박신의 외, 2011)」, 「2014 사회문화예술교육현황 조사(김세준 외, 2015)」,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권순석 외, 2015)」, 「2015 사회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사업전략 연구(양혜원 외, 2015)」가 있다.

양현미 외(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전 국민에 대한 평생 문화예술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취약 계층 위주로 이루어졌던 정책을 생애주기 관점을 포함한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대상·목표·방안 등을 정립하였다.

박신의 외(2011)의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중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 강사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였고,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을 파악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세준 외(2015)의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파악하였고, 주제별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 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권순석 외(2015)의 연구에서는 7개국(프랑스·영국·미국·독일·호주·일본·한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맥락 및 특징을 분석하여, 각 사회 내에 문제의식으로부터 구축된 정책 사례를 찾아냄으로써 국내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양혜원 외(2015)의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진행되어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성과 및 한계를 파악하고, 사회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수요를 분석하여 향후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전략을 도출하였다.

(4) 문화기반시설 연구

「문화기반시설 다문화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방안(윤소영·류연정, 2010)」, 「충남 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지역문화정체성과 연계를 중심으로-(이인배 외, 2012)」, 「2012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실태조사 연구(백령 외, 2013)」이 있다.

윤소영·류연정(201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사업의 대상이 이주민뿐 아니라 넓은 의미로 확

장하기 위하여 문화기반시설을 거점으로 하는 새로운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문화기반시설의 다문화프로그램 지원근거, 적절한 지원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인배 외(2012)의 연구에서는 충남 문화정체성을 고찰하여 지역문화의 중요한 본질을 살펴보고,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서비스 향유 실태분석을 통한 정책적 과제와 전략을 도출하여 충남 문화정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백령 외(2013)의 연구에서는 문화기반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인적·물적 환경을 분석하여,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이용 현황과 향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요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을 비교하자면, 본 연구의 내용과 목적에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는 초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시행령 초안이나 조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중에서 지역의 시책과 연계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가 전국 문화예술교육의 실태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편,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의 지역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문화시설기반 및 문화재단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실증조사 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시행계획을 모색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충남 광역단체의 관점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에, 향후 다른 광역단체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이 발표되어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충청남도과 그 외 지역에서도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유형	제목	연구책임자	연구 주요내용
선행 연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김세훈(2004)	◦ 공공정책과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국내외 사례조사 ◦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도출 ◦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모색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방안 연구	양현미(2004)	◦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범위 ◦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방안 ◦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박영정(2010)	◦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발전단계와 전략적 과제 ◦ 시민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 정립과 활성화 방안 모색 ◦ 시민문화예술교육의 실행 모형
		2013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정현수(2014)	◦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의 현황과 추진 성과 분석 ◦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현황에 관한 분석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메타분석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 지표 개발
	문화예술교육 통계 연구	2010 문화예술교육 통계 조사	박만규(2010)	◦ 문화예술교육 통계 연구 및 사례 ◦ 문화예술교육 기존 사업추진 현황 조사 ◦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석 연구	양현미(2010)	◦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분석의 방향과 범위 ◦ 국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실태 조사 및 정책 방안 도출
		2011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분석 연구	박신의(2011)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유형별 우수 사례 발굴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실행의 단계별 전략 도출
		2014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	김세준(2015)	◦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흐름과 현황 파악 ◦ 2013년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현황 및 실태 파악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권순석·최혜자(2015)	◦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국내외 동향 ◦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호주, 일본, 한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 맥락 및 특징,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2015 사회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사업전략 연구	양혜원(2015)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현황 및 성과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수요 및 주요쟁점 분석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사업전략
	문화기반시설 연구	문화기반시설 다문화 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방안	윤소영(2010)	◦ 문화기반시설의 다문화 프로그램 추진 현황 ◦ 문화기반시설의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사례 ◦ 문화기반시설 다문화프로그램 운영개선방안 모색
		충남 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이인배(2012)	◦ 문화정책성과 문화기반시설 관련 이론고찰 ◦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공급과 향유 실태분석 ◦ 충남 문화정책성 연계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방안 모색
		2012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실태조사 연구	백령·김명준(2013)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실태조사(담당자) ◦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실태조사(이용자)
본 연구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 방안 모색	정지은, 이인배 및 외부 연구진	◦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이론과 정책 분석 ◦ 충남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현황, 실증조사 ◦ 전문가 워크숍, 충남 여건에 맞는 사회문화예술교육 과제 도출과 활성화 방안 모색

제2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동향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

1)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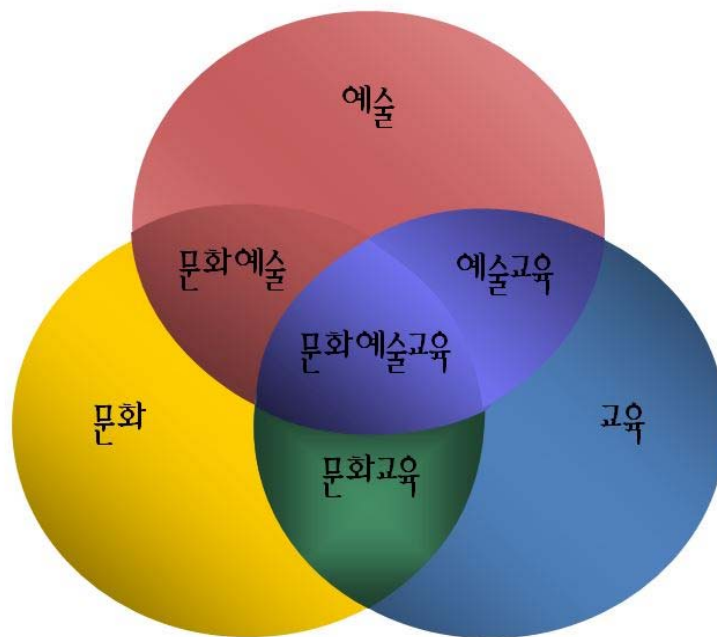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표현되고 있으며, IT산업과 정보화·세계화라는 시대의 변화된 모습을 토대로 산업사회에서 그 이상의 변화과정으로, 문화가 삶을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문화의 시대는 개인이나 집단의 지적·정신적·심미적 계발은 물론이고, 그 과정과 결과로서 문화적 행위와 생산물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로, 이러한 영향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새롭게 조명 받게 되었다(류정아 외, 2007).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과 교육의 합성어로서,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이 두 가지 개념이 결합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예술은 문학·조형예술·공연예술·전통예술·생활문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하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의미한다(김세훈 외, 2004). 그런데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은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예술교육은 음악·미술·연극 교육 등 개별 예술장르들의 교육과정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또한 예술교육은 우수한 예술가와 예술작품을 직접 접하게 하고, 예술의 역사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경험과 인식력·창의력·의사소통 능력을 계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술교육은 유치원 이전의 아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청소년기까지의 예술교육, 사회인의 예술교육, 예비전문가와 전문가를 위한 예술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김세훈 외, 2004).

문화교육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필수적인 문화적 해득력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교육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관습·의식·태도 등의 차이를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고, 제3세계 이주민·여성·장애인·동성애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협동심 등을 가르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교육은 예술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는 예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에 예술교육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은 미적 체험을 중시하는 예술교육과 사회의 문화적인 가치를 포함하는 문화교육이 결합된 교육과정(정지영, 정지은, 이석규, 2014; 정지은, 이석규, 김춘경, 2014; 정지은, 2016)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자료 : 정지은·이석규·김춘경(2014), 문화소외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례 연구

- 동아일보 연천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4(2), p. 2.

〔그림 5〕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³⁾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제2조 정의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영역을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김세준 외, 2015). 이후 주 40시간 제도 전면 도입에 따른 국민 여가 욕구 및 자발적 문화 활동 욕구가 증대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 시민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문화예술교육도 주목받기 시작했다(박영정 외, 2010).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구분하던 이전 시기⁴⁾의 접근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정부는 1982년 사회교육법을 제정함으로써 학교교육 이외에 사회교육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지원의 대상으로 삼았고, 향후 평생교육 개념으로 확대하여 2007년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현재에는 평생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사회교육을 다루고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점차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의미하며,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제2조 제3호·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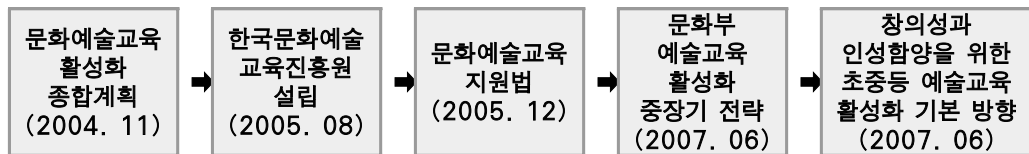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문화시설·청소년 활동 시설·평생교육시설 중 문화예술교육을 시설 등에서 진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이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정의하고, 문화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재 및 문화산업 분야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였다.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2014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 9~11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4) 1945년 광복과 1953년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매우 높아 초·중·고등학생들 이외에도 문자를 읽기 못하는 계층이 많았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해교육은 학교 이외의 다양한 시설·단체들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처럼 학교 밖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해교육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는 국민재교육으로서의 성인교육으로 확대되었고, 이후에 전국 각지에 설립된 성인학교들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그리고 현재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주에는 주로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교육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하면 문화산업 영역 관련 교육활동이나 문화재 영역 관련 교육 활동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세준 외, 2015).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일반적으로 폭넓게 실시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구분해내기는 쉽지 않다. 민간 영역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분야의 학원교육이나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취미교실도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주로 볼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과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취미, 여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 과정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2013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p. 16.

(그림 6)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과정

3)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흐름과 목표⁵⁾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제고와 예술 전공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교육 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국악 강사제가 문화관광부에 의해 지원되었고, 이들은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적인 목표와 학교 교육을 통한 예술 전공자들의 활동 폭을 확장하는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였고, 이후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취약계층’ 대상의 사업은 일반 시민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2013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15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표 4] 사회·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기존 정책사업 연구보고서 검토

구분	정책사업 분석 연구	
연구 과제명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
목표	◦ 창의성 제고 ◦ 가족 유대 강화 ◦ 정체성 강화 ◦ 창조산업 발전 ◦ 공동체 형성	◦ 창의적 통합적 사고형 인재양성 ◦ 사회공동체 형성 ◦ 일상적 삶 속에서의 문화적 가치 실현에 기여
문제점	◦ 정책대상의 격차 ◦ 지원 장르의 편중화 ◦ 지원규모·방식의 차이 ◦ 추진체계의 한계	◦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인식 공유 부재 ◦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주체의 협력체계 부족 ◦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가치성 극대를 위한 인프라 부재 ◦ 학교관계자와 예술 강사의 상호 이해부족
향후 방향 및 추진 과제	◦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영역 체계화 ◦ 계층 내 대상별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 문화유산·문화산업·인문학 등으로 지원분야 확대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직접/간접지원 결합 ◦ 예술강사의 교육과 창작의 병행 ◦ 도서관 활용 확대 ◦ 시민창작스튜디오 신설 ◦ 신규정책 영역 대상 개발 (아마추어, 마니아, 대학생, 가족)	◦ 종합 포털 시스템 구축(R&D, 매뉴얼, 홍보) ◦ 학교차원의 실행공동체 구축 ◦ 사업 지속의 불확실성 제거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 운영 ◦ 학교문화예술교육 구성원 간 협력 유도 ◦ 학습 성과 관리 및 피드백 체계 마련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2013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p. 15.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크게 운영 주체 및 대상, 계층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에 사회문화 예술교육사업은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있고, 다양한 계층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부처 및 지자체, 기관 등의 협력/연계와 더불어 문화예술장르 및 활동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대상 및 계층,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구분은 사실상 어렵지만,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유형 분류를 대상별로 정리하였다.

[표 5] 우리나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유형 분류(대상별)

수혜대상	사업
유아	유아문화예술교육사업 등
아동·청소년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사랑티켓사업, 꿈의 오케스트라사업 등
청소년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상상학교’, ‘jj 프로젝트’, ‘친구와 문화예술과 놀자!’ 등
성인/학부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노인/어르신	65세 이상 사랑티켓사업 등
누구나	시민 문화예술교육 ‘시시콜콜’ 사업 등

2.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추진 정책

1) 문화예술교육의 추진 정책⁶⁾

1990년대까지 문화 분야는 경제성장의 성과를 과시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었고, 국민의 문화 복지 개념이 등장하면서 일반 국민을 문화예술정책의 대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문화예술교육은 이보다 진전된 개념이다.

[표 6]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요 이슈

구분	정책사업 분석 연구	
제6공화국 (1988-1993년)	핵심문화기조	◦ 문화정책기초마련
	주요이슈	◦ 문화발전 10개년계획(1990) : 문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복지문화의 틀, 민족 문화의 틀, 개방문화의 틀, 통일문화의 틀을 제시 ◦ 문화향수 실태조사 실시, 찾아가는 문화 활동 등장
문민정부 (1993-1998년)	핵심문화기조	◦ 삶의 질 세계화와 문화감수성 증진
	주요이슈	◦ 문화복지 중장기 실천계획(1996년) :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 보장, 생산적 예방적 복지, 참여활성화에 따른 복지공동체 형성 강조 ◦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문화복지 기본구상(1996년)
국민의정부 (1998-2003년)	핵심문화기조	◦ 자율, 참여, 분권의 문화 향유권 확대
	주요이슈	◦ 평생학습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역할 확대, 문화지구, 문화프로그램 정보 문화소외계층 지원정책, 문화자원봉사 육성, 문화예술교육강조 ◦ 개인의 감수성 증진보다는 지식기반사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창의성 강조
참여정부 (2003-2008년)	핵심문화기조	◦ 자율, 참여, 분권의 문화 향유권 확대
	주요이슈	◦ 창의한국에서 '창의적인 문화시민, 다원적인 문화사회, 역동적인 문화국가'의 3대 목표 하에 27개 과제 제시 ◦ 그중 제1과제가 '문화와 개인 : 문화 참여를 통한 문화역량 강화'로 문화예술교육에 집중 ◦ 이는 일반국민을 기존의 문화복지의 대상에서 문화활동과 실천의 주체로 보는 시각을 반영
이명박정부 (2008-2013년)	핵심문화기조	◦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주요이슈	◦ "생활 속 예술"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예술의 창조 역량 강화와 문화 불균형 해소, 그리고 문화 환경 개선 지향 ◦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일상속의 예술창조 역량 강화와 문화불균형 해소, 일상 속의 문화복지 등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박근혜정부	핵심문화기조	◦ 문화융성, 행복한 대한민국
	주요이슈	◦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사례 연구』, p. 44~46.

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사례 연구』, 44~46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2)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목적 및 의의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는 제1조(목적)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7)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기본원칙

기본원칙 (제3조)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함 ②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음
------------------------------	---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은 2004년 2월 ‘문화예술교육과’가 신설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관광부)의 주요 정책 영역으로 공식화되었다(박영정 외, 2010). 2005년 2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고, 2005년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으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제도적인 기반이 정비되었다. 문화예술교육정책이란 문화예술교육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개발하여, 그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매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과 정책과 교육사례를 홍보하고, 이에 대한 학술 심포지움, 정책·지역별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정책기반 조성사업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실효되면서,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기관과 문화 소외계층에 이르기까지 지원 영역과 대상이 확대되었고, 현재 중앙정부·지방정부·정부 내 부처(노동부·여성가족부·법무부·보건복지부·외교통상부 등 행정부처) 간의 협력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한은실, 2008).

[표 8]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정 과정

◦ 2004. 11. 25.	문화예술교육 활성화계획 발표
◦ 2004. 12. 29.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 발의 (민병두 의원 등 13인)
◦ 2005. 4~ 5.	문화예술 및 교육 관련 단체 대상 법안 설명 및 의견 수렴
◦ 2005 6. 20.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개최
◦ 2005. 9. 9.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공청회 개최
◦ 2005. 9. 9.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공청회 개최
◦ 2005. 12. 8.	국회 본회의 통과
◦ 2005. 12. 29.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공포
◦ 2006. 2.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안) 마련 및 착수
◦ 2006. 3. 2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안) 공청회
◦ 2006. 4. 6.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심사완료
◦ 2006. 6. 29.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공포

자료 : 문화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07), 『2006 문화예술교육정책백서』, pp. 180-181.

3)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구성 및 내용

법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총 5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총칙**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명시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책무를 언급하고 있다.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과 이를 수립·추진하기 위한 공공기관과의 협조,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시·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두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 **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교장의 임무, 지원 방식, 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를 위한 구축 방안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 **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경영자의 임무, 지원 방식, 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등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다.

- **제5장 문화예술교육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며, 문화예술교

육사의 자격 조건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과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 부칙 : 법의 시행일과 종합계획·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의 수립에 대한 적용례, 종합 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표 9]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의 구성내용

장 구성	조 구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등) 제7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제10조2(지역센터의 지정취소)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제12조(공공시설의 이용) 제13조(교육시설 등의 평가)
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14조(학교의 장의 임무)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16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제17조(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제19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0조(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2조(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 제23조(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동) 제26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제5장 문화예술교육사	제27조(국가 등의 의무) 제27조2(문화예술교육사) 제27조3(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제28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제2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30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회제공 등)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4조(청문)
부칙	제1~제3조

3. 중앙정부 기본계획 :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1) 배경 및 목적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이 활발해지면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법제도 정비**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05년),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 발표('07년),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12년) 등이 발표되었다.

- **추진체계 구축**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05년), 전국 16개 시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09년~'11년)이 운영되고 있다.

- **예산 확대** :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예산이 '08년 275억 원에서 '13년 1,099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와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권석순 외, 2015).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은 지역화 과제, 접근성의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능력, 파트너십의 확대, 지역적 정체성 구축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는 3~4년에 한 번씩 설계되는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에 드러나 있으며, 현재 네 차례에 걸쳐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방향이 제안되었다.

[표 10]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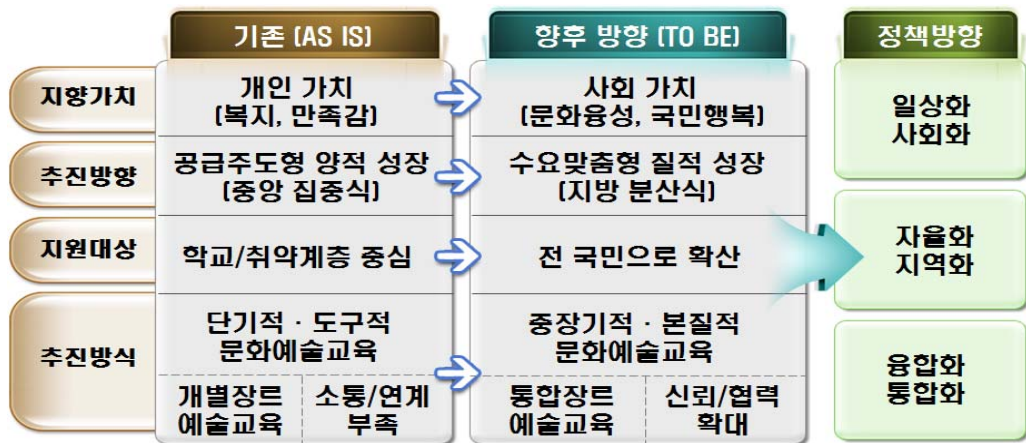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문화예술교육활성화종합계획(2004)	◦ 문화예술교육 기초연구 및 국민인식 제고 ◦ 유·초·중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 ◦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초·중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 ◦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구축 ◦ 문화예술교육의 법, 제도적 기반 마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	◦ 참여기회 확대 및 내실화 ◦ 사회적 소수자 문화적 권리 신장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 지식정보 확충 및 국제적 위상 확보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2010)	◦ 정책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 학교-지역사회 연계 지원체계 강화 ◦ 예술 강사 전문역량 강화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p. 15.

문화예술교육 대상을 학교와 소외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고, 생애주기 및 생활영역에 맞춘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 발굴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한 시점에,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공급주도형·중앙집중식 문화예술교육의 지원과 차별화·통합화된 프로그램 지원과 정책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주도의 문화예술교육은 양적성장을 이루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계층과 지역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중앙 정부의 정책 지원에 한정되어 지역의 진흥거점 역할에 한계가 있고,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성장 추구로 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 체계가 미비하며,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평가 환류에 따른 재교육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사회화·지역화 강화’ 및 ‘건강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화·융합화·통합화’를 제안하였다. 지방분권화로 추진체계가 지역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문화 상생을 위해 지역특화 및 지역과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로 재편이 필요하고, 지역문화재단 및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의 강화를 제안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율적·효과적 전달을 위해서 부처 간 혹은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협업 체계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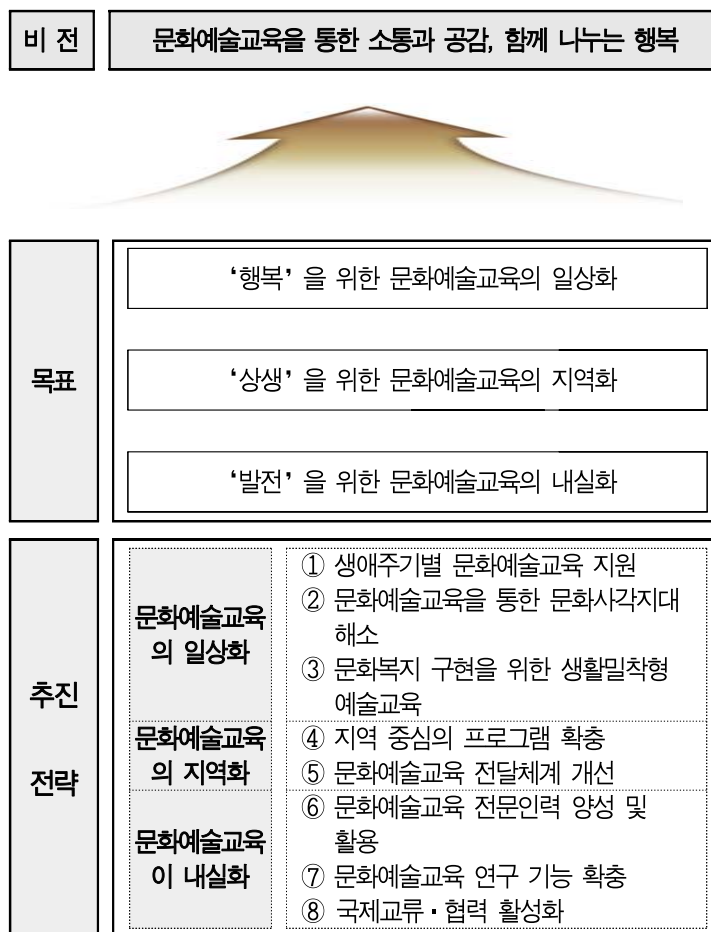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p. 6.

〔그림 7〕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정책 방향

2) 비전과 목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를 이루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2014. 04. 25)을 발표했으며, 이는 1년여 동안 문화기반시설 담당자·사업관계자·현장 활동가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우리 사회 전반에서의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의 내용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소통과 공감, 함께 나누는 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라는 3대 추진전략과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p. 7.

[그림 8]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전·목표·추진전략

3) 추진과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과제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사각지대 해소’,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예술교육 추진’이며, 이러한 목표 아래 7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중점과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로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4가지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과제는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로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확산’, ‘문화예술교육 연구기능 확충’,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하면서, 7개의 추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표 11]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1-1.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 유아·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 성인 어르신 대상 문화향유권 확대 ◦ 세대 간 화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1-2.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사각지대 해소	◦ 문화취약 계층 대상 예술교육 접근 기회 확대 ◦ 예술교육 사각지대 프로그램 지원 확대
1-3.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예술교육 추진	◦ 생활 속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확대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강화
2-1.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2-2.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개선	◦ 문화예술교육 협업 체계 구축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주체 발굴 및 협력
3-1.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확산	◦ 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원 설치·운영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안정화 및 실효성 제고
3-2. 문화예술교육 연구기능 확충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인식 확대와 활성화 위한 연구기능 강화 ◦ 문화예술교육 정보 축적 및 공유 확대 ◦ 대학 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AK(Arts Korea)’기반 구축 (교육부협업)
3-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 해외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4) 과제별 추진기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제시된 과제들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부처 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하는 기관으로는 교육부·시도 교육청·법무부·국방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통일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2] 부처(시·도)별 협업과제

기 관 명	과 제 명	주 요 내 용
교육부 시도 교육청	1-1.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연계 및 관리
	1-2. 문화 사각지대 문화예술교육 향유	◦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 연계 및 관리
	2-1.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 도서벽지 소재 각 급 학교 연계 및 관리
	3-2. 문화예술교육 연구기능 확충	◦ AK 기반 구축 지원
법무부	1-2. 문화 사각지대 문화예술교육 향유	◦ 교정시설,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연계 및 관리
국방부	1-2. 문화 사각지대 문화예술교육 향유	◦ 육·해·공군 연계 및 관리
여성가족부	1-2. 문화 사각지대 문화예술교육 향유	◦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쉼터 연계 및 관리
산업통상 자원부	1-1.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 산업단지, 중소기업 연계 및 관리
보건복지부	1-1.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연계 및 관리
	1-2. 문화 사각지대 문화예술교육 향유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연계 및 관리
통일부	1-2. 문화 사각지대 문화예술교육 향유	◦ 북한이탈주민시설 연계 및 관리
경찰청	1-2. 문화 사각지대 문화예술교육 향유	◦ 의경부대 연계 및 관리
지자체	2-1.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 지역별 문화예술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운영협조
	2-2.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개선	◦ 지역별 광역센터 지원 강화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p. 22.

4. 국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여건⁷⁾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공급 주체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공급주체는 공공부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그리고 지역의 문화재단과 국공립 문화 기반시설이 문화 분야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주된 공급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 해당 부처의 산하기관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예술계 학원, 민간 문화예술교육단체, 민간 문화시설 등에서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시설이나 복지시설·여성 및 청소년 시설·대학교·시민단체·언론기관·종교단체 등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표 13] 사회문화예술교육 공급주체 유형

구분		공급주체 유형
공공 부 문	문화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 문화재단,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타 분야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 국공립평생교육시설 등
민간 부 문	문화 분야	예술계 학원, 민간 문화예술교육단체, 민간 문화시설
	타 분야	평생교육시설, 복지시설, 여성 및 청소년시설 대학, 시민단체, 언론기관, 종교단체 등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2015 사회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사업전략 연구』, p. 20.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설치된 문화예술교육과는 문화예술교육정책 전

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2015 사회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사업전략 연구』, 20~80쪽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49~63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인력 양성과 국제 교류 등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제반 사업을 총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표 14〕 문화체육관광부 내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구분	내용				
중앙문화부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영문명칭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비전	문화융성, 행복한 대한민국				
조직(2014년 12월 기준)					
	<table><tr><th>전담부서</th><th>역할</th></tr><tr><td>예술정책관 - 예술정책과 - 공연전통예술과 - 시각예술디자인과 - 문화예술교육과 </td><td> -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교육 수요개발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 문화예술교육관련시설·기관 및 단체지원에 관한 업무 -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td></tr></table>	전담부서	역할	예술정책관 - 예술정책과 - 공연전통예술과 - 시각예술디자인과 - 문화예술교육과	-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교육 수요개발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 문화예술교육관련시설·기관 및 단체지원에 관한 업무 -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전담부서	역할				
예술정책관 - 예술정책과 - 공연전통예술과 - 시각예술디자인과 - 문화예술교육과	-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교육 수요개발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 문화예술교육관련시설·기관 및 단체지원에 관한 업무 -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p. 49.

(2)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치하였는데,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제반 정책 수행과 연구·인력양성 및 국제교류 등 종합적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본부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과 평가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표 1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 사회문화예술교육본부의 역할

구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영문명칭	KOREA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	
홈페이지	http://www.arte.or.kr	
비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실현	
미션	상생과 공존의 문화예술교육지원체계 구축	
조직(2014년 12월 기준)	조직구성	사회문화예술교육 본부의 역할
	사회문화예술교육본부 - 사회교육팀 - 융합사업팀 - 꿈의 오케스트라 TFT	-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 사회복지기관(아동·노인·장애인) 연계 예술 강사 지원 -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 청소년시설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캠프 운영 - 군,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 -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컨설팅/평가 -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지원* - 예술치유 활성화 지원 - 토요문화학교 아우름·차오름 프로그램 151개 운영 지원 - 토요문화학교 실적 관리 및 컨설팅 - 토요문화학교 공식사이트 (Facebook.com/toyoschool) 운영 -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사업 - 지역 거점형 '꿈의 오케스트라' 육성 지원 - 전문인력 양성 및 아카데미 운영 - 국제교류-해외전문가 초청 워크숍 - 수석강사 마스터 클래스, 교류공연, 음악캠프, 기획 공연 - 한국형 엘시스테마 특성화 사업 지원 - 교육자료 패키지 개발 및 평가, 효과성 연구 - 인사이드 리포트 발간 및 아카이빙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p. 50.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을 위한 기금(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 및 기부금을 모집하는 국가조직으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 지원, 연구·인력양성 등 우리나라의 문화예술발전 및 확대, 문화 복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사회문화예술교육본부의 역할

구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문명칭	Arts Council Korea(ARKO)										
홈페이지	http://www.arko.or.kr										
비전	문화예술의 창 의와 나눔으로 국민이 행복한 세상										
미션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										
조직(2016년 8월 현재)	<table border="1"> <tr> <th>조직구성</th><th>사회문화예술교육 본부의 역할</th></tr> <tr> <td>-문학시각 예술본부</td><td>(문학시각본부_문학지원부) - 문예기금 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 문학주간행사 - 예술창작지원예결산, 문학지원사업운영 - 문학지원 문학 활성화 프로그램 - 사이버문학광장, 청소년 문학영재 운영</td></tr> <tr> <td>-공연예술 본부</td><td>(문학시각본부_시각예술부) - 아르코 미술관 및 예술가의 집 등 시설관리 - 소작작품 운영 관리 - 미술관 및 인사미술공간 홈페이지 관리 - 미술관 시각지원 사업 - 공공미술사업 운영 - 전시기획, 아카이브연계사업 - 뮤지엄, 예술나무카페관리, 예술가의 집 기획프로그램운영 - 시각예술 전시, 공간, 비평지원 - 작가보수제도 연구, 필룩스 운영,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td></tr> <tr> <td>-문화나눔 본부</td><td>(문학시각본부_예술자료원) - 예술강좌, 미술작가500인, 지원사업연계 운영 - 구술채록사업 및 시각예술 아카이브컬렉션 기획수집</td></tr> <tr> <td>-예술확산 본부</td><td>- 공연 영상 제작 사업 (공연예술본부_공연지원부) - 공연연습장 조성 및 운영 총괄 - 무용, 전통예술, 연극 분야, 창작뮤지컬육성사업 - 공연예술행사지원, 원로사업 - 음악분야 기획 및 지원사업 (공연예술본부_순회사업부) - 복권기금사업(사랑티켓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생활문화 공동체만들기사업) - 신나는 예술여행 운영 - 현장평가 및 모니터링 운영관리 (문화나눔본부_문화누리부)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나눔티켓 사업 운영 - 통합문화이용권 시스템 관리 및 기획 - 통합문화이용권 시스템 관리 및 기획 (문화나눔본부_문화예술후원센터) - 지역문화지원사업 - 조건부 등 기부금지원사업 - 예술나무 운동, 크라우드펀딩, 예술요원 - 기업후원, 개인거액후원 - 문화예술 후원 매개 단체, 후원 우수기관 인증 사업,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운영</td></tr> </table>	조직구성	사회문화예술교육 본부의 역할	-문학시각 예술본부	(문학시각본부_문학지원부) - 문예기금 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 문학주간행사 - 예술창작지원예결산, 문학지원사업운영 - 문학지원 문학 활성화 프로그램 - 사이버문학광장, 청소년 문학영재 운영	-공연예술 본부	(문학시각본부_시각예술부) - 아르코 미술관 및 예술가의 집 등 시설관리 - 소작작품 운영 관리 - 미술관 및 인사미술공간 홈페이지 관리 - 미술관 시각지원 사업 - 공공미술사업 운영 - 전시기획, 아카이브연계사업 - 뮤지엄, 예술나무카페관리, 예술가의 집 기획프로그램운영 - 시각예술 전시, 공간, 비평지원 - 작가보수제도 연구, 필룩스 운영,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문화나눔 본부	(문학시각본부_예술자료원) - 예술강좌, 미술작가500인, 지원사업연계 운영 - 구술채록사업 및 시각예술 아카이브컬렉션 기획수집	-예술확산 본부	- 공연 영상 제작 사업 (공연예술본부_공연지원부) - 공연연습장 조성 및 운영 총괄 - 무용, 전통예술, 연극 분야, 창작뮤지컬육성사업 - 공연예술행사지원, 원로사업 - 음악분야 기획 및 지원사업 (공연예술본부_순회사업부) - 복권기금사업(사랑티켓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생활문화 공동체만들기사업) - 신나는 예술여행 운영 - 현장평가 및 모니터링 운영관리 (문화나눔본부_문화누리부)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나눔티켓 사업 운영 - 통합문화이용권 시스템 관리 및 기획 - 통합문화이용권 시스템 관리 및 기획 (문화나눔본부_문화예술후원센터) - 지역문화지원사업 - 조건부 등 기부금지원사업 - 예술나무 운동, 크라우드펀딩, 예술요원 - 기업후원, 개인거액후원 - 문화예술 후원 매개 단체, 후원 우수기관 인증 사업,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운영
조직구성	사회문화예술교육 본부의 역할										
-문학시각 예술본부	(문학시각본부_문학지원부) - 문예기금 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 문학주간행사 - 예술창작지원예결산, 문학지원사업운영 - 문학지원 문학 활성화 프로그램 - 사이버문학광장, 청소년 문학영재 운영										
-공연예술 본부	(문학시각본부_시각예술부) - 아르코 미술관 및 예술가의 집 등 시설관리 - 소작작품 운영 관리 - 미술관 및 인사미술공간 홈페이지 관리 - 미술관 시각지원 사업 - 공공미술사업 운영 - 전시기획, 아카이브연계사업 - 뮤지엄, 예술나무카페관리, 예술가의 집 기획프로그램운영 - 시각예술 전시, 공간, 비평지원 - 작가보수제도 연구, 필룩스 운영,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문화나눔 본부	(문학시각본부_예술자료원) - 예술강좌, 미술작가500인, 지원사업연계 운영 - 구술채록사업 및 시각예술 아카이브컬렉션 기획수집										
-예술확산 본부	- 공연 영상 제작 사업 (공연예술본부_공연지원부) - 공연연습장 조성 및 운영 총괄 - 무용, 전통예술, 연극 분야, 창작뮤지컬육성사업 - 공연예술행사지원, 원로사업 - 음악분야 기획 및 지원사업 (공연예술본부_순회사업부) - 복권기금사업(사랑티켓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생활문화 공동체만들기사업) - 신나는 예술여행 운영 - 현장평가 및 모니터링 운영관리 (문화나눔본부_문화누리부)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나눔티켓 사업 운영 - 통합문화이용권 시스템 관리 및 기획 - 통합문화이용권 시스템 관리 및 기획 (문화나눔본부_문화예술후원센터) - 지역문화지원사업 - 조건부 등 기부금지원사업 - 예술나무 운동, 크라우드펀딩, 예술요원 - 기업후원, 개인거액후원 - 문화예술 후원 매개 단체, 후원 우수기관 인증 사업,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운영										

	(예술확산본부_협력개발부) - 문화가 있는날, 평가 및 성과관리 - 문화여가친화기업 인증 캠페인 등 - 문화다양성 - 인문정신문화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 사업 (예술확산본부_창의예술인력센터) - 창의예술인력센터 소관 연구조사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 고용노동부 컨소시엄사업
--	--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arkoinfo/page4_2.jsp(2016.8.23 열람)

(4)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상호간의 협력증진 및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으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사업 실시 및 공연·전시, 아카데미·교육·연수, 연구·조사·컨설팅, 페스티벌(제주 해비치 페스티벌)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각지의 문화재단 및 문화예술회관, 문예회관, 시민회관, 평생 학습관, 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예술시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표 17]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내 사회문화예술교육본부의 역할

구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영문명칭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홈페이지	http://www.kocaca.or.kr/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문화예술회관 선도기관	
미션	문예회관 활성화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조직(2016년 8월 현재)	조직구성	사회문화예술교육 본부의 역할
	-문예지원부 -예술진흥부 -무대예술센터	(문예지원부) - 제주 해비치 아트페스티벌 운영 - 해피존 티켓나눔 사업 -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 - 국립,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및 문예회관 활성화 지원 - 문예회관 전시기획프로그램 지원 - 문예회관 레퍼토리 제작 개발 지원 사업 운영 (예술진흥부)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 KBstar(飛) 문화예술교실 사업 -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

	-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지원 - 문예회관 아카데미 운영 - 국가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사업 - 문예회관 공연장 안전관리 - 문예회관 건립 사전평가 - 문예회관 연수단원 (무대예술센터) - 무대예술센터 운영
--	--

자료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http://www.kocaca.or.kr/Pages/Introduction/Vision.aspx>(2016.8.23 열람)

(5)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고, 예술현장의 자생력 강화, 예술 산업의 인프라 구축,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예술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재단법인)이다. 또한 문화예술 관련 교육·컨설팅 및 예술정보, 조사·평가, 국제교류, 지식·정보, 시각예술 등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단 안에는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무국과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표 18] 예술경영지원센터 내 사회문화예술교육본부의 역할

구분	예술경영지원센터	
영문명칭	Korea Art Management Service	
홈페이지	http://www.gokams.or.kr	
비전	경쟁력 있는 예술단체!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예술! “예술경영과 국제교류의 동반자”	
미션	예술유통 활성화와 예술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	
조직(2016년 8월 현재)	조직구성	사회문화예술교육 본부의 역할
	-예술산업기반실 -해외전략사업실	(예술산업기반실_교육컨설팅팀) - 예술경영아카데미(LINK)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활성화 - 예술경영 컨설팅 운영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예술산업기반실_조사평가팀) - 공연예술실태조사 - 미술시장실태조사 -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사업 평가 - 공연예술행사 지원 사업 평가 - 정부시상지원 공연전통예술행사 평가 - 정부시상지원 예술경연대회 온라인 지원시스템(예술마루) 운영

	- 국고지원 시각예술분야 평가 (예술산업기반실_예술정보팀)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 예술정보 생산 및 활용 연구 (해외전략사업실_공연유통팀) - 서울아트마켓 - 국제 문화정책 컨퍼런스 (ICCPR) 기획 및 운영 (해외전략사업실_시장개발팀) - 공연예술 전략적 해외진출지원 사업 -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지원 - 공연예술 해외진출기반 마련(커넥션) (해외전략사업실_국제교류팀)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사업 - 국제문화교류 단체 역량 강화 사업 (해외전략사업실_시각기반팀) - 시각예술 글로벌 기획인력 육성 사업(프로젝트 비아) - 미술품 감정기반 구축 사업 -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 지원 사업 - 현대미술 국제교류 플랫폼 더아트로 - 신미술한류창출사업 (해외전략사업실_시각진흥팀) -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사업 - 우리동네 아트페어 사업 - 신미술한류창출사업
--	--

자료 : 예술경영지원센터, http://www.gokams.or.kr/06_intro/vision.aspx(2016.8.23 열람)

(6) 지방정부의 지역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지역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역 단위에서는 광역 문화재단(13개)이나 민간단체(3개)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의 소재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12.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8.3%), ‘충북’(8.3%), ‘전북’(8.0%) 순의 결과를 보인다.

지역 편차를 줄이고자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움직이는 예술 정거장’과 같은 기획사업도 인천, 경기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문화예술교육대상 확대시범사업은 총 12개 사업 중 8개가 서울(7)과 경기(1)로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이중 1/3에 해당

하는 4개의 사업이 1곳의 지역구(서울 마포구)에서 집중되어 생활권 단위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광역문화재단은 거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충남문화재단은 2013년 7월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충남문화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2013년 12월 충남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충남문화재단의 정규직 정원(2014년 기준)은 총 21명이나 현원은 7명이며, 무기직 및 계약직은 총 7명이고 현원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기관 당 평균 79.3명(2014년 기준)보다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표 19] 광역시·도 문화재단 인력 현황

구분	정규직		무기 및 계약직		현원 총계	현원의 고용 형태				비고 (①에 포함된 혼합고용)
	정원	현원	정수	현원		①정 규직	②계 약직	③무 기계 약직	④기 타	
서울문화재단	98	71	47	141	212	70	100	42		
부산문화재단	25	24	15	30	54	23	23	8		①+④=23
대구문화재단	17	13	8	21	34	11	18	5		①+④=10
인천문화재단	40	34	45	46	80	33	24	23		
광주문화재단	58	58	26	23	81	57	12	12		
대전문화재단	41	40	11	11	51	38	13			
경기문화재단	191	168		186	354	157	197			
강원문화재단	64	34		10	44	34	10			①+②=33
충북문화재단	12	12	3	13	25	10	10	3	2	①+④=10
충남문화재단	21	7	7	4	11	7	4			①+④=6
전남문화예 술재단	21	20		10	30	19	5	5	1	①+②=9
경남문화예 술진흥원	23	18	2	13	31	18	13			
제주문화예 술재단	18	14	11	10	24	12	9	2	1	
소계	629	513	175	518	1,031	489 47.4%	438 42.5%	100 9.7%	2 0.4%	1,029명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2014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 p. 107.

기준 : 2014. 5. 1.

최근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에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기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은 49개로 파악되었다. 충청남도에서는 3개의 기초문화재단(아산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 천안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외 타기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진행한 경우는 강릉·원주·오산·구로·목포·천안 등 6곳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7월부터 충남문화재단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었다.

〔표 20〕 기초문화재단 현황

권역	재단
서울(7)	강남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영등포문화재단, 종로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
경기(12)	고양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수원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오산문화재단, 용인문화재단, 의정부예술의전당, 하남문화재단, 화성시문화재단
인천(1)	부평구문화재단
대구(4)	달성문화재단,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수성문화재단, 대구동구문화재단
경상(9)	경주문화재단, 고래문화재단(울산 남구), 김해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 청송문화관광재단,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사천문화재단, 한국정신문화재단
강원(6)	강릉문화재단, 원주문화재단, 인제군문화재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춘천시문화재단, 평창문화예술재단
충남(3)	아산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 천안문화재단
충북(1)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전라(6)	목포문화재단, 영암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 부안문화재단, 담양문화재단
총합	49개 재단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2014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 p. 118.

기준 : 2014. 11.

(7) 지방정부의 문화기반시설⁸⁾

문화기반시설이란 2015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등록되어 있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 집, 문예회관, 문화원을 의미한다. 김세준 외(2015)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서관과 박물관이 전체조사의 65% 정도에 해당되며, 운영 주체의 경우 중앙·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68.1%로 조사되었고, 기관 성격은 국·공립이 70.4%이며, 기관 소재지의 응답률이 높은 지역은 경기, 강원, 경북, 서울 순으로 나타났다.

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2014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 128~154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70%이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정착기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향후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예산 지원은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체 예산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아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산 혹은 재정 확보의 문제를 가장 큰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문화기반시설의 중점 교육대상에 대한 인식과 실제 프로그램 운영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기반시설의 중점 교육 대상을 보면 ‘어린이(57.3%)’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인(46.7%)’, ‘청소년(29.4%)’, ‘노인(17.0%)’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실제 문화기반시설의 프로그램 현황 비중을 보면 ‘성인(36.6%)’, ‘어린이(24.0%)’, ‘복합(18.6%)’으로 조사되었다. 프로그램의 장르도 ‘미술’, ‘음악’, ‘공예’ 등 일부 장르에 편중되어 있으며, 각 문화기반시설마다 장르 및 교수학습 방식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각 문화기반시설의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새롭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담당 인력 운영이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기관의 전문·전담 인력 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문화기반 각 시설의 전담인력 및 조직구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기획’, ‘운영 전문 인력 지원’,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프로그램의 기획 및 다양화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프로그램의 기획 및 역량을 강화 시켜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강사 지원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세준 외, 2015).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실천적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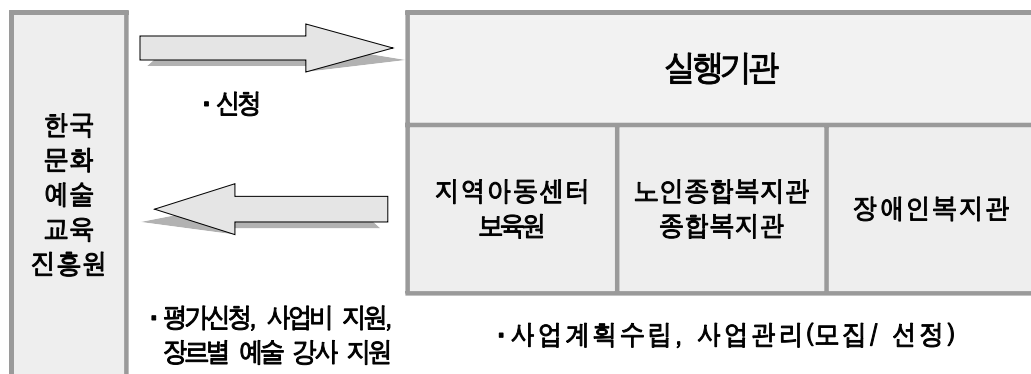
(1) 문화예술교육단체와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자체 활동과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을 통해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있다. 문화기반시설 및 일반 사회 시설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부 전문 문화예술 기획자나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개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모 사업이나 재단 혹은 지자체 공모 사업·기업의 공모 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2) 예술 강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예술 강사의 자격을 이수한 강사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원하는 다양한 사회시설이나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문화예술교육을 원하는 소외계층 시설 등에서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신청을 할 경우,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시스템에 의해 예술 강사가 파견되는데, 현장에서 다양한 계층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p. 51.

〔그림 9〕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추진체계

(3)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공신력을 강화하여 창의적인 교육인력 양성과 예술분야 전공자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로써,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예술교육사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012년 2월 개정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기존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명칭을 ‘문화예술교육사’로 개정하여, 2014년 12월 현재 5,586명에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교부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에 의하면, 국·공립 공연장·박물관·미술관, 공립 공공도서관, 문화의 집 등의 국·공립 교육시설은 문화예술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한다.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 경과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후, 첫 해에 약 55억 원, 110여 건의 지원에서 2012년에는 150억 원, 1,200여 건으로 각각 3배와 10배로 성장하였다. 2012년 기준으로 수혜자수는 약 4만여 명으로, 전국 1,400여 개 시설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2013년 기준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중에서 복지기관 지원 사업은 사업 대비 예산 비중은 가장 높으며 전체 43.6%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기관 지원과 범부처 협력 등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의 비중이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내용으로 볼 때, 현재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복지적 차원의 지원과 사회 통합에 비중을 두고 있다.

〔표 2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분야 지원 사업 현황

순번	사업명	세부 사업명	편성비율(%)
1	복지기관 지원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 아동 시범(지역아동센터)	43.6
2	범 부처 협력	◦ 군·교정시설·소년원·치료감호소 ◦ 산업단지·방과후·학교밖 청소년	23.9
3	기획 사업	◦ 창의예술캠프 ◦ 농산어촌 이동형 교육	9.4
4	시민 사업	◦ 사회적기업·시민문화공간	7.8
5	예술강사 활동 지원	◦ 연수·연구	6.4
6	홍보·국제·사업관리	◦ 정책 공감 ◦ 국제 기획 및 네트워크 등	8.9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p. 57.

2005년 경제적·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계층별 지원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는 주로 경제적·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계층별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새터민, 군인, 교정시설, 소년원학교를 대상으로 예술 강사를 파견하거나, 문화예술단체 공모를 통해 지원하였다. 연구 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40여건이 진행되었는데, 대부분 계층별·장르별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주요 과제로 진행하였다.

2008년부터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편성되었다. 2007년까지 복권기금으로 진행되었던 사회문화예술교육이 국고로 전환되었고, 아동·노인·장애인 분야는 복지시설에 예술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군인·교정시설·소년원학교 등 기타 소외계층 대상은 프로그램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국고와 지방지를 매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독립하여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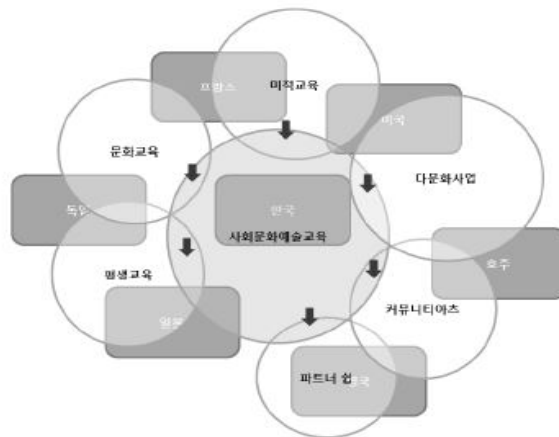
2009년부터는 정책 대상의 확대 및 사업 모델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박물관·미술관·문화의집·문화원 등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본격화되었다. 창의예술캠프·상상학교·청춘연극제 등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국민들과 나누기 위한 정책 공감 행사로 추진되었다.

2011부터는 시민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특정한 대상이나 시설 중심의 공급형 지원 방식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사회적기업과 생활권 단위 공간 운영 주체를 대상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외에, 전략 개발 및 공간 개선 등 운영 구조적 측면에 대해서도 지원을 병행하였다. 지역 특성화 사업(기존 지자체 협력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2011년부터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는 체계로 변경하였고, 2013년부터는 각 광역센터에서 지역별로 특화된 기획 및 사업관리를 추진하였다.

4) 해외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여건⁹⁾

문화예술교육정책은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동일한 예술교육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도 전혀 다른 내용이거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은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경향을 나타내기에 맥락적 이해가 필요하며, 각 국가의 문화예술교육은 시민사회의 역량·국가적 역할·문화적 토대 등에 따라 다양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21세기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창의적 사회에 기초한 국민 교육과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국가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1999년 영국의 창의 영국(Creative Britain), 2000년 미국의 창의 미국(Creative America) 정책, 이미 1980년부터 유사 정책을 시행하고 있던 프랑스 역시 2000년 정책을 재설계하였고, 2013년 창의 호주(Creative Australia)가 발표되면서 동일한 문제의식의 확산이 이루어졌다. 유럽과 북미대륙 국가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학교와 사회라는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문화시설이나 문화자원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면서, 지역사회의 예술가·지역 전문 역량이 학교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활동이다.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p. 29

〔그림 10〕 각국 문화적 맥락이 접목된 사회문화예술교육

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특히 일본의 문화정책은 ‘작은 정부, 큰 민간’의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정부는 기본적으로 ‘문화에 관련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문화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별도의 정책과 특화된 담당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정책은 지역의 활동을 통해, ‘개인-가정-학교-지역-국가’가 상호 연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생활 전반에 걸쳐 일상적인 문화예술교육과 학습 및 문화 향수가 일상화되어 있다.

일본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서는 예술문화의 창조와 향유가 인간의 타고난 권리 ‘문화권’임을 명시하여 포괄적인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 기초한 문화예술교육 시책과 계획에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 외에 소외계층 등 특정 계층에 맞춘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관에서 민간으로’라는 흐름 하에 민간과 행정의 역할 분담 및 지방분권이 추진되면서 비영리 활동과 자원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다.¹⁰⁾ NPO활동이 활성화된 배경에는 1995년에 발생한 한신 아와지 대지진과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제정이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비영리 활동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일본은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예술교육은 치유와 재생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1년 동북대지진으로 인해 NPO활동이 이전보다 활성화되고 있으며, 치유 중심의 문화예술교육과 활동이 증가하여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다.

일본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한 사람의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필요로 하는 다양한 힘을 기르고, 그 성과를 사회에서 펼쳐나가는 것이 가능한 생애학습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식을 기반으로 한 자립, 협동, 창조를 키워드로 생애학습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주민의 참여와 주민자치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특히 지

10) 그 중 비영리단체인 아트 NPO는 2003년 전국에 535단체에서 2007년 2,006단체, 현재는 4,000단체를 넘어서 일본 전국 각지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 사회교육행정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치회(초나िका이), 성인여성의 교양, 취미, 사회활동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부인회, 청년단 등의 지역조직 등 전통적 지역공동체에 크게 의존해오며 전개되어, 최근에는 기존 전통적인 지역 공동체의 기능 저하로 인해 지역을 한정하지 않는 NPO나 봉사 단체 등이 등장하고 있다(권순석 외, 2015).

역에 산재해 있는 공민관(현재, '지역센터'로 명칭 변경)을 중심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일본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지자체에 따른 지역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역마다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 연령과 계층은 지역적 특성 위에 재배치된다.

2000년을 전후하여 일본의 문화청이 문화예술진흥에 접근하였던 방식을 기존의 시설중심 사고에서 활동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2014년 3월에 '문화예술입국 중기 플랜'을 발표하여 문화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대상은 전 계층을 포함하지만, 주요대상은 아동, 청소년(생애학습주기별 지원)이며, 제 3차 기본방침에서 '문화예술입국 실현의 목표로 발표한 6개의 중점전략에는 어린이와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진흥책이 실시되는 등, 최근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어린이 중심, 치유와 연대, 지역사회의 과제에 초점을 맞춰가는 프로그램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문화 복지 대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특정 사회적 취약계층보다는 '모두'를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예술향유 기회(접근성)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활동에 지원하고 있다. 지원방법으로는 문화예술시설 요금할인 등 예산직접지원 이외에 자막 및 음성안내 서비스, 탁아서비스(Barrier-Free Theater), 학습 지도자 연수,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동지원(고령자 사회참가 촉진사업 및 고령자 클럽),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환경조성(우시쿠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장애인 문화 활동 리더양성 강좌(나가노시 Art Support) 등 다양한 간접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정무성 외, 2015).

5. 국내외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사례 조사

국내외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사례는, 충청남도의 지역여건과 비슷한 일본 시가현의 문화 예술교육 현황 및 문화기반시설(미술관) 사례와 아이치 섬머 세미나, 국내 기초문화재단(안산 문화재단),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들을 검토 하여, 충청남도 지역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일본의 시가현

본 연구에서 해외 사회문화예술교육 사례로 살펴보고 하는 지역은 일본의 시가현이다. 선정 이유는 충청남도의 지리적 여건과 일본에서의 시가현의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또한 충청남도과 결연을 맺은 자매도시¹¹⁾는 해외의 타 도시에 비해 상호간 사회적·문화적·지리적·정치적·경제적(산업) 여건이 비슷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충청남도 기초자치체의 자매 도시 중 일본의 시가현(공주시 1, 부여군 2)이 자매도시를 많이 맺은 곳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시가현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과 미술관 문화예술교육 사례(Art Brut)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22〕 충청남도 기초자치체와 일본의 자매결연 도시

도시	자매결연 도시	날짜
공주시	일본 야마구찌현 야마구찌(山口)市	93. 2.23
	일본 시가현 모리야마(水山) 守山市	91. 8. 5
	일본 구마모토현 나고미(和水)町	79. 9.15
보령시	일본 카나가와현 후지사와(藤澤)市	02.11.15
서산시	일본 나라현 덴리(天理)市	01.11.17
부여군	일본 시가현 히가시오미(東近江)市	06. 9.30 부여군(장암면)
	일본 미야자키현 미사토(美郷)町	91. 9. 2 南郷村
	일본 시가현 히노(日野)町	90. 5.16
	일본 후쿠오카현 다자이후(太宰府)市	78. 4.21 부여군(부여읍)
	일본 나라현 아스카(明日香)村	72.11.28

11) 자매도시란 외국의 도시 상호간에 문화교류로 제휴하고, 그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친선우호관계를 맺는 도시를 칭하는데, 결연은 지리적 유사관계에서나 경제적 관계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표 23] 시가현의 개요 및 특징

구분	내용
개요	- 위치: 시가현은 일본 킨키지방 동북부에 위치한 내륙현 - 행정구역: 19시정 (13市6町) - 면적: 4,017.38km² - 총인구: 1,414,888人 (2016年6月1日 현재) - 인구밀도: 352人/km²
특징	- 시가는 일본열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여 역사상 중요한 무대가 되었고 일본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 - 시가는 현의 6/1을 점하는 비와호를 중심으로, 광대한 전원과 초록 빛 만연한 산들이 산재해 있는 온화한 환경 안에서 자연과 공생하는 문화가 내재되어 있음 - 현재는 교토와 나라 등 대도시권에 근접하는 지리적 조건과 맞물려 제2차 산업의 구성비가 높은 내륙공업 현이라는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1) 시가현 기본목표

시가현은 다양한 주체의 협동을 토대로 자연과 함께 일상생활의 매력 있는 문화를 육성하고, 누구나 자긍심과 애착을 가지는 시가현을 만들기 위해, ‘문화를 제고하여 지역이 활기찬 모습’을 기본목표로 설정하였다. 시가현은 목표 실현을 위한 3가지 문화시책 및 9개의 중점시책을 설정하였다.

[표 24] 시가현의 문화시책 및 중점시책

문화시책	중점시책
문화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문화적 자산의 활용·발신	- 문화에 의한 시가현 브랜드력 향상과 국내외로의 효과적인 발신 - 지역에서 계승되어진 문화적 자산의 발굴·보존·활용
미래의 문화 인재 육성	- 아이·젊은이가 진정한 문화에 접하는 기회 충실 - 젊은 예술가 등의 육성·지원 - 문화 활동을 지지하는 인재(아트 네이처 등) 육성·지원
현민의 주체적인 문화 활동 촉진	- 새로운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 추진 - 미(아름다움)의 시가 만들기 추진 - 자립적인 문화활동 촉진 - 문화 활동의 환경 정비

시가현은 2009년 7월에 문화진흥조례를 시행하였는데, 그 목적이 ‘문화진흥시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의 힘으로 풍부하고 활력 있는 시가현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주된

대상 분야는 예술(문학, 음악, 미술, 사진, 연극, 무용, 미디어예술 등)과 지역에서 계승되어 온 문화적 자산(유형·무형 문화재, 생활문화 등), 사람들의 생활과 함께 형성되어진 매력 있는 풍경(교육, 복지, 산업 등의 분야와의 관련시책도 포함)이며, 문화 활동 범위는 창작 뿐 아니라 감상, 보존·계승 지원 등도 포함된다.

시가현은 일본열도의 중앙에 위치하는 지리적 여건으로 역사상 중요한 무대(고대부터 교통의 요충지로서 사람, 물건, 정보가 교류하던 장소)가 되었고, 일본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시가현에는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인 ‘비와호’를 중심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가 내재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현립 도서관, 근대미술관, 문화산업교류회관, 도예의 숲, 비와호 박물관, 비와호 홀 등 특색 있는 문화시설 기반정비를 추진하여 현민의 문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2014년경 시가현의 인구가 48년 만에 감소하면서,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여 문화의 힘으로 풍요로운 시가현을 만들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후 2015년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제4차 기본방침)’에서 일본의 근간산업을 예술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인 ‘문화예술입국’을 선언하였고, 2020년의 동경 올림픽 개최 확정으로, 2015년 7월에 발표한 ‘문화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문화청의 기본구상’에 따라 2020년 동경 올림픽을 스포츠의 축전과 동시에 문화의 축전으로 역사상 최대의 문화프로그램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의 매력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전개하여 국내외 사람들이 일본문화에 흥미를 유발하게 만들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일본 사회정세의 변화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동향에 맞춰 시가현에서도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시가현 문화의 매력을 국내외에 발신하기 위해 ‘시가현 문화진흥기본방침(제2차)’을 발표하였다.

(2) 각 분야의 현황과 과제

시가현에서는 약 1,400단체가 넘는 크고 작은 단체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2014년도에 23,300명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단체나 기초지자체인 시·정 등이 주최하는 사업에 약 42만명(2012년 기준)에 달하는 참가자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하고 있는 등 현민의 예

술 활동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화기반시설 수는 도서관 현내 48관(기타, 재단립 1관), 공립 문화시설 41시설(인구 1명당 시설수는 전국 7위) 등 시가현은 일본 내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현립·시정립 도서관 연계로 현민 1인당 연간 대여권수 및 소장수는 전국 1위에 달하는 등 문화기반시설에서의 문화 활동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민간이나 시정에서는 공민관, 커뮤니티센터 등을 중심으로 문화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며, 공공문화시설(현립도서관, 근대미술관, 문화산업교류회관, 도예의 숲, 安土성 고고박물관, 비와호 박물관, 비와호 홀 등)과 민간의 미술관, 갤러리 등에서 특색 있는 문화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문화시설 이외의 각종 민간단체, 시정 등의 주체적인 활동으로 공원, 병원, 대학, 상업시설, 민가, 신사 등 다양한 장소에서 현민의 문화 활동 발표 및 감상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 시설에서 학교, 상업시설로 방문하여 무대예술공연 및 작품전시 등 아웃리치 활동(예술 보급 활동)을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다.

시가현에는 지역에 계승되어진 문화적 자산도 풍부하다. 시가현 내 중요문화재는 818건으로 전국 4위이며, 비와호를 비롯한 자연과 공생해 온 삶 안에서 지역에 중요하게 계승되어온 지역행사, 축제, 향토요리 등 전통문화도 산재해 있다.

시가현에는 비와호를 비롯하여 전원이나 산들이 둘러싸인 온화한 자연 및 고대부터 교통의 요충지로서 사람, 물건, 정보가 교류하던 역사적 중요 무대였던 지리적 조건 등을 배경으로 사람들의 생활과 함께 시가만의 풍경이 형성되어 왔다.

시가에서는 이러한 현내의 문화정보를 온·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정보발신 사이트 '시가문화 추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가현 학습정보제공시스템인 '니오네트' 구축, 문화정보 홈페이지 및 정보지 발행, 현내 문화정보지 '레이카루'발행 등이 있다. 한편, 민간에서도 인터넷이나 정보지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정보를 발신하고 있다.

한편, 시가현 내의 각종 문화기반시설에서 비와호 홀의 우수 무대예술공연 및 문화산업교류회관의 전통예능공연, 근대미술관의 기획전시, 도예의 숲의 젊은 신진도예가에게 창작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고, 청소년 대상 오페라

초대 및 보급 활동 등 청소년의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시가현에는 다양한 감성에 의한 시가의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고 있다. 시가의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국내외 교류가 이루어지고 전통적인 시가 고유의 문화와 함께 현대미술을 활용한 지역에서의 활동과 ‘Art Brut’의 확대 등 다양한 감성에 의한 시가의 새로운 문화 창조 및 시가의 개성 있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시가현에는 NPO에 의한 시가 차세대 문화예술센터가 설립되어 학교와 문화시설, 예술가 등을 연결하는 연계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문화예술의 진정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비와호 홀 음악 앙상블에 의한 ‘학교순회공연’과 ‘교류하는 음악교실’, 문화산업교류회관의 ‘아트의 시간’ 등 아웃리치 활동 이외에 고등학교 종합문화제 개최 등 학교와 학교 밖이 분리되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표 25] 시가현의 문화예술교육 운영 현황

구분	내용
다양한 문화 활동	- 24개 시정문화회관/지역별 문화단체 - 각 협회를 구성하는 단위단체 총수: 1,000단체, 회원수 18,000명 - 주된 현내 문화단체: 27단체 - 구성 단체 총수 약 400단체, 회원수 5,300명
활발한 예술 활동	시가현 예술문화제의 일환으로 문화단체가 중심이 되어 미술전람회, 사진전람회, 대학제가 장년 개최되고 있으며, 민간단체나 시정 등이 주최하는 사업의 참가자수가 약 42만 명(2012년도)에 달하는 등 현민의 예술 활동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창작활동의 장 제공	비와호 홀의 우수 무대예술공연 및 문화산업교류회관의 전통예능공연, 근대미술관의 기획전시, 도예의 숲의 젊은 신진도예가에게 창작활동의 장 제공 및 특색 있는 사업이 전개됨
예술가 육성 및 예술창조활동 지원	예술계 전문과정이 있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기업, NPO단체 등에 의해, 예술가 육성 및 예술창조활동 지원
문화시설 활용	시정립 도서관: 현내 48관(기타, 재단립 1관) - 현립·시정립 도서관 연계로 현민 1인당 연간 대여권수 및 소장수는 전국 1위 공립문화시설(홀): 41시설(인구 1명당 시설수는 전국 7위) 기타, 현립도서관, 근대미술관, 문화산업교류회관, 도예의 숲, 安土성 고고박물관, 비와호 박물관, 비와호 홀 등 특색 있는 문화시설정비 및 문화사업 전개
민간이나 시정에서의 문화시설 정비	공민관, 커뮤니티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활동 민간의 미술관, 갤러리 등에서도 특색 있는 사업 전개
문화시설 이외의 활동장소	- 각종 민간단체, 시정 등의 주체적인 활동으로 공원, 병원, 대학, 상업시설, 민가, 신사 등 다양한 장소에서 현민의 문화활동 발표 및 감상기회 제공 - 아웃리치활동(예술보급 활동) 전개: 문화시설에서 학교, 상업시설로 방문하여 무대예술 공연 및 작품전시 등 아웃리치 활동 빈번하게 실시
지역에 계승되어진	- 시가현 내 중요문화재: 818건(전국 4위) - 비와호를 비롯한 자연과 공생해 온 삶 안에서 지역에 중요하게 계승되어온 지역행

문화적 자산	사, 축제, 향토요리 등 전통문화 산재 - 사회공헌 및 인간관계를 중시해 온 우오미(시가현의 옛 지명)상인의 생활 신조 등, 현대인이 배워야할 교훈 및 시사점 등 독자의 문화가 있음
매력 있는 풍경	시가에서는 비와호를 비롯하여 전원이나 산들이 둘러싸인 온화한 자연 및 고대부터 교통의 요충지로서 사람, 물건, 정보가 교류하던 역사적 중요 무대였던 지리적 조건 등을 배경으로 사람들의 생활과 함께 시가만의 풍경이 형성되어 왔음
풍부한 정보발신	- 문화정보발신 사이트 운영: '시가문화 추천', 시가현 학습정보제공시스템 - 문화정보 홈페이지 및 정보지 발행, 현내 문화정보지 '레이카루' 발행 - 민간에서도 인터넷이나 정보지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정보 발신하고 있음
시가의 새로운 문화 창조	- 시가의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국내외 교류가 이루어지고 전통적인 시가 고유의 문화와 함께 현대미술을 활용한 지역에서의 활동, 'Art Brut'의 확대 등 다양한 감성에 의한 시가의 새로운 문화 창조 및 시가의 개성 있는 문화 형성
고령자, 장애자 우대	-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관람료 요금할인 - 고령자 및 장애자를 지원하는 시설에서는 도예, 음악, 사진, 춤, 미술 등을 통해 삶의 활력 증진, 자기 표현할 수 기회 제공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 청소년 대상 오페라 초대 및 보급 활동 - 문화 홀에서의 무대예술공연 청소년 요금 설정 - 근대 미술관에서 초, 중학생 대상 워크숍(체험미술관) 및 창작체험 프로그램(초치 코 프로그램) 실시
학교교육에 따른 문화 활동	- 시가현에서는 1983년부터 현내 초등학교 5학년생에게 학습선 '우미노코'에서 숙 박하고 시가의 물 환경과 물 문화를 배우는 활동 전개해 왔음 - 아이들이 학교교육에서 시가의 산림이나 논 등에서 체험학습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해 왔음 - NPO에 의한 시가문화예술학습지원센터(현, 시가 차세대 문화예술센터)가 설립되어 학교와 문화시설, 예술가 등을 연결하는 연계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문화예술의 진정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비와호 홀 음악 앙상블에 의한 '학교순회공연', '교류하는 음악교실', 문화산업교류회관의 '아트의 시간' 등 아웃리치 활동 이외, 고등학교 종합문화제 개최 등
인재 양성	- 젊은 인재를 육성하는 장 확대 등으로 지원 충실 - 각종 문화시설에 따른 봉사활동자, 문화 봉사활동자 육성, 학교와 문화시설을 있는 코디네이터 육성 등

(3) 일본의 문화기반시설 사회문화예술교육 사례 : Art Brut 미술관¹²⁾

‘Art Brut’는 「삶의 예술」이란 프랑스어로, 정규 예술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유행에 간섭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만들어 낸 기존의 예술 모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림이나 조형을 뜻한다. ‘아웃사이더 아트’라는 영어 표기로 세계 각지에 퍼져 나갔으며,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의 예술이라는 뉘앙스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정신 치료의 일환으로서 그런 그림이 향후 아트 브류트 작품으로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12) 일본 재단 사업 내용 인용함(http://www.nippon-foundation.or.jp/what/projects/art_brut_support/ 2016.8.31 열람)

2010년 2월~2011년 1월에 파리에서 12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아트 브류트 자포네전에서 일본의 장애인 등이 창작한 작품 약 800점이 소개되어 높은 평가를 얻었고, 아트 브류트 작품이 만들어낸 풍부한 창조와 다양한 가치관이 현대인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바꾸고 상호의 개성과 인격을 인정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일본재단에서 아트 브류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작품의 적절한 보존과 관리, 전람회 등을 통한 국내·해외로의 일본 아트 브류트 작품 보급, 아트 브류트 미술관 정비와 기획·운영지원, 교육을 하고 있다.

아트 브류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안에 남아 있는 옛 민가나 창고 등을 개수하여 작품의 매력을 발산하는 아트 브류트 미술관을 전국에 10개소 정도 개설했을 예정이며, 미술관의 정비는 장애인이 활동하고 지역민이 휴식하며, 지역 활력을 창출하는 예술문화의 거점으로서 각지의 복지단체, 미술 및 법률, 건축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요건을 설정하고, 검토를 추진해왔다. 복지, 미술, 건축이라는 영역과 장애의 유무를 초월하여 재능이 넘치는 창조와 다양한 가치관이 만나는 경계 없는 아트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보드레스·아트뮤지엄NO-MA 시가현



靱の津ミュージ엄 히로시마현



藁工ミュージ엄 코치현



みずのき美術館(京都府龜岡市) 교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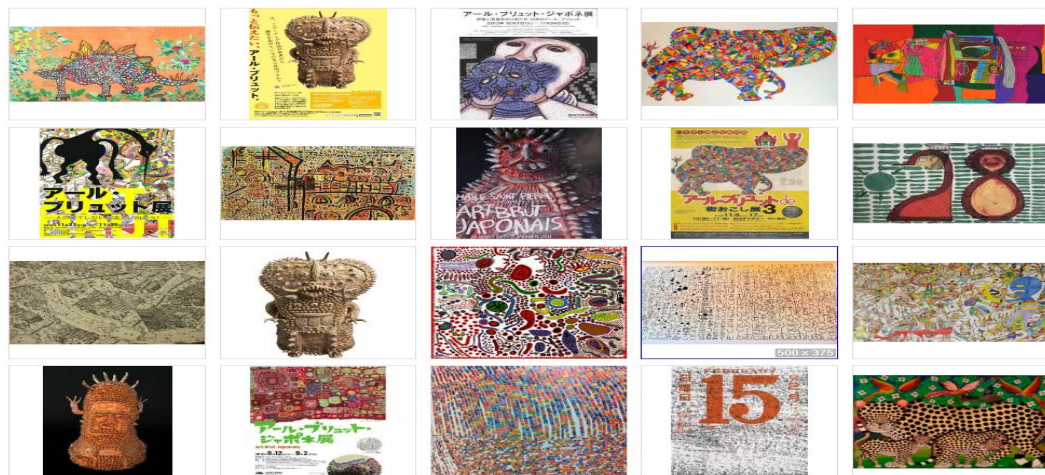
자료 : 시가현(<http://www.no-ma.jp>), 히로시마현(<http://abtm.jp/index.html>), 코치현(<http://warakoh.com>), 교토부(<http://www.mizunoki-museum.org>)(2016.8.31 열람)

〔그림 11〕 일본의 아트 브류트 미술관 현황

아트 브류트 미술관은 현재, 일본 내에 4개가 오픈되었으며,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지역이 시가현의 ‘ボーダレス・アートミュージアムNO-MA’ 이다. 미술관은 시가현의 노인 homes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사업단이 미술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시도이다.

활동의 핵심은 장애인의 표현활동에 두고 있지만, 제작자의 장애 유무가 아닌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표현력을 발신하려는 의욕이 미술관 이름(경계 없는 아트 뮤지엄)에 잘 나타나 있다.

한편, 시가의 풍부한 아름다운 자원을 활용하여 현의 매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의 ‘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나 장을 제공하고, 지역이나 현장과 교류하면서 ‘미의 시가’를 국내외에 발신하는 거점으로서 신생미술관을 정비하여 2019년까지 오픈할 예정이다. 신생미술관에서는 근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근현대 미술과 전국에 자랑할 만한 신도와 불교의 아름다움,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Art Brut를 중심으로 전시할 예정이다.



자료 : <http://image.search.yahoo.co.jp/search?rkf=2&ei=UTF-8&gdr=1&p=%E3%82%A2%E3%83%BC%E3%83%AB+%E3%83%96%E3%83%AA%E3%83%A5%E3%83%83%E3%83%88>(2016.8.31 열람)

〔그림 12〕 아트 브류트 작품

아트 브류트 미술전은 장애가 있는 작가의 삶을 소개하고, 그들의 삶과 작품의 연계성을 일반인에게 설명하여, 관람객의 고정관념이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장애인들도 현대 사회의 구

성원으로써 부족하지 않은 인격체임을 교육(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창조)시키고 있다 (야마다, 2010).

스기타(2012)는 아웃사이드 아트 전람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장애인(자폐증과 지적장애가 있어 회화표현이 곤란한 30대 남성)에 대해 그의 라이프 스토리를 부모님의 이야기와 입소시설 직원의 수기에서 재구성하여, 작품제작 환경과 전시회 출품이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있었는지 고찰하였다. 그 결과, 평소 동료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문제행동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예술에 정통한 입소시설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전람회 출품을 위해 장애인의 참여를 끈기 있게 도와준 점이 자폐증이 나아지는데 기여했다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작품이 걸린 전시회장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기뻐하고, 본인의 작품에 대해 인터뷰하러 온 취재 기자에게 악수를 청하는 등의 행동변화를 보였다. 처음 취재에는 신분도 견디지 못 했던 그가 여러 번의 취재를 경험하면서 그 이상의 인터뷰를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예술 작품은 사람과 만나는 방법을 제공하는 귀중한 도구가 되고 있으며, 작품을 타인에게 공표한 새로운 경험은 참가자의 태도 변화에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상태를 이해해주고, 평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그의 행동을 관찰하여, 결과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표현을 해주는 예술 강사와의 만남이 그들의 태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일본의 아이치 섬머 세미나¹³⁾

아이치 섬머 세미나는 아이치현에서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지역시민과 학교가 연결된 시민 참가형 세미나이다. 올해로 28회째를 맞고 있는 나고야 섬머 세미나는 매년 7월 중순에 3일 동안 나고야시에서 열린다. 나고야시의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나고야 섬머 세미나는 여름방학기간에 3일간 2,000강좌 이상(2013년 기준) 개강되는 일본 최대의 교육 이벤트로, 「누구나 선생님, 누구나 학생, 어디라도 학교」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가르치고 싶은 것을

13) 아이치 섬머 세미나 홈페이지 (<http://www.samasemi.net>) 내용 및 아스크넷 창시자의 논문 (http://www.kozuki.or.jp/ronbun/itaward/itawa09_menjo/main.html), 아이치 섬머 세미나에 17년 정도부터 시민강사(자원봉사)로 참가하고 있는 동해대학 能津 和雄 교수의 의견을 토대로 인용·정리함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꿈의 학교」를 지향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26〕 일본 아이치 섬머 세미나 특징

구분	특징
아이치 섬머 세미나	어느 누구라도 선생님이 될 수 있음
	어느 누구라도 학생이 될 수 있음
	무료로 배울 수 있음(일부 재료비가 필요한 강좌도 있음)
	부모·교사·학생·NPO법인이 협동 운영
	압도적인 강좌수
	버라이어티 풍부한(다양한) 강좌
	교실 내에서만 아니라 필드워크도 실시하는 등 다채로움

세미나는 「가르치고 싶은 사람」과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 가르치는 체험을 통해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주체적인 배움으로 되돌려주는 장소이다. 학교에서 실시되지만 내용은 학교 교과가 아닌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교실에는 학생 본인이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 토론하거나, 다른 교실에서는 저명한 톱 아티스트가 그의 인생을 이야기한다. 또한 현재 유행하는 것을 배우는 강좌도 있고, 깊은 인생론을 이야기하는 강좌도 있다. 한편, 교실 밖으로 나와 쓰레기 처리장이나 학교에는 없는 전문적인 기계가 있는 장소에서는 체험수업이 이루어지거나,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직원에서 벤처기업 사장까지)이 그 직업에 대해 소개하는 강좌도 인기 강좌로 정착해있다.

모든 강좌는 봉사활동으로 운영되며, 장소도 사립 고등학교나 나고야 시립학교를 무상으로 빌려 쓰고 있다. 이 행사는 아이치현의 각 사립고등학교의 토요강좌 개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아이치현의 섬머 세미나를 벤치마킹하여 효고현의 「모두의 섬머 세미나」가 실시되고 있는 등 일본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현재, 7개현 8개 세미나 실시).

아이치 섬머 세미나가 개최된 계기는, 아이치현에서 사립 고등학교는 「공립 고등학교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이 가는 장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있다¹⁴⁾.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치현 사립고등학교의 교원들은 수업개혁을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는데, 그러한 사

14) 현재 일본에서는 사립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으며,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사립 고교에 들어간 경우 학습의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 고등학교는 공립 고등학교에 비해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도 큰 편이다.

회운동의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 아이치 섬머 세미나이다. 아이치 섬머 세미나는 불리한 조건에 있는 아이치현 사립고교의 교사와 학생의 학부모가 하나가 되어 보다 나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일으킨 교육과정이다.

현재 아이치 섬머 세미나의 활동에서 「아스크 넷」이라는 NPO법인(특정 비영리 활동법인)이 생겨났으며, 이 행사는 아이치현 교육위원회 및 아이치현 내의 모든 행정(시정촌)의 교육위원회로부터 후원을 얻고 있다.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둔 민간 기업 및 단체의 후원도 얻고 있다.



자료: 아이치 섬머 세미나 홈페이지(<http://www.samasemi.net>)

〔그림 13〕 아이치 섬머 세미나의 현장 모습

일본의 문화기반 시설 아트 브류트와 아이치 섬머 세미나에 대한 시사점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이 당시의 사회적 이슈나 문제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일반시민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에 의해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되어, 시민·민간단체·NPO단체·공공기관·지자체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방문객에게도 큰 관심과 호응을 얻어 그들의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 두 사례를 실행하는 것 자체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원의 당위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

3) 안산문화재단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안산문화재단에서 예술교육사업은 지역문화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2016년 지역문화부 예산 중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예산은 약 3억 9천만 원(386,410,000원)이며,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예산 사업 중 사업비(정책개발, 문화예술진흥, 공연, 단원 미술관, 축제 및 문화광장 운영 등) 중 교육 사업비는 약 6.4%에 해당한다.

지원기관을 살펴보면, 문화재단과 직접 연결된 기관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안산시의 타 부서(산업정책과, 자치행정과, 가족여성과 등)와 외부의 기관(안산도시개발)에서도 사업비를 유치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안산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예술교육 사업으로는 ‘예술아카데미’와 ‘꿈의 오케스트라 안산 <안녕?! 오케스트라>’를 꼽을 수 있다. 예술아카데미는 안산문화재단의 고유한 교육 사업으로 2004년 개관 이래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상·하반기로 운영되는 정규아카데미와 시즌특강, 예술제로 구성되며 유아부터 실버층까지 각 연령대별, 직군별을 교육대상으로 하여 연간 100여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 자체 기획으로 구성된다.

안산시가 다문화의 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64명의 단원을 다문화가정(25명,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 차상위계층(28명), 일반가정(11명) 아이들로 구성하여 2013년부터 꿈의 오케스트라 “안산”<안녕?!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시·도비 보조금 외에 재원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크라우드 펀딩 ‘예술나무’ 프로그램을 통해 일천만원의 모금 달성하여 오케스트라에 필요한 타악기를 구입하기도 하였고, 연주회를 통해 관계 맺은 연주자들이 각기를 기증하기도 하였다.

또한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안산시 문화수요 실태조사’의 연구결과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고, 2013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지원 사업 ‘예술친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jj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jj 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연기와 춤, 영상이라는 장르를 중심으로 ‘연기 쏘! 하는 아이들 창작 극단 <고등어>’와 ‘춤 쏘! 추는 아이들 연합 댄스팀 <Dance, Da!>’, ‘카메라 쏘! 만지는 아이들 영상팀 <Ready Action>’을 안산문화재단에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는 청소년극단 <고등어>만 운영하고 상반기에 마임극, 하반기에 뮤지컬을 제작하고 있다.

4년차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극단 <고등어>는 국내외 축제 및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좋은 수상 성적과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고등어>에서 활약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문화예술 활동을 멈추지 않고 <참치>라는 성인극단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지속적인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시가현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핵심 내용인 ‘생애학습지원’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고등어>와 <참치>같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아마추어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들의 활약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향후 우리나라의 문화예술분야의 발전과 저변 확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일상화·내실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표 27] 안산문화재단 jj프로젝트 개요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jj 프로젝트
행사주체	안산문화재단
대상	청소년
사업취지	교육하고 발표하는 뽀한 예술교육이 아닌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핀(fun)하게 놀아보자
사업목적	시민 문화예술 향유와 생활문화 진작
목표 (〈고등어〉)	1. 창작극 공연 2. 연 2회 이상의 공연 제작 3. 다양한 공연 예술 축제 참가
특성	청소년들이 직접 공연 내용 기획 공연에 참가한 학생의 지인을 초청하여 발표공연 수료증서 발급

4)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2016년 전국 42개 지역에서 총 47회의 행사를 개최한 민간기업 주도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사업초기에는 문화소외지역의 중고등학생 청소년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 콘텐츠(예: 세계 악기여행, 비보이, 발레, 아카펠라, 클래식 합주, 브라스 밴드, 타악양상블, 현악사중주, 퓨전국악 등)를 관람하는 형태로 추진

하였다.¹⁵⁾ 향후 뮤지컬 교육으로 방향을 정립하게 된 배경은 전적으로 참가자의 수요와 특성(참여 학생들의 관심도와 선호 장르, 연습에의 몰입도와 집중도, 중도이탈 가능성)을 파악하여 반영한 것이다.

그 결과, ‘친구와 문화예술과 놀자’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감식안 획득과 지역적 및 계층적 소외감 감소 등의 초기의 성과 이외에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직접 무대 위 주인공으로 경험하여 자존감 향상과 삶의 적극적인 자세 고취, 긍정적 이성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28)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요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친구와 문화예술과 놀자’
행사주체	주최: 동아일보사를 일방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단, 지방교육지원청(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 각 지역의 문예회관
대상	전국 중고등학생 청소년, 사회적 약자(다문화가정, 결손가정, 빈민층, 조손가정, 복지시설 소속자 등)에게 우선권 부여
교육인원	20~40명 내외
사업취지	문화소외지역 청소년들에게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접하게 함으로써 아름다움에 대한 탐구심과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의식 및 건전한 세계관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사업목적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고 직접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되어 공연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감춰진 재능을 발견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안목을 높여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교육기간	매주 2회(대체로 주중 1회, 주말 1회) 총 8~12주(총 16~25회)교육 실시. 이를 토대로 해당
특성	청소년들이 직접 공연을 꾸미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공연에 참가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및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초청하여 발표공연, 언론보도
소요예산	매회 3,000만원 내외

본 연구의 전문가 워크숍에서는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공연 준비, 진행상황, 공연 후의 대대적인 언론 보도(동아일보 사회면과 지역 면에 소개된 공연 소식)’를 꼽았는데, 이는 출연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며, 지역사회의 관심 고조 및 지역 관계기관(예: 문예회관, 지방교육지원청 등)의

15) 이후 감상만으로는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최 측의 인식으로, 27회 짝을 맞은 2011년 8월 경기의정부예술의전당 행사부터 청소년들이 직접 공연을 꾸미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다. 이때부터, ‘친구와 문화예술과 놀자’를 공식 사업명칭으로 정하고, 2011년 11월 29회 행사부터 서울예술단이 참여하는 뮤지컬 프로그램이 실시되면서 ‘뮤지컬’장르를 교육하는 방향으로 정착되었다.

협조를 극대화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친구와 문화예술과 놀자 사업의 성공요인은 ‘이해와 공감을 통한 자아존중감의 재발견’, ‘교육과정의 스토리텔링화’,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 확보와 대학선배단과의 1:1 멘토링’, ‘협업관계를 통한 메세나의 효과적인 운영 프로세스’로 꼽을 수 있다(정지은·이석규·김춘경, 2014).

특히 ‘협업 관계를 통한 메세나의 효과적인 운영 프로세스’ 부분은, 문예회관, 공연장 등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화기반시설들이 확충되고 있는 반면,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공연전문시설이 평소에는 비어있거나, 결혼식 대관 등에 활용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을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와 예술 전문 인력, 언론사(동아일보), 문화기반시설들이 모두 협력되어 있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정지은·이석규·김춘경(2014)의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천 사례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협업 관계를 소개했다.

‘지자체’는 연천군청과 연천교육지원청으로, 교육 대상 학생 모집과 연습 진행 공간을 협조했으며, 지역의 공연장인 연천수레울아트홀은 마지막 공연 때 대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의 강사진은 청소년들의 양적, 질적인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들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교육과정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자체 협력과 전문가 섭외는 동아일보(언론)사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확보되었고, 이러한 모든 교육과정은 기업(한진중공업)의 후원으로 완성되었다. 본 교육과정은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에서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2008년 태안에서 ‘해설 있는 발레 프로그램 비보이 공연’ 관람으로 이루어졌고, 2009년 공주, 2010년 홍성에서 서양음악사(클래식) 교육, 2011년 당진에서 현대무용 교육 과정들이 있었다. 하지만 근 5년간 충남과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연계한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향후에 충남의 다양한 문화기반시설들과 연계한 교육과정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 및 문화기반시설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양질의 강사 풀 확보’, ‘사업성과에 대한 관찰과 대대적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충남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6. 시사점 : 시·군 시행계획의 필요사항 및 기본내용

국내외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
에 대한 시사점을 크게 네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현재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대상의 수요 다양화에 대응하
는 사업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양혜원 외, 2015)는 것이다. 현재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역할이 한계점으로 존재하고 있어,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권순석 외, 2015). 한국의 문화예술교
육정책의 추진체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앙의 역할이 강하여, 지역에 기초
한 문화적인 맥락과 자유로운 상상력을 중앙정부의 추진체계로 인해 일정하게 제한되는 한계
점이 존재한다. 이에 단위사업별 추진체계의 상이성과 복잡성, 협력기관의 책임성 확보 미흡,
지역문화예술센터의 위상과 역할 모호성 및 자율성 부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본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반시민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에 의해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되어, 시민·민간단체·NPO단체·공공기관·지자체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충청남도 사회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는 중앙정부의 주도가 아닌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본 연구의 전문가 워크숍 결과 충남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인력 확충 및 전문 인력 양성, 전문성 강화, 예술장르의 다양성 확보 등
역량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꼽혔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양적 확대로
관리 부담은 크게 증대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인력이나 운영비의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질적 하락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및 지역 확산으로 광역센터와 결합하여 꿈
다락 토요문화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의 특성과 결합하고 지역 예술
가의 상상력을 통한 성장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기관
장 등의 영향력이 매우 큰데, 앞선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사례에서처럼
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지속적이며 열정적으로 참가하는 혁신적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전문가 워크숍에서 충남 광역문화재단과 도내 기초문화재단간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국내외 여러 선진 사례들을 보았을 때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단체·기관 등의 유기적인 협조와 협력, 연계 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충남의 과제로서 단기적으로는 문화재단간의 사업연계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재단만이 아닌 각종 문화기반시설과 지자체, 민간단체/기업, 지역주민 등에 의한 파트너십을 통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보고서에서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 자체 예산의 부족, 설비·장비·공간 등의 인프라 부족, 전문 인력의 부족, 일회성 이벤트나 단순 기능교육 프로그램 위주 운영, 협력 체계의 미흡 등으로 프로그램의 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지역의 특성과 결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스스로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나 그룹을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정책 주체와의 파트너십은 물론 참여자들이 성장하여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기획하기까지의 일정한 지역적 축적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성이 담보된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일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다수의 애호가 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방안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일본 중앙정부 주도의 문화예술분야 관련 각종 수상활동은 참가자의 동기부여 및 자부심 제고는 물론 공연 및 작품의 우수성을 담보하고, 브랜드 구축에도 기여한다. 참가자의 교육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결실 맺은 성과물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그 결과를 표창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사회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확대 및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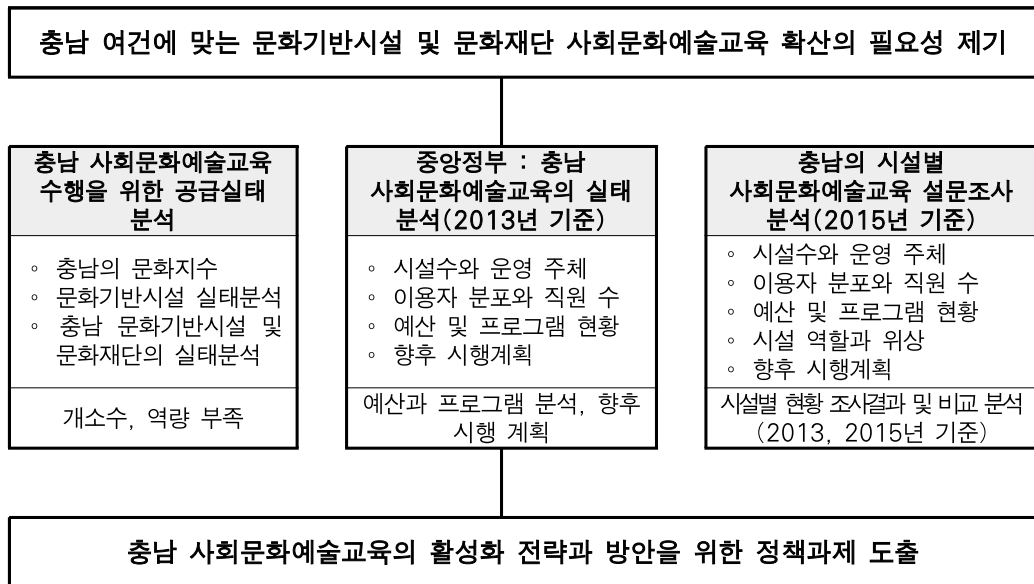
제3장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분석 및 과제도출

1. 분석의 틀

이상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추진 정책, 중앙정부 기본 계획, 국내외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여건, 사례 조사 등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본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틀은 충남 여건에 맞는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 수행을 위한 공급실태 분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 실태분석’, ‘충남의 시설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설문조사’ 분석 등을 통해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체계로 이루어진다.

[표 29] 분석의 틀



2.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 수행을 위한 실태분석

1) 충남의 문화지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지역 문화의 발전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의 결과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발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이는 전문가 자문과 설문 등을 통해 선정된 ‘문화 정책’, ‘문화 자원’, ‘문화 활동’, ‘문화 향유’ 등 4개의 대분류 이하 총 27개의 지역문화지표를 적용하여, 대전, 세종, 충남 등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지역문화지수는 수집한 자료를 표준화, 가중치 부여 등 통계적으로 가공하여 추출한 값으로, 값의 높고 낮음에 따라 문화 정책 수립·추진과 문화 자원 보전·구축·관리, 문화 활동 및 문화 향유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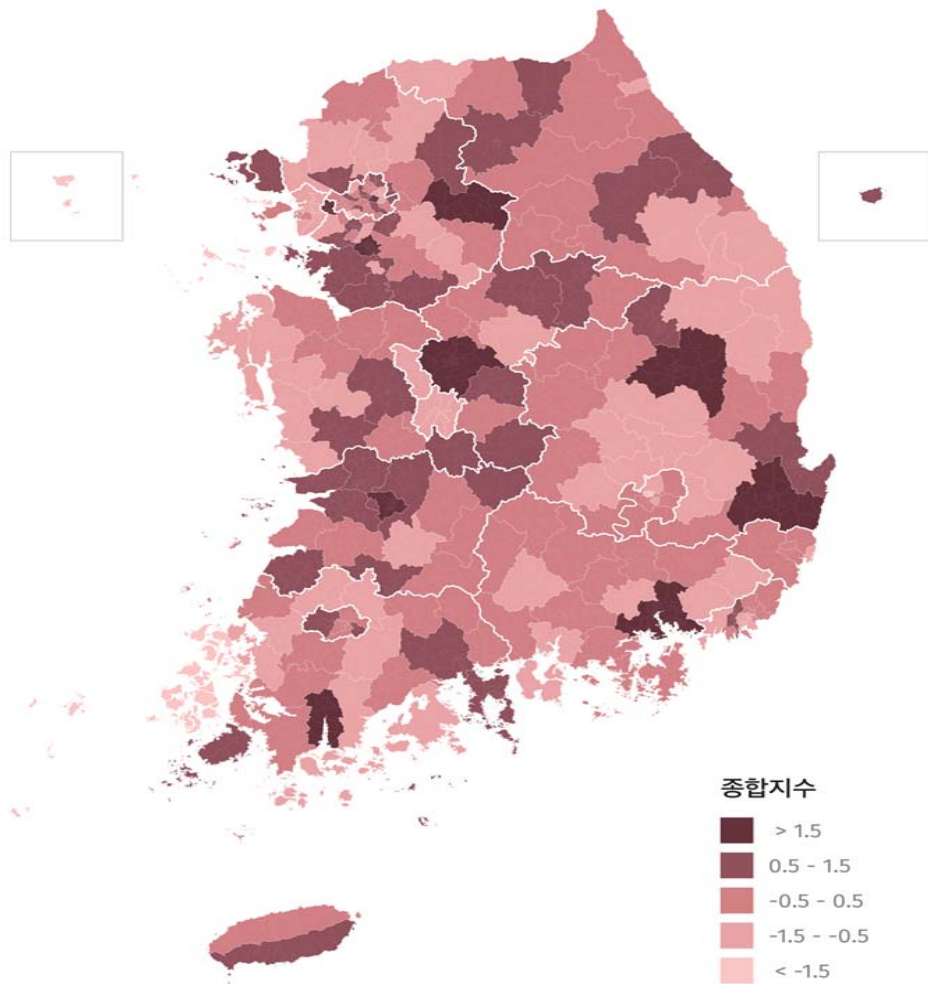
결과에 따르면, 시·군·구 통합 전체 지역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전북 전주시, 군 지역은 전남 강진군, 구 지역은 서울시 성동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 정책’과 ‘문화 자원’, ‘문화 활동’, ‘문화향유’ 등 대분류별 지숫값이 높게 나타난 지역 조사에서 충남 지역 지자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충남에서는 금산군이 유일하게 ‘문화 활동’ 분야에서 문화복지 전문 인력이 전국 총 56명 중, 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시·군·구 기준별 상위지역

구분	상위지역 (10개)
시	전북 전주시, 경기 수원시,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경북 안동시, 충북 청주시, 경북 경주시, 전북 익산시, 경기 고양시, 경기 구리시
군	전남 강진군, 경기 양평군, 전남 진도군, 전북 무주군, 전북 완주군, 충북 보은군, 경북 울릉군, 강원 양구군, 전북 순창군, 충북 영동군
구	서울 성동구, 부산 사상구, 서울 중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동작구, 부산 서구, 서울 종로구, 서울 강동구, 부산 북구, 광주 동구

또한 2012년 기준 조사에 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수도권 간 지역문화 격차가 다소 해소된 결과를 보였다. 수도권의 지역문화 종합지수 평균은 0.028, 비수도권은 -0.011로 나타나, 2012년 기준 조사 결과인 수도권 0.140, 비수도권 -0.057에 비해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충남 15개 시·군은 지역문화 실태조사의 종합순위는 물론 시·군·구별, 문화 대분류별 평가에서 모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상대적 열위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충남의 지역문화 격차를 향후에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4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p. 8.
〔그림 14〕 2014년 기준 전국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2)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실태분석

문화시설이란 사람들의 창의성이나 감수성을 개발하고, 그것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거나 감상하는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의미하며, 사람들의 창의적 행위를 가능하게 해주고, 다양한 문화적 창작활동과 향유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준다. 따라서 문화기반시설은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의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다. 문화적 삶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문예회관, 박물관, 공연장, 도서관,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시설을 건립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이인배 외, 2012).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충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천안시·공주시·아산시·금산군·당진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청양군과 계룡시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시·군별 현황을 보면 문화기반시설이 천안 25개소, 공주시 17개소, 아산시 15개소, 금산군이 각각 13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양군과 계룡시가 4개소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남의 주요 문화기반시설은 총 153개소로 이중 공공도서관이 57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박물관 44개소, 문예회관 17개소, 지방문화원 16개소, 미술관 8개소, 문화의집 7개소, 문화재단 4개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기반시설별 분포 특성을 보면 역사유산이 많은 공주시·부여군 등에는 국공립 박물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양군·서천군은 박물관이 현재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미술관은 천안시·공주시·보령시·아산시·논산시·당진시·홍성군·예산군에는 각각 자치단체 평균 수준의 1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태안군에는 미술관이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기반시설별 분포 특성을 보면, 자치단체 평균보다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천안시에 문예회관 3개소, 지방문화원 3개소, 금산군에 문화의집이 2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에는 총 4개의 문화재단이 있으며 홍성에 소재한 광역문화재단인 충남문화재단을 비롯하여 아산문화재단, 천안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대도시 중에서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중인 천안시·아산시와 농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금산군과 적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청양군을 사례로 채택하였다.

[표 31] 충남 문화기반시설 현황(2015년 기준)

구분	총합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문화재단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전국	2,583	930	679	232	19	809	371	336	102	202	51	140	11	232	229	116	63
전국 평균	151.9	54.7	39.9	13.6	1.1	47.6	21.8	19.8	6.0	11.9	3.0	8.2	0.6	13.6	13.5	6.8	3.7
서울	350*	132	106	22	4	122	26	67	29	38	4	30	4	16	25	8	8
충남	153	57	38	19	-	44	27	14	3	8	1	7	-	17	16	7	4
자치단체평균	11.9	4.1	3.0	1.1	0.1	3.9	2.0	1.5	0.3	0.9	0.3	0.6	0.0	1.1	1.0	0.6	0.3
천안시	25	10	7	3	-	7	4	2	1	1	-	1	-	3	3	-	1
공주시	17	4	2	2	-	9	4	3	2	1	-	1	-	1	1	1	-
보령시	10	4	2	2	-	2	2	-	-	1	-	1	-	1	1	1	-
아산시	15	6	5	1	-	5	3	2	-	1	-	1	-	1	1	-	1
서산시	7	5	3	2	-	0	-	-	-	-	-	-	-	1	1	-	-
논산시	7	3	2	1	-	1	1	-	-	1	-	1	-	1	1	-	-
계룡시	4	2	2	-	-	0	-	-	-	-	-	-	-	1		1	-
당진시	12	4	3	1	-	3	2	1	-	1	-	1	-	1	1	1	1
금산군	13	5	4	1	-	4	3	1	-	-	-	-	-	1	1	2	-
부여군	8	2	1	1	-	4	4	-	-	-	-	-	-	1	1	-	-
서천군	5	2	1	1	-	-	-	-	-	-	-	-	-	1	1	1	-
청양군	4	2	1	1	-	-	-	-	-	-	-	-	-	1	1	-	-
홍성군	9	2	1	1	-	3	2	1	-	1	1	-	-	1	1	-	1*
예산군	10	3	2	1	-	4	1	3	-	1	-	1	-	1	1	-	-
태안군	7	3	2	1	-	2	1	1	-	-	-	-	-	1	1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a), 2014전국문화기반시설 총량

주 : 1) 국립중앙도서관(서울) 1개소 포함

2)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에는 각각 기초문화재단이, 홍성군은 광역문화재단인 충남문화재단이 위치함

3) 전국 평균은 17개 시·도의 평균, 자치단체 평균은 서울을 제외한 154개 자치단체(시·군)의 평균으로 계산함

지역별 인구 백만명당 시설수를 살펴보면, 제주 206개소, 강원 128개소, 전남 94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의 인구대비 문화시설 수는 전국 평균보다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인구 백만명당 문화시설 수

(단위 : 명, 개소)

구분	인구 수	문화시설 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전국	51,327,916	49.08	18.12	15.76	3.94	4.52	4.46	2.26
전국평균	3,019,289.2	2.9	1.1	0.9	0.2	0.3	0.3	0.1
충남	2,062,273	72.25	27.64	21.34	3.88	8.24	7.76	3.39
전국대비비율	4.0	147.2	152.5	135.4	98.5	182.3	174.0	15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a),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15년 기준)

주 : 전국 평균은 17개 시·도의 평균, 광역시 평균은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평균으로 계산함

(1) 공공도서관

도서관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조사 연구·학습 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정보와 문화센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를 주최하고, 기타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도서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일회성 프로젝트 혹은 단 기간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백령 외, 2013).

도서관은 지역민의 정체성과 문화적 창의성을 고취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민의 문화적 활동과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점차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다(이인배 외, 2012). 도서관은 설립주체가 교육청과 지자체(시·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계통시만 설립주체가 교육청인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표 33] 시·군별 도서관(교육청 주체) 현황(2015. 1. 1. 기준)

구분	지역	도서관명	시설 규모 (m^2 , 명)			도서 자료	직원 수 (현원)		예산 (천원)	이용자수 (명)
			부지	건물	열람 석		총	사서		
교육청 (19)	천안시	충청남도평생교육원	26,770	12,282	1,433	150,714	26	8	3,049,790	626,870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14,006	3,421	521	127,477	33	5	2,632,695	323,500
		천안성환도서관	4,147	1,346	307	87,786	5	2	787,474	129,324
	공주시	공주유구도서관	1,259	965	102	69,794	5	2	239,729	57,906
		공주도서관	1,618	1,069	164	103,669	5	2	423,757	119,336
	보령시	보령웅천도서관	3,096	1,013	200	73,765	5	2	444,339	25,265
		보령도서관	2,341	1,663	300	100,835	4	2	464,238	243,204
	아산시	아산도서관	2,170	1,919	150	107,459	6	4	507,649	230,149
	서산시	서산해미도서관	3,145	1,175	120	84,625	5	2	214,746	115,233
		충남서부평생학습관	6,804	2,443	540	160,449	21	6	2,058,711	525,751
	논산시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12,361	4,878	455	118,989	20	8	2,119,800	800,372
	당진시	당진도서관	3,625	2,067	295	91,770	5	2	737,565	101,680
	금산군	금산도서관	1,718	1,169	303	107,765	5	2	517,008	106,001
	부여군	부여도서관	4,073	986	339	106,077	5	3	248,339	142,516
	서천군	서천도서관	2,109	916	61	77,749	5	2	449,344	150,298
	청양군	청양도서관	2,408	1,601	235	77,543	5	3	442,020	131,723
	홍성군	홍성도서관	4,173	2,596	569	88,307	6	3	564,349	248,284
	예산군	예산도서관	2,066	1,309	313	90,405	5	2	426,812	142,755
	태안군	태안도서관	3,901	1,601	400	103,341	5	2	449,161	146,14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a),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15년 기준)

충남의 대도시인 천안시(7개)와 아산시(5개)와 농촌 지역의 금산군(4개)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여군과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당진시에는 설립주체가 지자체인 도서관이 1개씩만 존재하고 있다.

설립주체가 교육청인 도서관보다, 지자체인 경우가 도서관의 직원이나 사서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지역적으로 도서관에 직원이나 사서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서와 같은 전문 인력의 보완이 필요하다.

[표 34] 시·군별 도서관(지자체 주체) 현황(2015. 1. 1. 기준)

구분	지역	도서관명	시설 규모 (m^2 , 명)			도서 자료	직원 수 (현원)		예산 (천원)	이용자수 (명)
			부지	건물	열람 석		총	사서		
지 자 체 (38)	계룡시	계룡도서관	2,823	2,740	224	62,211	6	2	237,684	85,000
		엄사도서관	1,802	1,197	75	48,971	4	1	233,343	67,973
	공주시	시립도서관강북관	6,345	2,285	210	111,057	6	2	732,663	228,206
		시립도서관웅진관	7,600	2,815	126	144,228	10	5	1,027,233	209,139
	금산군	추부도서관	2,041	564	100	27,021	3	1	190,260	59,649
		진산도서관	897	698	100	18,428	3	2	117,208	53,521
		금산인삼고을도서관	394	1,566	250	56,322	4	1	370,000	108,569
		금산가적의도서관	1,717	529	100	2,959	2	2	202,827	67,842
	논산시	논산연무도서관	2,911	1,511	204	71,403	3	1	264,933	75,852
		논산강경도서관	1,962	1,447	235	74,055	3	1	229,545	62,851
	당진시	당진시립북도서관	2,421	987	200	46,288	1		171,250	67,549
		당진시립중앙도서관	1,346	869	226	46,319	1	1	179,000	61,259
	보령시	보령주산도서관	3,355	933	100	36,737	1		4,000	8,369
		보령공공도서관	1,390	1,255	292	101,619	6	2	555,054	90,808
	부여군	홍산공공도서관	3,450	931	211	4,184			166,446	7,300
	서산시	서산시대산도서관	5,865	875	147	87,210	4	1	457,058	60,455
		서산시립도서관	10,357	2,585	383	228,758	10	7	649,996	379,141
		서산어린이도서관	24,618	1,211	245	20,100	3	3	141,455	69,695
	서천군	서천장항공공도서관	826	1,084	90	66,935	4	3	212,600	49,378
	아산시	아산시립둔포도서관	1,157	1,015	89	89,683	2	1	455,640	142,853
		// 남산도서관	7,806	971	194	46,916	2		435,248	212,908
		// 송곡도서관	1,771	1,881	137	141,691	13	6	1,272,696	256,005
		// 배방도서관	1,492	1,491	336	92,076	1	1	591,816	214,399
		// 아문도서관	377	377	50	73,589	2	1	546,424	310,223
	예산군	예산삼교도서관	2,083	772	132	66,099	2	1	171,553	13,712
		예산군립도서관	89,192	1,283	240	38,727	4	2	377,500	65,025
	천안시	천안시중앙도서관	3,727	4,824	418	199,383	17	8	1,037,776	268,450
		// 신방분관	12,253	5,391	644	54,346	7	3	328,468	574,776
		// 아우내분관	10,495	4,456	447	53,042	4	1	163,360	58,724
		// 도솔분관	1,088	1,088	390	70,904	4	2	294,485	371,664
		// 성거분관	2,745	1,576	390	90,955	5	3	474,122	96,282
		// 쌍용분관	5,631	4,792	734	141,972	12	4	1,009,187	650,650
		// 두정분관	16,325	6,662	672	96,436	6	4	2,418,555	751,625
	청양군	정산도서관	6,212	1,762	191	23,244	1	1	92,579	20,107
	태안군	태안안면도서관	1,573	578	90	46,948	3	1	130,742	13,347
		태안군립중앙도서관	3,946	2,773	106	24,138	6	2	484,273	28,535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1,386	1,078	132	82,389	2	1	367,605	33,691
	당진시	당진시립중앙도서관	12,931	4,485	700	73,235	10	4	367,694	314,223
총합		57개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a),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15년 기준)

(2) 박물관

박물관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2000년 이후 박물관 기능이 ‘보존과 연구’에서 ‘전시와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고, 세계적으로도 수월하고 접근하기 편한 박물관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백령 외, 2013).

충남에는 총 44개의 박물관 시설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공립 박물관 27개소, 사립박물관 14개소, 대학박물관이 3개소가 있다. 충남의 시·군별로 살펴보면, 공주시에 9개소(국립 1개소, 공립 3개소, 사립 3개소, 대학 2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천안시에 7개소(국립 1개소, 공립 3개소, 사립 2개소, 대학 1개소)가 있다. 또한 농촌 지역의 금산군에 4개소(국립 1개소, 공립 3개소, 사립 1개소)가 있으며, 서산시·서천군·계룡시·청양군에는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복합문화센터의 역할을 하는 박물관 설립이 필요하다.

[표 35] 시·군별 박물관 현황(2015. 1. 1. 기준)

구분	시·군명	시 설 명	건물 총 면적(m ²)	직원수(현원)		프로그램 (개)	소장유물(점)
				총	학예직		
국립 (5)	공주시	국립공주박물관	12,103	45	7	21	고고, 미술품 등(84,510)
	부여군	국립부여박물관	14,402	48	7	22	고고(46,098)
	천안시	우정박물관	1,139	2			우정사업(체신부)관련 자료(27,371)
	아산시	충무공이순신 기념관	3,104	51	2	4	고문서, 무구 등(971)
	금산군	칠백의총기념관	184	27		1	전적, 고문서 등(167)
공립 (22)	천안시	유관순열사 기념관	543	10		1	서적 등(98)
		천안박물관	6,617	8	9	10	고문서, 고서, 민속품 등(877)
		이동녕선생생가기념관	349	1		1	영상 등(11)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2,050	11	1	8	석기, 토기, 화석 등(10,200)
		송산리고분군모형관	1,314	9			
		충청남도역사박물관	1,405	8	4	13	고서, 고문서, 민속품 등(14,292)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1,800	6	1	117	광물표본류 등(4,077)
		보령박물관	8,636	16		7	고고, 민속품등(3,624)
	아산시	외암민속관	602	15	1	8	민속품(1,303)
		영인산산림박물관	6,043	9		12	광물, 화석, 곤충 등(2,628)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4,471	894	16	2	무기류(복원, 복제, 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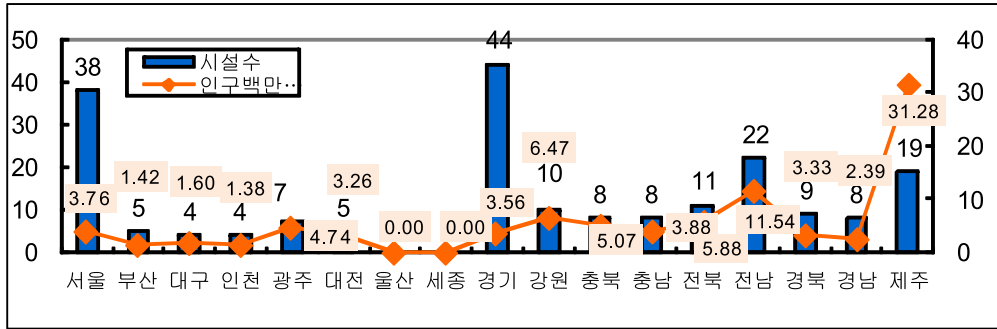
사립 (14)	당진시	기지사줄다리기박물관	2,367	5	1	9	고고, 민속품 등(493)
		합덕수리민속박물관	869	4	1	7	농기구, 민속품 등(683)
	금산군	금산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	687		1		민속품(3,343)
		금산향토관	2,046		2		민속품(800)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3,149	8	1	3	고고, 민속품 등(877)
		능산리고분군 전시관	473		1		
		백제역사문화관	8,796	7	1	2	고고유물(500)
	홍성군	결성농요 농사박물관	232		1		민속류(1,020)
		홍주성역사관	1,699	2	8	1	고문서, 고서 등(2,252)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1,412			3	서지류, 목재류, 금속류(51)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1,610	2	2	1	고고, 민속품 등(1,876)
	천안시	독립기념관	59,764			29	전적류, 문서류 등(93,999)
		북권박물관	185				주택복권 등(993)
	공주시	계룡산자연사박물관	12,201			15	지질분야, 육상생물 등(278,389)
		공주민속극박물관	700			2	민속품(1,247)
		동산박물관	950			5	도자기, 석조유물 등(3000)
대학 (3)	아산시	공세리 성지·성당박물관	423			14	조선후기, 근대 종교유물(1,418)
		(재)구정문화재단 온양민속박물관	6,600			19	고고, 민속(22,000)
	당진시	한국도량형박물관	346			5	도량형 기구등(980)
	금산군	태영민속박물관	469			18	고고, 민속품 등(7,720)
	홍성군	한국식기박물관	247				민속류(720)
		수덕사 근역성보관	2,613			7	조각, 회화, 공예 등(3,041)
	예산군	한국고건축박물관	2,791				고건축모형, 기구 등(163)
		한국문인인장박물관	340			7	인장, 전각품 등(1,245)
		한국고건축박물관	2,791				(163)
	태안군	안면도주류기박물관	2,290			6	화석, 광물, 박제(1,325)
	천안시	백석대학교 기독교박물관	8,720			6	성경시대유물 등(2,000)
		공주교육대학교 박물관		3			고고, 미술품(354)
	공주시	공주대학교 부속박물관	1,047	7	1	4	고고, 서화류 등(12,590)
	총합	44개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a),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15년 기준)

(3) 미술관

미술관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의미한다(백령 외, 2013).

2015년도 기준 전국 미술관은 총 202개소로, 경기(44개소), 서울(38개소) 순으로 많았다. 인구 백만명당 미술관 수를 살펴보면, 제주가 31.28개소로 가장 많고, 충남은 3.88개소로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a),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15년 기준)

[그림 15] 전국 대비 미술관 현황(2015. 1. 1 기준)

충남도는 8개 시·군에서만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통적인 창작예술에서 미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지역별로 1개 이상의 미술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36] 시·군별 미술관 현황(2015. 1. 1. 기준)

구분	시·군명	미술관명	시설현황(㎡)	직원수		소장자료	연 관람인원
				총	학예직		
공립(1) 사립(7)	홍성군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1,313	7	1	890	11,292
	공주시	임림미술관	1,665	9	4	750	85,000
	논산시	선화기독교 미술관	2,099	5	4	135	800
	당진시	아미미술관	820	3	2	1,120	12,000
	보령시	모산조형미술관	2,274	5		600	517,500
	아산시	당림미술관					
	예산군	수덕사 선 미술관	246	2		80	10,000
	천안시	리각미술관	933	5	1	300	
총합		8개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a),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15년 기준)

(4) 문예회관

문예회관은 개념과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행사 개최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는 시설이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 전문공연장과 복합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한 시설로 건립되었다. 2000년대 문화 민주주의적 가치가 확대되면서, 지역주민을 관람자에서 참여자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문예회관도 일방적인 예술 관람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복합문화시설로의 기능이 확대되었다(백령 외, 2013).

2015년 기준 충남에는 총 17개의 문예회관이 있으며, 아산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 건립되어 있다. 아산시는 문예회관을 건립을 추진 중인데,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는 ‘평생학습관’을 문예회관의 현황에 포함하고 있다(최영화, 정원옥, 2015).

(표 37) 시·군별 문예회관 현황(2015. 1. 1. 기준)

시·군명	시 설 명	연면적 (m^2)	직원수		연간운영비 (백만원)	공연 및 대관수입(백만원)
			총	전문직		
계룡시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9,462.0	17	3	1,307.0	57.0
공주시	공주문예회관	3,825.0	7		469.0	176.0
논산시	논산시문화예술회관	2,615.0	3	2	278.0	49.0
당진시	당진문예의전당	7,600.0	18	5	2,082.0	130.0
보령시	보령문화예술회관	17,197.0	8	1	740.0	77.0
서산시	문화회관	3,626.0	13	3	1,020.0	46.0
아산시	평생학습관극장	6,949.0	4	3	423.0	18.0
천안시	신부문화회관	4,867.0	5		118.0	73.0
	성환문화회관	4,838.0	5	2	133.0	61.0
	천안예술의전당	33,755.0	9	7	1,728.0	521.0
금산군	금산다락원	3,657.0	5	3	450.0	67.0
부여군	국악의전당	2,777.4	2		53.0	9.0
서천군	문예의전당	2,777.0	2		100.0	1.7
예산군	예산군 문예회관	2,685.0	6	2	544.0	50.0
청양군	청양문예회관	5,615.0	7	1	550,236.0	52.5
태안군	태안군문화예술회관	4,392.0	8	2	935.0	61.0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3,066.0	8	1	556.0	75.7
총합		17개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a),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15년 기준)

전국 문예회관 공연장수의 평균 21.3개보다 충남이 29개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대비 충남의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률은 52.3%로, 전국 평균 59.3%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가동률은 36.1%로, 전국 평균 44.5%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충남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률이 공연프로그램 가동률보다 높게 나타나, 공연장에서 공연(무대)외 여타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38] 전국 대비 충남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률

구분	공연장수(개)	공연장 가동률(%)	공연프로그램 가동률(%)
전국	362	55.4	41.6
전국평균	21.3	59.3	44.5
충남	29	52.3	36.1
전국대비비율	8.0%	94.4	86.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b), 2015 공연예술실태조사(2014년 기준)

주: 1) 공연 프로그램 가동률(%) = 공연일수+공연준비일수+기타행사일수/365-(시설물점검·설비일수+연간휴관일 수)*100

2) 공연 프로그램 가동률(%) = 공연일수+공연준비일수/365-(시설물점검·설비일수+연간휴관일수)*100

(5)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 제 4718호)을 기반으로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운영 기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하나씩 설립되어 있다. ‘지역 문화조사 연구사업’, ‘지역축제 개발 육성사업’, ‘지역주민 문화의식 함양사업’, ‘지역 환경 보존’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문화 활동이 진행 중이다. 특히 문화예술교육과 연결된 사업은 ‘지역문화 조사연구사업’, ‘지역주민 문화의식 함양 사업’ 등이 있으며, 특히 노인층과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사업들을 특화하여 진행하고 있다(백령 외, 2013).

충남에는 총 16개소의 지방문화원이 있으며, 천안시에 3개소의 문화원이 있고, 각 시·군별 평균적으로 지방문화원이 1개씩 존재하지만, 계룡시에는 현재 문화원이 없다. 또한 지방문화원의 회원 수가 많은 곳으로 예산문화원(11,197명)이며, 그 다음으로 천안시서북구 문화원(1,170명), 금산문화원(978명)으로 나타났다.

[표 39] 시·군별 지방문화원 현황(2015. 1. 1. 기준)

시·군명	시 설 명	시설현황(㎡)	직원수			예산 현황 (천원)	회원 수
			총	사무국장	직원		
공주시	공주문화원	2,159	3	1	2	573,230	316
보령시	보령문화원	848	2	1	1	221,200	641
아산시	온양문화원	824	4	1	3	479,512	605
서산시	서산문화원	1,883	5	1	4	1,407,825	534
논산시	논산문화원	78	3	1	2	998,698	548
금산군	금산문화원	226	4	1	3	825,972	978
부여군	부여문화원	1,463	3	1	2	931,556	146
서천군	서천문화원	611	3	1	2	332,010	213
청양군	청양문화원	571	4	1	3	364,856	419
홍성군	홍성문화원	1,996	5	1	4	493,508	182
예산군	예산문화원	1,137	4	1	3	514,241	11,197
태안군	태안문화원	976	4	1	3	446,050	579
당진시	당진문화원	799	4	1	3	401,245	712
천안시 ¹⁶⁾	천안문화원	300	2		2	22,122	110
	천안시동남구 문화원	488	1	1		202,250	188
	천안시서북구 문화원	276	3	1	2	162,748	1,170
총합		16개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a),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15년 기준)

16) 문화체육관광부(2015a)의 자료에는 천안시 삼거리다도문화원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천안문화원에 속한 천안시 삼거리다도문화원의 자료를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활용하였다.

(6) 문화의 집

문화의 집은 ‘문화 복지 중장기 실천계획’에서 도출된 것으로, 지역 문화공간의 확충을 위해 건립되었다. 따라서 문화의 집은 개인의 감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6년부터 조성된 문화의 집은 초기 공간 확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존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었고, 현재 인력 및 재정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백령 외, 2013).

충남에는 총 7개소의 문화의 집이 있으며, 금산군에만 문화의 집이 2개소가 존재하며, 문화의 집의 이용자 수와 예산총액, 인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지역 또한 금산군으로 나타났다.

[표 40] 시·군별 문화의 집 현황(2015. 1. 1. 기준)

시·군명	시 설 명	총면적(m^2)	인원 수(명)		프로그램 총수	예산총액(원)
			이용자	인력		
보령시	주산 문화의집	101	12,000	2		75,730,000
금산군	추부 문화의집	877.61	42,660	3	50	380,401,210
	금산 문화의집	330.8	70,000	5	44	150,000,000
당진시	당진 문화의집	710.8	25,000	1	12	30,000,000
계룡시	계룡 문화의집	130	16,637	3	12	69,936,000
서천군	서천 문화의집	89.2	2,000	2		25,000,000
공주시	유구 문화의집	932.23	4,053	1	4	17,000,000
총합	7개소		172,350	17	122	748,067,21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a),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15년 기준)

3) 충남 지역문화재단의 실태분석

충남에는 광역도 단위의 충남문화재단(홍성군)과 기초 시·군 단위의 천안문화재단, 아산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 총 4개의 지역문화재단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15a)의 자료에 따르면 충남에서 교육사업과 관련한 조직이 있는 재단으로 ‘충남문화재단’과 ‘당진문화재단’이 있으며, 충남의 문화재단 4곳 모두 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별 문화재단에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천안문화재단’은 ‘천안예술의전당’과 연계한 인문학 강좌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사회문화 예술교육의 설문 및 분석 대상을 ‘충남문화재단·아산문화재단·당진문화재단’으로 한정하였다.

[표 41]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현황

구분	시설명	개관 년도	주요사업	조직현황	인 력 (명)	예산 (억원)	사업수(개)
소계	4개						
광역 재단	충남 문화 재단	2014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정책개발 및 자문 - 문화예술창작 보금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 도민 문화서비스 확대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 공공문화시설의운영 및 관리	1사무처 5팀(경영기획팀·문화사업팀·예술지원팀·교육지원팀·문화복지팀)	20	213	지원사업(3) 교육사업(1)
기초 재단	천안 문화 재단	2012	-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시·도가 위탁한사업 - 지역축제 육성 및 문화사업추진 - 예술의 전당 운영	1본부 5팀(경영홍보 기획팀·행사기획팀·생활문화팀·공연사업팀·교육/미술관팀·무대예술팀)	19	61	지원사업(1) 교육사업(1) 시설사업(2) 기타사업(9)
	아산 문화 재단	2008	- 문화예술정책 연구와 제안 -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지역축제 육성 및 행사 지원 - 문화예술의창작·보금과 조사연구 등	1사무국 2팀(경영지원팀·문화예술팀)	8	22	지원사업(1) 교육사업(1) 기타사업(12)
	당진 문화 재단	2013	- 문화예술의 창작·교육·경영 지원 -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 문화유산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기금 조성 - 문예의 전당·문화예술학교 운영 및 정보 서비스	1사무처 4팀(경영지원팀·문화사업팀·무대기술팀·예술교육팀)	22	20.81	지원사업(11) 교육사업(4) 기타사업(1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5a),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이전에는 충남예총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하였으나, 충남문화재단의 설립으로 2014년 7월부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충남문화재단으로 이관되었다. 충남문화재단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협력사업(충남학생교육문화원 협력사업.Arts Dream Project <느낌이 통하는 필(feel) 통아리>, Arts Dream Project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악기기부은행’ ‘하모니로 크는 나무’, 네트워크 교류(충남문화예술교육 포럼.커뮤니티네트워크충남문화예술교육 사례공유 아카이브 전시회), 인력양성 및 정보화 사업(온/오프라인정보화사업.문화예술교육인력 역량강화 아카데미), 자체기획사업, 예술강사 지원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등의 문화예술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다.

[표 42] 충남문화재단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

사업명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사업 규모(천원)	사업 기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자원을 고려한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으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생활권 내에서 꾸준히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함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 및 개인 활동가	550,000 (충남 490,000/ 세종 60,000)	2016년 3월 ~ 12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나의 꿈의 아지트라는 뜻으로, 주5일 시행에 따른 토요일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함	충남 47곳(충남 40/세종 7곳)	1,420,000(충남 1,120,000세종 300,000)	2016년 1월~12월
2016 충남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센터 사업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문화보부상' ◦ 일반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으로 악기에 대한 이해와 문화예술 감수성을 체감할 수 있는 수업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 지역주민	150,000	2016년 4월 ~ 12월
	악기기부은행 '하모니로 크는 나무' ◦ 악기구입 비용 등의 부담으로 예술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에게 예술교육의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일반주민(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30% 이상 의무포함)		
	인큐베이팅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지역 풀뿌리 단체 육성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통하여 선정단체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	공모대상 : 문화예술교육체(기관·시설) 학습대상 : 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주민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	◦ 공주시와 협력하여 지역 아동·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한 꿈과 희망을 키우고, 지역예술인 및 문화기반시설은 지역 대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초등학교 3학년 ~ 5학년(사회취약계층 70% 이상 포함)	120,000	2016년 2월 ~ 12월

자료 : 충남문화재단 홈페이지

아산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꿈의 오케스트라 <아산온궁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였으나, 2016년에는 선발되지 않았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아동·청소년이 상호학습과 협력을 중심에 두는 오케스트라 합주 활동을 통해 긍정적 자존감과 공동체적 인성을 갖춰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과정이다.

충남의 ‘꿈의 오케스트라’는 아산문화재단에서 올해 4년차로 참여하고 있으며, ‘홍성군청소년수련관’은 2015년에 신규 선발되어 올해 2년차로 참여 중이며, 충남문화재단은 2015년 예비로 선발되어 올해에 참여하고 있다. 아산문화재단의 ‘아산온궁오케스트라’는 아산지역 내 3학년과 중학생 대상(소외계층 70% 이상)을 수혜대상으로 하며, 아산시 여성회관에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

당진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연령별·장르별 교육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당진문화재단의 ‘문화예술학교’는 복합형 문화예술전문교육 강좌인 ‘시민문예아카데미’와 지역 교육강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술강사 아카데미’, 중등교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인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에는 ‘당진문화원’과 ‘당진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공통수탁으로 이루어졌으나, 2016년부터 개별 수탁으로 변경되었다.

[표 43] 당진문화예술학교의 시민문예아카데미 현황

구분	강좌명		대상
1	가족오케스트라(5개)	바이올린(3반), 첼로, 클라리넷, 플룻, 트럼펫	가족
2	아트갤러리(7개)	도예, 서예, 문인화, 수채화, 유화 등	성인
3	문예아카데미(2개)	수필, 시	
4	이모작음악교실(13개)	오카리나, 하모니카, 성악(혼성), 대금, 아코디언, 디지털피아노 등	
5	셀위댄스(3개)	한국무용, 치어리딩댄스 등	
6	문예놀이터(7개)	난타, 애니메이션, 연극아놀자 등	어린이

자료 : 당진문화재단 홈페이지

주 : 현재 교육기간은 2016년 3월 ~ 7월까지(5개월, 19주)동안 진행되고 있으며, 총 1년 2학기제로 운영되고 운영수강료는 1학기에 5만원임

3. 중앙정부 :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실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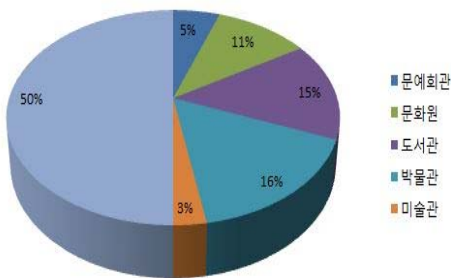
1) 조사 대상 시설 수와 운영 주체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실태에 대한 부분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2013년 기준)』 충남지역 문화기반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설문지(pp.184~190)의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문화기반시설은 2013년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등록되어 있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화의 집¹⁷⁾·문예회관·문화원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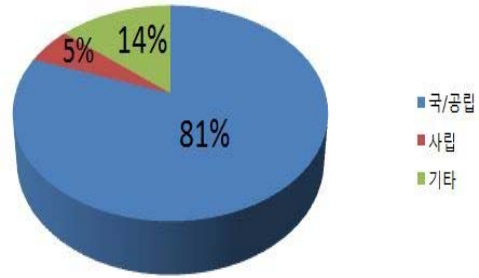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총 37개의 문화기반시설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이용자 수는 도서관과 박물관이 가장 많으며, 문화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주체는 국/공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4] 문화기반시설조사 응답현황 및 이용자수(2014년 기준)
(단위: 개, %, 명)

	모집단	조사완료(응답 퍼센트)	이용자 수
문예회관	15	4(26.6%)	187,326
문화원	16	8(50%)	95,760
도서관	50	11(22%)	1,716,579
박물관	43	12(27.9%)	1,559,125
미술관	8	2(25%)	380,000
총합	132	37	3,938,790



[그림 16] 문화기반시설의 응답된 기관



[그림 17]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주체

17) 문화의 집은 조사된 사례 결과 데이터가 없어서 제외하였다.

2) 시설 유형에 따른 이용자 분포와 직원 수

충남 문화기반시설 이용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시설에서 성인(46%)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원(58%)과 문예회관(56.5%)이 상대적으로 성인 이용자의 비율이 높다. 유아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은 도서관(13.4%), 어린이의 이용률이 높은 시설은 미술관(22.5%), 청소년의 이용률이 높은 시설은 도서관(24.6%), 성인의 이용률이 높은 시설은 문예회관(56.5%)과 문화원(58%), 노인의 이용률이 높은 시설은 문화원(30%)으로 나타났다.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성인을 위한 교육 과정은 모든 문화기반시설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각 연령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화기반시설들도 대상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5] 시설유형에 따른 이용자 분포(2013년 기준)

(단위: %)

연령 구분	유아 (학령기이전)	어린이 (초등학생)	청소년 (중·고등학생)	성인 (20~60세 미만)	노인 (60세 이상)
문예회관	8.7	6.0	8.0	56.5	20.8
문화원	1.3	4.4	6.3	58.0	30.0
도서관	13.4	20.5	24.6	32.8	8.7
박물관	8.9	14.0	18.1	44	15.0
미술관	12.5	22.5	12.5	37.5	15.0
전체 평균	9.0	13.5	13.4	46.0	18.0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담당직원은 평균 약 2.1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예술교육을 주 업무로 하는 인력은 미술관(2명), 문화원(1.8명)이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간제 강사 수는 도서관(30.3명), 문화원(11.6명)이 타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의 시간제 강사의 경우 타 시설에 비해 자체예산을 통합 수급 인력이 많은 곳은 도서관(8.3명), 지원 사업 예산을 통한 수급 인력이 많은 곳으로 문화원(27.8명)으로 꼽혔다. 전반적인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직원과 강사 수(A+B)는 11.5명으로 나타났다. 도서관(32.4명)이 타 시설에 비해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으며, 문예회관(1.3명)은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시설유형에 따른 직원과 시간제 강사(2013년 기준)

(단위 : 명)

	전체 직원 평균	정규 직 평균	비정규 직 평균	기타 평균	문화예술교육 담당직원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간제 강사 수			전체 (A+B)
					총 인 원 (A)	주 업 무	부 업 무	총 인 원 (B)	자 체 인 력	지 원 사 업 인 력	
문예회관	6.5	5.5	1.0	-	0.8	0.3	0.5	0.5	0.5	-	1.3
문화원	3.8	3	0.4	0.4	2.3	1.8	0.5	11.6	3.4	8.3	13.9
도서관	7.5	5.9	1.3	0.3	2.1	1.5	0.5	30.3	27.8	2.5	32.4
박물관	12.5	7.8	4.2	0.5	2.7	1.0	1.7	1.7	0.9	0.8	4.4
미술관	4.0	1.5	2.0	0.5	2.5	2.0	0.5	3	0.5	2.5	5.5
전체 평균	6.9	4.7	1.8	0.3	2.1	1.3	0.7	9.4	6.6	2.8	11.5

주 : 주업무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을 주로 업무로하는 직원을, 부업무의 경우 담당 주업무는 따로 있으면서 문화예술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의미함

3) 시설 유형에 따른 예산

2013년을 기준으로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총 예산의 평균은 317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총 예산이 가장 높은 곳으로 박물관(633백만 원)이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도서관(409백만 원)이 꼽혔으며, 총 예산이 가장 낮은 곳은 미술관(19백만 원)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지역의 문화기반시설과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평균 예산을 비교하였을 때, 전체 지역 시설의 예산(평균)보다 충남 시설의 예산(평균)이 모두 훨씬 적으며, 특히 미술관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시설유형에 따른 예산(2013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기관 총 예산	기관 평균	전체 평균
문예회관	237	59	85
문화원	288	36	138
도서관	409	37	161
박물관	633	90	122
미술관	19	10	174
전체 평균	317	46	135

주 : 문예회관 1곳, 박물관 5곳 무응답으로 제외

4) 시설 유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충남의 문화예술교육(2013년 기준)을 실시한 시설의 전체 비율은 83.2%이며, 미술관과 문화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실시한 반면, 박물관에서는 절반 정도(50%)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프로그램의 평균 숫자는 22.8개로 나타났다.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운영에 있어서 도서관의 평균이 85.5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단순 관람의 형태가 많았으며,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의 평균은 1.3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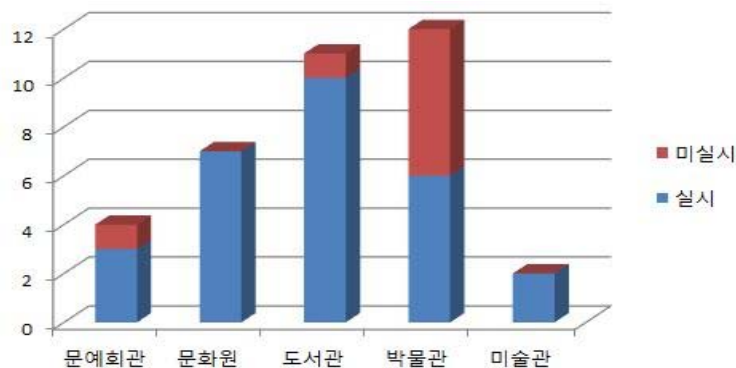
[표 48] 시설유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2013년 기준)

(단위 : %, 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평균 수		
	실시(%)	미실시(%)	단순 관람, 감상, 전시형태	그 외 형태	총 프로그램
문예회관	75	25	-	1.3	1.3
문화원	100	-	7.6	10.5	18.1
도서관	91	9	66.8	18.7	85.5
박물관	50	50	1.3	4.2	5.5
미술관	100	-	-	3.5	3.5
전체 평균	83.2	16.8	15.1	7.6	22.8

주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 항목 문화원 1곳 무응답으로 제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평균 수' 항목 문예회관 1곳, 문화원 1곳, 도서관 1곳, 박물관 6곳 제외



(그림 18) 문화예술교육 실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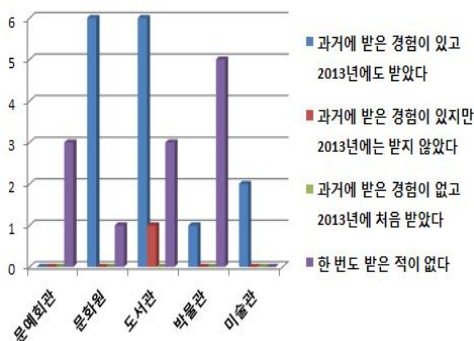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시설 중, 2013년 기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가 절반(52.5%)에 불과했으며, 한 번도 예산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가 45.4%로 나타났다. 한 번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예산을 지원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많은 시설로 문예회관(100%)과 박물관(83%)이 꼽혔다.

충남의 문화기반시설들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요인으로 ‘자체적인 지원이 더 중요하다(48.8%)’는 응답과 ‘두 요인(자체지원/외부지원) 모두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42.6%)’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충남의 문화원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요인으로 외부 지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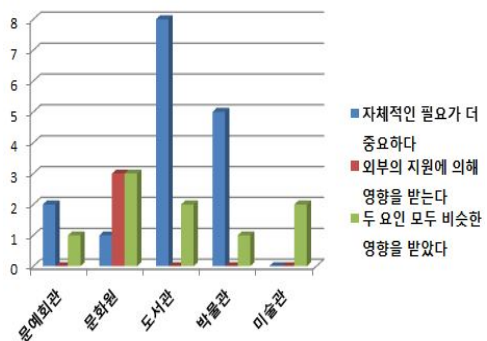
[표 49] 시설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받은 경험과 시행요인(2013년 기준)
(단위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산 지원 여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행요인		
	과거 받았고, 2013년에 받음	과거에 받고, 2013년 받지 않음	과거에 받지 않고, 2013년에 처음 받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음	자체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다	외부의 지원에 의해 영향 받음	두 요인 모두 비슷한 영향 받음
문예회관	-	-	-	100	67	-	33
문화원	86	-	-	14	14	43	43
도서관	60	10	-	30	80	-	20
박물관	17	-	-	83	83	-	17
미술관	100	-	-	-	-	-	100
전체 평균	52.6	2	-	45.4	48.8	8.6	42.6

주 : 문예회관 1곳, 문화원 1곳, 도서관 1곳, 박물관 6곳 무응답으로 제외



[그림 19] 시설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산 지원 경험 여부



[그림 20] 시설별 개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행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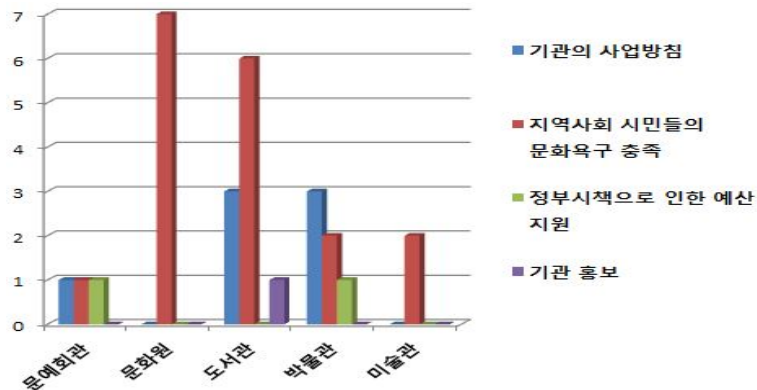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유로 ‘지역사회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것(65%)’이 가장 높았으며, ‘기관 홍보 차원(2%)’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원(100%)과 미술관(100%)은 ‘지역사회 시민들이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박물관은 주로 ‘기관의 사업방침(50%)’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꼽았다.

〔표 5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설 기준(2013년 기준)

(단위 : %)

	기관의 사업방침	지역사회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정부시책으로 인한 예산 지원	기관 홍보
문예회관	33	33	33	-
문화원	-	100	-	-
도서관	30	60	-	10
박물관	50	33	17	-
미술관	-	100	-	-
전체평균	23	65	10	2

주 : 문예회관 1곳, 문화원 1곳, 도서관 1곳, 박물관 6곳 무응답으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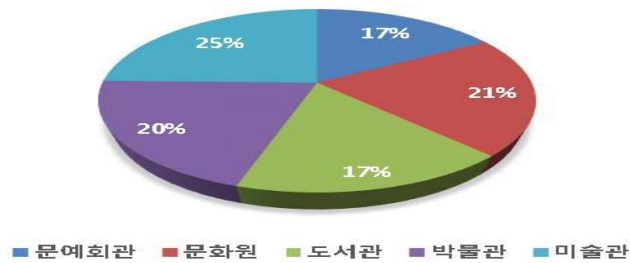
〔그림 2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설 기준

전반적으로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이 외부기관과 문화예술교육 과정을 연계(협력)하여 진행한 경우가 81.2%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미술관(100%)·문화원(86%)·박물관(83%)이 문화예술교육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 외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여부(2013년 기준)
(단위 : %)

다른 기관과 연계 여부	있다	없다
문예회관	67	33
문화원	86	14
도서관	70	30
박물관	83	17
미술관	100	-
전체 평균	81.2	18.8

주 : 문화원 1곳 무응답으로 제외



[그림 22] 다른 기관과 문화예술교육을 연계 및 협력한 적이 있음

전반적인 충남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의 운영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예산과 제정확보(29%)’를 꼽았으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및 수행능력(3%)’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예회관은 유일하게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항목(50%)’이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원은 ‘예산 및 제정확보와 기관의 인프라 부족(31%)’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서관은 ‘기관의 인프라 부족(27%)’을, 박물관(39%)과 미술관(50%)은 ‘예산 및 제정확보’에 대해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과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
(전체시설, 2013년 기준)

	빈도	퍼센트(%)
참여자 인식 부재	3	5
예산, 제정확보	19	29
기관의 인력부족	16	24
기관의 인프라 부족(공간, 설비 등)	12	18
기획 및 수행능력 부족	2	3
참여자 저조	10	15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4	6
합계	66	100

[표 5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과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개별시설, 2013년 기준)
(단위 : %)

	참여자 인식 부재	예산, 제정확보	기관의 인력부족	기관의 인프라 부족	기획 및 수행능력 부족	참여자 저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문예회관	-	-	25	-	-	25	50
문화원	8	31	15	31	-	15	-
도서관	5	18	18	27	5	23	5
박물관	4	39	35	9	4	9	-
미술관	-	50	25	-	-	-	25

주 : 문예회관 1곳, 문화원 1곳, 도서관 1곳, 박물관 6곳 무응답으로 제외

충남의 전반적인 문화기반시설은 문화예술교육과정에 대해 ‘문화예술을 중시(3.9점)’한다는 평점이 높았고, ‘강사 인력의 구인(2.7점)’에 대해서는 평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 문예회관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3.5점)’이 있다고 응답 하였고, 문화원은 ‘문화예술교육을 중시한다는 인식(3.9점)’, 도서관(3.7점)과 박물관(3.5점)은 ‘문화예술교육을 중시’, 미술관은 ‘문화예술교육과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구비(5.0점)’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문화기반시설은 ‘시설의 강사 인력 구인 수월’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54] 각 시설별 문화예술교육의 여건(2014년 기준)
(단위 : 점수(5점 만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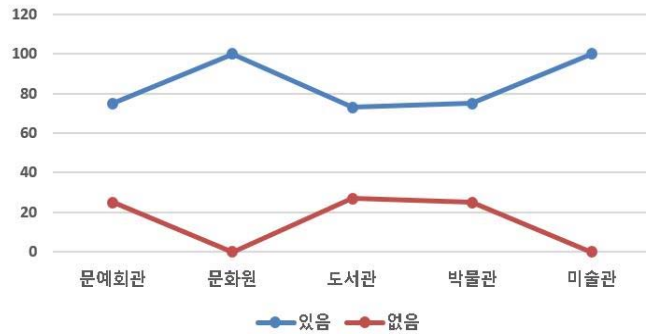
전체	전담 인력 및 조직 구축	문화예술교 육 중시	수행시설과 장비 구비	자체 예산 확보	지역주민들 의 관심	강사인력 구인 수월
문예회관	3.0	3.3	3.0	3.3	3.5	2.3
문화원	3.0	3.9	3.1	2.4	3.1	2.7
도서관	3.1	3.7	3.2	3.5	3.3	2.5
박물관	2.5	3.5	3.4	3.3	3.3	2.8
미술관	4.0	5.0	5.0	3.5	4.5	3.0
전체 평균	3.1	3.9	3.5	3.2	3.5	2.7

주 : 문화원 1곳 무응답으로 제외 및 평균으로 계산함

전반적인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은 2015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계획에 대해 84.6%가 실시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문예회관(25%)·도서관(27%)·박물관(25%)은 상대적으로 향후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표 55] 2015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계획 여부(2014년 기준)
(단위 : %)

	있음	없음
문예회관	75	25
문화원	100	-
도서관	73	27
박물관	75	25
미술관	100	-
전체 평균	84.6	15.4



[그림 23] 2015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계획 여부

2015년에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경우, 중점 교육 대상으로 ‘어린이(31%)’와 ‘성인(20-60세, 24%)’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유아(3%)’와 ‘특수계층(취약·다문화 계층 등, 3%)’은 중점 대상으로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문예회관은 ‘노인(60세 이상, 33%)’을, 문화원은 ‘성인(20-60세, 38%)’을, 도서관은 ‘어린이(38%)’를, 박물관은 ‘어린이(39%)’, 미술관은 ‘어린이(67%)’를 중요한 문화예술교육 대상으로 보았고, 상대적으로 ‘특수계층(취약·다문화 계층 등)’은 도서관과 박물관만이 중점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인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추진과제로 문화취약계층 대상의 예술교육 접근 기회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충남의 문화기반시설들이 특수 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56] 중점 교육 대상(전체시설, 2014년 기준)

	빈도	퍼센트(%)
유아	2	3
어린이	18	31
청소년	8	14
성인(20-60세)	14	24
노인(60세 이상)	7	12
복합(가족 등)	7	12
특수계층(취약 계층 등)	2	3
합계	58	100

[표 57] 중점 교육 대상(개별시설, 2014년 기준)

(단위 : %)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20-60세)	노인 (60세이상)	복합 (가족 등)	특수계층 (취약계층 등)
문예회관	-	17	17	17	33	17	-
문화원	-	8	8	38	23	23	-
도서관	6	38	6	31	-	13	6
박물관	6	39	22	17	6	6	6
미술관	-	67	-	-	33	-	-

주 : 문예회관 1곳, 문화원 1곳, 도서관 3곳, 박물관 2곳 무응답으로 제외

2015년에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경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36%)’과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22%)’이 꼽혔으나, 상대적으로 ‘지역공동체성 함양 프로그램’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예회관은 향후에 관심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33%)’과 ‘지역공동체성 함양 프로그램(33%)’을, 문화원은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31%)’을,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하는 프로그램(50%)’을, 박물관은 ‘기관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37%)’을, 미술관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박물관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교육 과정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각 시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들이 독창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58]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전체시설, 2014년 기준)

	빈도	퍼센트(%)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하는 프로그램	21	36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	13	22
여가활용 및 가족프로그램	6	10
창의체험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7	12
지역공동체성 함양 프로그램	2	3
기관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10	17
합계	59	100

[표 59]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개별시설, 2014년 기준)
(단위 : %)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하는 프로그램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가활용 및 가족 프로그램	창의체험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성 함양 프로그램	기관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문예회관	33	-	17	17	33	-
문화원	31	23	23	8	-	15
도서관	50	19	6	19	-	6
박물관	32	26	-	5	-	37
미술관	25	25	25	25	-	-

주 : 문예회관 1곳, 문화원 1곳, 도서관 3곳, 박물관 2곳 무응답으로 제외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에서 향후 문화예술교육과정을 활성화시킬 방안으로, ‘운영비 지원(22%)’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 인력 지원(21%)’이 꼽혔으며, ‘관련법 정비에 대한 지원(1%)’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향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문예회관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 인력 지원(25%)’, ‘기관 내 설비, 장비, 전용 공간 확충 지원(25%)’을, 문화원은 ‘기관 내 설비, 장비, 전용 공간 확충 지원(29%)’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29%)’을, 도서관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 인력 지원(23%)’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23%)’을,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22%)’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6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전체시설, 2014년 기준)

	빈도	퍼센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 인력 지원	15	21
문화예술교육 강사 지원	4	6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10	14
프로그램 리소스(자료) 센터 구축	3	4
기관 내 설비, 장비, 전용 공간 확충 지원	13	18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6	22
관련법 정비	1	1
지식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	5	7
담당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5	7
합계	72	100

[표 6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개별시설, 2014년 기준)

(단위 : %)

	전문인력 지원	강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자료 구축	설비, 공간 등	운영비 지원	관련법 정비	컨설팅 서비스	역량강화 프로그램
문예회관	25	13	13	13	25	-	-	-	13
문화원	21	-	14	-	29	29	-	7	-
도서관	23	5	14	5	14	23	5	9	5
박물관	13	4	17	4	17	22	-	9	13
미술관	25	25	-	-	-	50	-	-	-

주 : 문화원 1곳 무응답으로 제외

5) 분석 종합 및 시사점¹⁸⁾

(1) 문예회관에 대한 시사점

문예회관은 문화·예술 공연 시설의 역할을 하며, 지역별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충남 문예회관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직원(시간제 강사 포함)은 약 1.3명으로 타 시설에 비해 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문예회관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곳(25%)도 있으며, 프로그램의 개수도 1.3개로 타 시설에 비해 현저히 적고, 향후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계획이 없다는 응답(25%)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문예회관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예회관은 한 번도 교육 과정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100%)과 정부 시책으로 인한 예산 지원(33%)이 이루어져야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향후 충남의 문예회관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하는 프로그램(33%)’과 ‘지역공동체 성 함양 프로그램(33%)’을 중시하고 있기에, 다양한 교육 과정의 중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충남 문예회관의 주요 이용 대상은 성인(56.5%)과 노인(20.8%)이 높게 나타났으나, 중점 교육 대상으로 노인(33%)만을 보고 있기에, ‘성인’에 대한 교육 과정을 확대해야 한다.

(2) 지방문화원에 대한 시사점

문화원은 각 지방의 향토문화창달을 위하여 문화 및 사회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체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문화원은 과거부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86%)을 타 시설에 비해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역사회 시민들이 문화욕구에 대한 충족을 목적으로(100%)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문화원은 비교적 성인(38%), 노인(23%), 복합(가족, 23%)을 교육 과정의 중점 대상으로 고르게 분포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중시하고, 사회교육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기관인 만큼 특수계층(0%)에 대한 교육 과정도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18) 문화의 집은 조사된 사례 결과 데이터가 없어서 제외하였다.

예산 지원을 과거부터 받은 경험이 타 시설에 비해 많았으나, 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예산 비중은 타 시설에 비해 월등히 적게 배정하는 것(기관 평균 3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기에 문화원의 자체적인 문화예술교육 예산을 높여야 할 것이다.

(3)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사점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중 도서관은 이용자가 많은 편에 속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85.5개)들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많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단순 관람의 형태를 보이며, 예산 지원을 과거부터 받은 경험이 타 시설에 비해 많았으나, 도서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예산 비중은 월등히 적게 배정하는 것(기관 평균 37백만 원)으로 나타났기에 도서관 자체 문화예술교육의 예산을 높여야 될 것이다.

충남의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하는 프로그램(50%)’을 중시하고 있기에, 향후 다양한 교육 과정의 중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충남 도서관의 주요 이용 대상은 성인(32.8%)과 청소년(24.6%)이 높게 나타났으나, 중점 교육 대상으로 어린이(39%)를 보고 있기에 교육 과정의 중점 대상을 수정 및 확대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은 타 시설에 비해 월등히 많은 문화예술교육의 시간제 강사(30.3명)를 고용했으나, ‘기관의 인프라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문화예술교육을 주업무로 하는 직원의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을 통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시간 강사 교육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4) 박물관에 대한 시사점

충남의 박물관은 상대적으로 많은 이용자가 있는 곳이지만, 절반정도(50%)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시설에 비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의 비중(평균: 90백만 원)이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83%)이 높았고, ‘예산과 제정보’와 ‘기관의 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계획이 없다는 응답(25%)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남의 박물관은 ‘기관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37%)’을 중시하고 있기에, 향후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교육 과정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현재 어린이(이용자 14%)를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과정의 중점 대상이 성인(이용자 44%)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미술관에 대한 시사점

현재 충남의 미술관은 타 시설에 비해 적게 분포(6%)하고 있지만, 타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예술교육 인력(시간제 강사 포함, 5.5명)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 총 예산의 52.6%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배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받았고, ‘지역사회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기준으로 꼽고 있는 부분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외부기관과 문화예술교육 과정의 연계가 모든 미술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의 미술관은 어린이(67%)와 노인(33%)만을 중점 교육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실제 미술관의 이용 연령층은 성인(37.5%), 어린이(22.5)이기에 성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과정의 개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실시할 계획(100%)을 모든 미술관에서 가지고 있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시사점

충남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문화예술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고, 당진문화재단도 당진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면서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의 문화재단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각각 차이가 크게 존재하지 않았으며, 모두 비슷한 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산문화재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었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이 2년간(2014~2015년) 선발되었다가, 올해(2016년 기준)에 탈락한 이유로 차별성 없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유추할 수 있다.

향후 거점의 역할을 하는 충남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간에 교류를 통해 각 문화재단의 주요 이용자와 주변 여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에서도 포함되는 부분인데, 각 시설이 다른 외부기관과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연계한 경험이 81.2%이기에, 일회성이 아닌 다양한 시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7) 분석 종합 및 시사점

전반적인 우리나라 문화기반시설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으로 ‘중점 대상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이용자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각 시설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자의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인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추진과제로 문화취약 계층 대상의 예술교육 접근 기회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충남의 문화기반시설들이 특수 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또한 활발하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할 때 어려운 점으로 ‘담당 인력의 부족’과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꼽혔는데, 충남의 사회문화예술교육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충남의 각 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의 보완이 가장 중요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문화예술교육의 예산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할 것이다. 하지만 각 시설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예산의 비중도 전체 지역 평균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기에, 각 시설별 문화예술교육의 예산도 높여야 한다.

4. 충남의 시설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설문조사 분석

1) 조사 분석의 개요

(1) 조사목적

본 설문조사는 2015년을 기준으로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반 시설 및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목적은 충남 문화기반시설 및 지역문화재단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실태와 문제점 파악 및 계획 등을 조사하여, 향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2) 조사방법 및 대상

설문방법은 면접조사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충남 지역 특성별 대표지역 4개 시·군(천안시·아산시·금산군·청양군)¹⁹⁾의 56개 문화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공공도서관(3곳)의 거절과 폐쇄된 박물관(2곳)을 제외하고, 유효표본 51개의 문화기반시설 설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충남 지역문화재단의 설문 및 분석 대상은 현재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충남문화재단과 아산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요원은 충남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 및 설문의 목적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사전 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원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7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 28일간 현장 방문으로 실시하였다.

19) 충남의 대도시 중에서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중인 천안시·아산시와 농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금산군과 적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청양군을 사례로 채택하였다.

2) 충남 문화기반시설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

(1) 시설 유형에 따른 이용자 분포와 직원 수

충남 문화기반시설 이용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3년과 동일하게 모든 시설에서 성인(33.25%)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문화원과 문예회관이 상대적으로 성인 이용자 비율이 높았던 반면, 2015년에는 미술관(62.5%)과 문화의집(45.0%)이 상대적으로 성인 이용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2] 시설유형에 따른 이용자 분포(2013년 기준)

(단위: %)

연령 구분	유아 (학령기이전)	어린이 (초등학생)	청소년 (중·고등학생)	성인 (20~60세 미만)	노인 (60세 이상)
문예회관	8.7	6.0	8.0	56.5	20.8
문화원	1.3	4.4	6.3	58.0	30.0
도서관	13.4	20.5	24.6	32.8	8.7
박물관	8.9	14.0	18.1	44	15.0
미술관	12.5	22.5	12.5	37.5	15.0
전체 평균	9.0	13.5	13.4	46.0	18.0

[표 63] 시설유형에 따른 이용자 분포(2015년 기준)

(단위: %)

연령 구분	유아 (학령기이전)	어린이 (초등학생)	청소년 (중·고등학생)	성인 (20~60세 미만)	노인 (60세 이상)
문예회관	6.43	11.43	30.00	35.71	13.57
문화의집	5.00	12.50	30.00	45.00	5.00
문화원	0.00	2.86	5.71	33.57	55.00
도서관	8.53	29.74	25.94	29.53	5.72
박물관	6.07	20.71	27.86	31.07	12.00
미술관	2.50	12.50	5.00	62.50	15.00
전체 평균	6.02	19.71	23.54	33.25	15.82

유아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은 2013년과 동일하게 도서관(8.53%)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의 이용률이 높은 시설 역시 도서관(29.74%), 청소년의 이용률이 높은 시설은 문예회관과 문화의집(각 30.0%), 성인의 이용률이 높은 시설은 미술관(62.5%), 노인의 이용률이 높은 시설은 압도적으로 문화원(55.0%)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특수계층의 경우에는 문예회관(2.86%)이 근소하나마 가장 높은 이용 빈도를 보였다.

[표 64] 시설유형에 따른 직원과 시간제 강사(2013년 기준)
(단위: %)

	전체 직원 평균	정규 직 평균	비 정규직 평균	기타 평균	문화예술교육 담당직원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간제 강사 수			전체 (A+B)
					총 인원 (A)	주 업무	부 업무	총 인원 (B)	자체 인력	지원 사업 인력	
문예회관	6.5	5.5	1.0	-	0.8	0.3	0.5	0.5	0.5	-	1.3
문화원	3.8	3	0.4	0.4	2.3	1.8	0.5	11.6	3.4	8.3	13.9
도서관	7.5	5.9	1.3	0.3	2.1	1.5	0.5	30.3	27.8	2.5	32.4
박물관	12.5	7.8	4.2	0.5	2.7	1.0	1.7	1.7	0.9	0.8	4.4
미술관	4.0	1.5	2	0.5	2.5	2.0	0.5	3	0.5	2.5	5.5
전체 평균	6.9	4.7	1.8	0.3	2.1	1.3	0.7	9.4	6.6	2.8	11.5

[표 65] 시설유형에 따른 직원과 시간제 강사(2015년 기준)
(단위: %)

	전체 직원 평균	정규 직 평균	비 정규직 평균	기타 평균	문화예술교육 담당직원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간제 강사 수			전체 (A+B)
					총 인원 (A)	주 업무	부 업무	총 인원 (B)	자체 인력	지원 사업 인력	
문예회관	12.71	9.86	2.86	0	6.17	3.50	0	4.33	3.17	1.83	10.5
문화의집	6.00	3.50	2.00	.50	2.0	.00	.00	15.0	15.0	30.0	32.0
문화원	3.43	2.14	.43	.86	1.29	1.67	.00	7.83	1.17	8.17	9.12
도서관	8.00	6.32	1.74	.16	2.61	1.53	.25	6.82	5.06	2.73	9.43
박물관	19.64	13.0	6.36	1.29	6.36	2.64	.10	4.10	3.50	4.13	10.46
미술관	4.50	3.50	1.00	.00	4.00	4.00	.00	.00	.00	.00	4.00
전체 평균	11.00	7.74	2.96	.55	3.80	2.14	.13	6.19	4.25	4.43	9.99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전체직원 평균은 11명으로 2013년 6.9명에 비해 월등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정규직은 7.74명, 비정규직은 2.96명이다. 또한 전체직원 중 문화예술교육 담당직원은 평균 3.80명이며, 이 중 박물관이 6.36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수로 나타났고 문예회관 6.17명, 미술관 4명, 도서관 2.61명, 문화의 집 2.0명, 문화원 1.29명의 순으로 밝혀졌다.

문화예술교육의 시간제 강사의 경우 총인원 6.19명이며, 이 중 자체예산인력이 가장 높은 곳은 문화의집(15명)으로 나타났고 지원사업 예산인력이 가장 높은 곳 역시 문화의 집(30명)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직원과 강사 수(A+B)는 9.99명으로 2013년 11.5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문화예술교육 담당직원은 증가하였고, 시간제 강사 수는 감소 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문화의 집(32명)은 타 시설에 비해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술관(4명)은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 시설 유형에 따른 예산

2015년을 기준으로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총 예산의 평균은 약 1,321백만원으로 2013년의 317백만원보다 월등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총예산 평균은 약 188백만원이며, 이 중 문예회관이 약 438백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낮은 곳은 미술관(5백만원)으로 밝혀졌다. 반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자체예산은 미술관(90백만원)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외부지원예산은 문화원(147백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술관이 가장 낮게(10백만원) 나타났다.

[표 66] 시설유형에 따른 예산(2013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기관 총 예산	기관 평균	전체 평균
문예회관	237	59	85
문화원	288	36	138
도서관	409	37	161
박물관	633	90	122
미술관	19	10	174
전체 평균	317	46	135

주 : 문예회관 1곳, 박물관 5곳 무응답으로 제외

[표 67] 시설유형에 따른 예산(2015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기관 총 예산	기관 평균	전체 평균
문예회관	704.86	438.33	45.00
문화의집	250.00	112.50	.00
문화원	292.11	145.30	40.17
도서관	866.74	168.11	17.50
박물관	3040.86	162.85	37.29
미술관	450.00	5.00	90.00
전체 평균	1321.94	188.93	30.86

(3) 시설 유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① 시설유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여부

충남의 문화예술교육(2015년 기준)을 실시한 시설의 전체 비율은 93.9%로 2013년 83.2%에 비해 다소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은 모두 실시하였으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미실시한 비율이 2.0%로 매우 미미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2013년 미실시 비율(문예회관 25%, 도서관 9%, 박물관 50%)과 비교해볼 때 미실시 비율이 매우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프로그램 수는 18.26개이고, 이 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는 6.46개로 전체의 35.4%의 비율을 보였다. 문화의 집이 가장 높은 1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술관이 가장 낮은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68] 시설유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2013년 기준)
(단위: %)

구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평균 수		
	실시(%)	미실시(%)	단순 관람, 감상, 전시형태	그 외 형태	총 프로그램
문예회관	75	25	-	1.3	1.3
문화원	100	-	7.6	10.5	18.1
도서관	91	9	66.8	18.7	85.5
박물관	50	50	1.3	4.2	5.5
미술관	100	-	-	3.5	3.5
전체 평균	83.2	16.8	15.1	7.6	22.8

주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 항목 문화원 1곳 무응답으로 제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평균 수' 항목 문예회관 1곳, 문화원 1곳, 도서관 1곳, 박물관 6곳 제외

[표 69] 시설유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2015년 기준)
(단위: %)

구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평균 수(개)		
	실시(%)	미실시(%)	단순 관람, 감상, 전시형태	그 외 형태	총 프로그램
문예회관	12.2	.0	36.00	6.17	17.2
문화의집	4.1	.0	31.00	19.00	61.3
문화원	14.3	.0	10.57	7.14	67.6
도서관	36.7	2.0	20.56	6.72	32.7
박물관	24.5	2.0	9.67	4.08	42.2
미술관	2.0	2.0	2.00	2.00	100
전체 평균	93.9	6.1	18.26	6.46	35.4

② 시설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예산 지원 유무 및 시행요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시설 중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는 전체에서 81.6%이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가 12.2%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는 52.6%이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음이 45.4%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프로그램 예산지원 경험은 매우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시설 중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는 전체에서 81.6%이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가 12.2%로 쪼뻤다. 이는 2013년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는 52.6%이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음이 45.4%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프로그램 예산지원 경험은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70) 시설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받은 경험과 시행요인(2013년 기준)
(단위: %)

구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산 지원 여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행요인		
	과거 받았고, 2013년에 받음	과거에 받고, 2013년 받지 않음	과거에 받지 않고, 2013년에 처음 받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음	자체적인 필요가 더 중요함	외부의 지원에 의해 영향 받음	두 요인 모두 비슷한 영향 받음
문예회관	-	-	-	100	67	-	33
문화원	86	-	-	14	14	43	43
도서관	60	10	-	30	80	-	20
박물관	17	-	-	83	83	-	17
미술관	100	-	-	-	-	-	100
전체 평균	52.6	2	-	45.4	48.8	8.6	42.6

주 : 문예회관 1곳, 문화원 1곳, 도서관 1곳, 박물관 6곳 무응답으로 제외

(표 71) 시설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받은 경험과 시행요인(2015년 기준)
(단위: %)

구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산 지원 여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행요인		
	과거에 받았고, 2015년에도 받음	과거에 받았지만, 2015년받지 않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음	자체적인 필요가 더 중요함	외부의 지원에 의해 영향 받음	두 요인 모두 비슷한 영향 받음
문예회관	12.2	.0	12.2	11.8	.0	2.0
문화의집	4.1	.0	4.1	3.9	.0	.0
문화원	10.2	4.1	14.3	3.9	3.9	5.9
도서관	32.7	.0	38.8	17.6	11.8	7.8
박물관	20.4	2.0	26.5	21.6	3.9	2.0
미술관	2.0	.0	4.1	3.9	.0	.0
전체 평균	81.6	6.1	12.2	62.7	19.6	17.6

시설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행요인으로는 자체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2.7%, 외부의 지원에 의해 영향 받음이 19.6%, 두요인 모두 비슷한 영향 받음이 17.6%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의 결과에서는 자체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8.8%, 외부의 지원에 의해 영향 받음이 8.6%, 두 요인 모두 비슷한 영향 받음이 42.6%로 나타났었는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행요인은 자체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중 박물관이 자체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1.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③ 문화예술프로그램 개설 기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설기준으로는 지역사회 시민들의 문화 욕구충족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3년도에도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난 프로그램 개설기준이다. 그 다음으로 정부시책으로 인한 예산지원이 12.6%, 기관의 사업방침이 10.6%, 관객개발확보차원 8.5%, 다른 기관의 후원 및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2.1%의 순으로 드러났다.

[표 7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설 기준(2013년 기준)

(단위: %)

구분	기관의 사업방침	지역사회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정부시책으로 인한 예산 지원	기관 홍보
문예회관	33	33	33	-
문화원	-	100	-	-
도서관	30	60	-	10
박물관	50	33	17	-
미술관	-	100	-	-
전체평균	23	65	10	2

주 : 문예회관 1곳, 문화원 1곳, 도서관 1곳, 박물관 6곳 무응답으로 제외

[표 7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설 기준(2015년 기준)

(단위: %)

구분	기관의 사업방침	지역사회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정부시책으 로 인한 예산 지원	다른기관과의 후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관객개발 확보차원	전체
문예회관	4.3	4.3	2.1	.0	2.1	12.8
문화의집	.0	4.3	.0	.0	.0	4.3
문화원	2.1	10.6	2.1	.0	.0	14.9
도서관	2.1	29.8	4.3	2.1	.0	38.3
박물관	2.1	14.9	4.3	.0	6.4	27.7
미술관	.0	2.1	.0	.0	.0	2.1
전체평균	10.6	66.0	12.8	2.1	8.5	100.0

④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유무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유무에는 있다 17%, 없다 72.3%, 수강료는 받지 않고 재료비만 받음 8.5%로 수강료는 없다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유무(2015년 기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수강료는 받지 않고, 재료비만 받음	기타	전체
문예회관	6.4	6.4	.0	.0	12.8
문화의집	.0	4.3	.0	.0	4.3
문화원	6.4	8.5	.0	.0	14.9
도서관	4.3	25.5	8.5	.0	38.3
박물관	.0	25.5	.0	2.1	27.7
미술관	.0	2.1	.0	.0	2.1
전체평균	17.0	72.3	8.5	2.1	100.0

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

충남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 1순위는 예산재정확보 27.5%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2순위는 기관의 전문 전담 인력부족 17.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2013년 조사결과에서도 예산재정확보(19%)와 기관이 인력부족(16%)이 각 1, 2순위로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표 7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과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
(전체시설, 2013년 기준)

구분	빈도	퍼센트(%)
참여자 인식 부재	3	5
예산, 제정확보	19	29
기관의 인력부족	16	24
기관의 인프라 부족(공간, 설비 등)	12	18
기획 및 수행능력 부족	2	3
참여자 저조	10	15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4	6
합계	66	100

[표 7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 1순위(전체시설, 2015년 기준)

구분	빈도	퍼센트(%)
참여자인식부재	13	25.5
예산재정확보	14	27.5
기관의 전문 전담 인력부족	8	15.7
기관 담당자또는 관계자 마인드부족	5	9.8
기관 내 설비 장비 공간 등 인프라부족	6	11.8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저조(홍보부족)	3	5.9
별다른 어려운 점 없다	2	3.9
합계	51	100.0

[표 7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 2순위(전체시설, 2015년 기준)

구분	빈도	퍼센트(%)
참여자인식부재	7	13.7
예산재정확보	6	11.8
기관의 전문 전담 인력부족	9	17.6
기관 담당자또는 관계자 마인드부족	6	11.8
기관 내 설비 장비 공간 등 인프라부족	8	15.7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저조(홍보부족)	4	7.8
별다른 어려운 점 없다	4	7.8
합계	2	3.9

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

충남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못하는 이유 1순위로 예산재정확보의 어려움이 27.5%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뒤로 참여자의 인식부재 25.5%, 기관의 전문 전담 인력 부족 15.7%, 기관 내 설비장비 공간 등 인프라부족 11.8%, 기관담당자 또는 관계자마인드부족 9.8%,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저조 5.9%, 별다른 어려움 없다 3.9%의 순으로 꼽혔다. 이 중 도서관이 예산재정확보와 참여자인식부재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8]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과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개별시설, 2013년 기준)
(단위: %)

구분	참여자 인식 부재	예산, 제정확보	기관의 인력부족	기관의 인프라 부족	기획 및 수행능력 부족	참여자 저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문예회관	-	-	25	-	-	25	50
문화원	8	31	15	31	-	15	-
도서관	5	18	18	27	5	23	5
박물관	4	39	35	9	4	9	-
미술관	-	50	25	-	-	-	25

주 : 문예회관 1곳, 문화원 1곳, 도서관 1곳, 박물관 6곳 무응답으로 제외

[표 7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 1순위(개별시설, 2015년 기준)

구분	참여자 인식 부재	예산 재정 확보	기관의 인력부족	관계자 마인드부족	인프라 부족	참여자 저조(홍보 부족)	별다른 어려운 점 없다	전체
문예회관	3.9	3.9	.0	2.0	2.0	2.0	.0	13.7
문화의집	.0	2.0	.0	2.0	.0	.0	.0	3.9
문화원	3.9	5.9	2.0	.0	2.0	.0	.0	13.7
도서관	11.8	9.8	3.9	3.9	5.9	2.0	.0	37.3
박물관	3.9	5.9	7.8	2.0	2.0	2.0	3.9	27.5
미술관	2.0	.0	2.0	.0	.0	.0	.0	3.9
전체	25.5	27.5	15.7	9.8	11.8	5.9	3.9	100.0

[표 8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 2순위(개별시설, 2015년 기준)

구분	참여자 인식 부재	예산 재정보 확보	기관 의 인력 부족	관계 자 마인 드부 족	인프 라부 족	기획 및 수행 능력 부족	참여자 저조(홍보 부족)	타 기관 과의 협력 미흡	별다 른 어려 운점 없다	기타	전체
문예회관	.0	4.1	2.0	2.0	2.0	.0	2.0	2.0	.0	.0	14.3
문화의집	.0	2.0	.0	2.0	.0	.0	.0	.0	.0	.0	4.1
문화원	2.0	2.0	.0	.0	4.1	2.0	.0	.0	.0	4.1	14.3
도서관	8.2	2.0	12.2	4.1	.0	6.1	4.1	.0	2.0	.0	38.8
박물관	4.1	2.0	2.0	4.1	8.2	.0	2.0	2.0	.0	.0	24.5
미술관	.0	.0	2.0	.0	2.0	.0	.0	.0	.0	.0	4.1
전체	14.3	12.2	18.4	12.2	16.3	8.2	8.2	4.1	2.0	4.1	100.0

충남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못하는 이유 2순위는 기관의 전문 전담인력부족 18.4%, 기관 내 설비 장비 공간 등 인프라부족 16.3%, 참여자 인식부재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은 1순위 예산재정확보의 어려움, 2순위 기관의 전문 전담 인력의 부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3년과 동일한 결과이다.

⑥ 각 시설별 문화예술교육의 여건

충남의 문화예술교육의 여건을 조사한 결과, 2014년도에는 문화예술교육중시(3.9)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2015년에 조사에서는 수행시설과 장비구비(4.02)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2014년에는 강사인력구인수월(2.7)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반면, 2015년에는 전담인력 및 조직구축(3.47)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2015년 조사결과 3점(보통) 이상의 높은 점수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 각 시설별 문화예술교육의 여건(2014년 기준)

(단위 : 점수(5점 만점), 평균)

구분	전담 인력 및 조직 구축	문화예술교육 중시	수행시설과 장비 구비	자체 예산 확보	지역주민들의 관심	강사인력 구인 수월
문예회관	3.0	3.3	3.0	3.3	3.5	2.3
문화원	3.0	3.9	3.1	2.4	3.1	2.7
도서관	3.1	3.7	3.2	3.5	3.3	2.5
박물관	2.5	3.5	3.4	3.3	3.3	2.8
미술관	4.0	5.0	5.0	3.5	4.5	3.0
전체 평균	3.1	3.9	3.5	3.2	3.5	2.7

주 : 문화원 1곳 무응답으로 제외 및 평균으로 계산함

[표 82] 각 시설별 문화예술교육의 여건(2015년 기준)

(단위 : 점수(5점 만점), 평균)

구분	전담 인력 및 조직 구축	문화예술교육 중시	수행시설과 장비 구비	자체 예산 확보	지역주민들의 관심	강사인력 구인 수월
문예회관	3.57	3.29	3.86	3.57	3.57	3.57
문화의집	3.50	4.00	4.50	4.00	4.00	4.00
문화원	3.86	4.14	4.14	4.29	4.14	4.43
도서관	3.42	4.00	4.00	3.95	3.74	3.68
박물관	3.29	3.86	4.07	3.79	4.00	3.79
미술관	3.50	4.00	3.50	3.50	4.00	4.00
전체 평균	3.47	3.88	4.02	3.88	3.86	3.82

⑦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계획여부

충남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향후 실시 계획여부를 조사한 결과, 예 90.2%, 아니오 9.8%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와 비교하면 아니오가 15.4%에서 9.8%로 낮아져 충남지역의 향후 문화예술프로그램 실시 계획이 이전과 비교하여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83] 2015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계획 여부(2014년 기준)

(단위 : %)

구분	있음	없음
문예회관	75	25
문화원	100	-
도서관	73	27
박물관	75	25
미술관	100	-
전체 평균	84.6	15.4

[표 84] 2016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계획 여부(2015년 기준)
(단위: %)

구분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계획	
	예	아니오
문예회관	11.8	2.0
문화의집	3.9	.0
문화원	11.8	2.0
도서관	35.3	2.0
박물관	23.5	3.9
미술관	3.9	.0
전체 평균	90.2	9.8

⑧ 중점교육대상(전체시설)

충남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점교육대상 1순위로는 어린이 39.2%, 청소년 19.6%, 성인 17.6%, 복합(가족 등) 9.8%, 기타 3.9%, 유아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청소년 41.2%, 성인 25.5%, 노인 5.9%, 유아, 어린이, 복합(가족 등), 특수목적계층 각 3.9%의 순으로 드러났다. 즉, 중점교육대상으로 1순위는 어린이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2순위는 청소년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2014년 조사결과에서는 어린이가 31.0%, 성인 24.0%, 청소년 14.0%의 순으로 보였다. 즉, 중점교육대상 1순위는 어린이로 동일하지만 2순위로는 성인에서 청소년으로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5] 중점 교육 대상(전체시설, 2014년 기준)

구분	빈도	퍼센트(%)
유아	2	3
어린이	18	31
청소년	8	14
성인(20-60세)	14	24
노인(60세 이상)	7	12
복합(가족 등)	7	12
특수계층(취약 계층 등)	2	3
합계	58	100

[표 86] 중점 교육 대상 1순위(전체시설, 2015년 기준)

구분	빈도	퍼센트(%)
유아	1	2.0
어린이	20	39.2
청소년	10	19.6
성인	9	17.6
복합(가족 등)	5	9.8
기타	2	3.9
합계	47	92.2

주 : 시스템 결측값 4곳, 7.8% 포함하여 총합 51곳, 100%

[표 87] 중점 교육 대상 2순위(전체시설, 2015년 기준)

구분	빈도	퍼센트(%)
유아	2	3.9
어린이	2	3.9
청소년	21	41.2
성인	13	25.5
노인	3	5.9
복합(가족 등)	2	3.9
기타	2	3.9
합계	45	88.2

주 : 시스템 결측값 6곳, 11.8% 포함하여 총합 51곳, 100%

⑨ 중점교육대상(개별시설)

개별 시설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점교육 대상 1순위는 전체의 경우 어린이 42.6%, 청소년 21.3%, 성인 19.1%, 복합(가족 등) 10.6%, 기타 4.3%, 유아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시설별로 살펴보면, 유아는 도서관에서 2.1%로 나타났고, 어린이 역시 도서관이 가장 높은 분포인 19.1%를 보였고, 청소년 도서관 12.8%, 성인 문예회관 8.5%, 복합(가족 등) 박물관 6.4%, 기타 문화원 4.3%로 나타났다. 개별 시설별 비율은 도서관이 전체 38.3%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박물관 25.5%, 문예회관 14.9%, 문화원 12.8%, 문화의 집과 미술관 각 4.3%로 드러났다.

개별 시설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점교육 대상 2순위는 전체의 경우 청소년 46.7%, 성인 28.9%, 노인 6.7%, 유아, 어린이, 복합(가족 등), 특수목적계층 각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시설별로는 유아는 도서관과 박물관 각 2.2%로 조사되었고, 어린이 역시 도서관, 박물관 각 2.2%, 청소년도 도서관, 박물관 각 13.3%, 성인은 도서관 20%, 노인 문화원 4.4%, 복합(가족 등) 도서관, 박물관 각 2.2%, 특수목적계층 문예회관, 미술관 각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시설별 비율은 도서관 40%, 박물관 26.7%, 문예회관 15.6%, 문화원 8.9%, 문화의 집과 미술관 각 4.4%의 순으로 드러났다.

〔표 88〕 중점 교육 대상(개별시설, 2014년 기준)

(단위: %)

구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20-60세)	노인 (60세이상)	복합 (가족 등)	특수계층 (취약계층 등)
문예회관	-	17	17	17	33	17	-
문화원	-	8	8	38	23	23	-
도서관	6	38	6	31	-	13	6
박물관	6	39	22	17	6	6	6
미술관	-	67	-	-	33	-	-

주 : 문예회관 1곳, 문화원 1곳, 도서관 3곳, 박물관 2곳 무응답으로 제외

〔표 89〕 중점 교육 대상 1순위(개별시설, 2015년 기준)

(단위: %)

구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20-60세)	복합 (가족 등)	기타	전체
문예회관	.0	4.3	.0	8.5	2.1	.0	14.9
문화의집	.0	2.1	2.1	.0	.0	.0	4.3
문화원	.0	4.3	.0	4.3	.0	4.3	12.8
도서관	2.1	19.1	12.8	2.1	2.1	.0	38.3
박물관	.0	10.6	6.4	2.1	6.4	.0	25.5
미술관	.0	2.1	.0	2.1	.0	.0	4.3
전체	2.1	42.6	21.3	19.1	10.6	4.3	100.0

[표 90] 중점 교육 대상 2순위(개별시설, 2015년 기준)

(단위: %)

구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20-60세)	노인 (60세 이상)	복합 (가족 등)	특수계층 (취약계층 등)	전체
문예회관	.0	.0	11.1	.0	2.2	.0	2.2	15.6
문화의집	.0	.0	2.2	2.2	.0	.0	.0	4.4
문화원	.0	.0	4.4	.0	4.4	.0	.0	8.9
도서관	2.2	2.2	13.3	20.0	.0	2.2	.0	40.0
박물관	2.2	2.2	13.3	6.7	.0	2.2	.0	26.7
미술관	.0	.0	2.2	.0	.0	.0	2.2	4.4
전체	4.4	4.4	46.7	28.9	6.7	4.4	4.4	100.0

⑩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전체시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1순위로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하는 프로그램이 47.1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문화체험기회 및 향유역량강화프로그램 33.3, 여가활용 및 가족프로그램 13.7%, 창의 체험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5.9%의 순으로 드러났다. 2순위로는 문화체험기회 및 향유역량강화프로그램 31.4%, 여가활용 및 가족프로그램 25.5%,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하는 프로그램 19.6%, 지역공동체성함양프로그램 3.9%, 기관고유의 특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1순위에서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에서는 문화체험기회 및 향유역량강화프로그램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2014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하는 프로그램이 36%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체험기회 및 향유역량강화프로그램 22%로 드러났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2014년과 2015년 비교한 결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1]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전체시설, 2014년 기준)

구분	빈도	퍼센트(%)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하는 프로그램	21	36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	13	22
여가활용 및 가족프로그램	6	10
창의체험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7	12
지역공동체성 함양 프로그램	2	3
기관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10	17
합계	59	100

[표 92]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순위(전체시설, 2015년 기준)

구분	빈도	퍼센트(%)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하는 프로그램	24	47.1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	17	33.3
여가활용 및 가족프로그램	7	13.7
창의체험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3	5.9
합계	51	100.0

[표 93]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순위(전체시설, 2015년 기준)

구분	빈도	퍼센트(%)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하는 프로그램	10	19.6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	16	31.4
여가활용 및 가족프로그램	13	25.5
창의체험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9	17.6
지역공동체성 함양 프로그램	2	3.9
기관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1	2.0
합계	51	100.0

⑪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개별시설)

개별시설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순위는 도서관 37.3%, 박물관 27.5%, 문예회관, 문화원 각 13.7%, 문화의 집과 미술관 각 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하는 프로그램은 도서관(21.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박물관(15.7%)이 가장 높으며, 여가활용 및 가족프로그램은 문예회관과 박물관 각 5.9%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창의체험 및 학교연계 프로그램은 문예회관, 도서관, 미술관 각 2.0%의 수치를 보였다.

개별시설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순위에서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하는 프로그램은 박물관(11.8%),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도서관(15.7%), 여가활용 및 가족프로그램 도서관(9.8%), 창의체험 및 학교연계프로그램은 도서관(7.8%), 지역공동체성함양프로그램은 문예회관과 문화원(각 2.0%), 기관고유의특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은 박물관(2.0%)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도 조사결과에서도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결과이므로,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94]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개별시설, 2014년 기준)
(단위: %)

구분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하는 프로그램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가활용 및 가족 프로그램	창의체험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성 함양 프로그램	기관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문예회관	33	-	17	17	33	-
문화원	31	23	23	8	-	15
도서관	50	19	6	19	-	6
박물관	32	26	-	5	-	37
미술관	25	25	25	25	-	-

주 : 문예회관 1곳, 문화원 1곳, 도서관 3곳, 박물관 2곳 무응답으로 제외

[표 95]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순위(개별시설, 2015년 기준)
(단위: %)

구분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하는 프로그램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가활용 및 가족프로그램	창의체험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전체
문예회관	3.9	2.0	5.9	2.0	13.7
문화의집	3.9	.0	.0	.0	3.9
문화원	9.8	2.0	2.0	.0	13.7
도서관	21.6	13.7	.0	2.0	37.3
박물관	5.9	15.7	5.9	.0	27.5
미술관	2.0	.0	.0	2.0	3.9
전체	47.1	33.3	13.7	5.9	100.0

[표 96]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순위(개별시설, 2015년 기준)
(단위: %)

구분	지역주민 의 문화적 수요 충족하는 프로그램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가활용 및 가족프로 그램	창의체험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지역공동 체성 함양 프로그램	기관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전체
문예회관	3.9	2.0	2.0	3.9	2.0	.0	13.7
문화의집	.0	2.0	2.0	.0	.0	.0	3.9
문화원	.0	7.8	2.0	2.0	2.0	.0	13.7
도서관	3.9	15.7	9.8	7.8	.0	.0	37.3
박물관	11.8	2.0	7.8	3.9	.0	2.0	27.5
미술관	.0	2.0	2.0	.0	.0	.0	3.9
전체	19.6	31.4	25.5	17.6	3.9	2.0	100.0

⑫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전체시설)

전체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1순위 조사결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 인력 지원이 31.4%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강사지원 21.6%,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개발 13.7%, 기관 내 설비장비 전용 공간 확충지원 11.8%,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비지원 9.8%, 프로그램리소스센터 구축 7.8%, 문화 활동 동아리 및 동아리연합체육성과 기타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2순위 조사결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비지원 25.5%, 기관 내 설비장비 전용공간 확충 지원 19.6%,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 인력 지원과 우수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이 13.7%, 문화예술교육강사지원 9.8%, 프로그램리소스센터 구축 7.8%, 문화 활동 동아리 및 동아리연합체육성 5.9%, 지식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와 담당인력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이 각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3순위 조사결과, 2순위와 동일하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비지원(25.5%)이 가장 높은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리소스센터 구축 19.6%, 문화예술교육강사지원과 기관 내 설비 장비전용 공간 확충 지원이 각 11.8%,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 인력 지원과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개발이 각 9.8%, 담당인력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5.9%, 문화 활동 동아리 및 동아리 연합체 육성 2.0%의 순으로 드러났다.

전체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1순위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부문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 인력 지원이고, 2순위에서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비지원, 3순위에서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비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 인력 지원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비지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조사결과에서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비지원 22%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 인력 지원 21%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순위는 2014년과 2015년 조사결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97]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전체시설, 2014년 기준)

구분	빈도	퍼센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 인력 지원	15	21
문화예술교육 강사 지원	4	6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10	14
프로그램 리소스(자료) 센터 구축	3	4
기관 내 설비, 장비, 전용 공간 확충 지원	13	18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6	22
관련법 정비	1	1
지식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	5	7
담당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5	7
합계	72	100

[표 98]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1순위(전체시설, 2015년 기준)

구분	빈도	퍼센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 인력 지원	16	31.4
문화예술교육 강사 지원	11	21.6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7	13.7
프로그램 리소스(자료) 센터 구축	4	7.8
기관 내 설비, 장비, 전용 공간 확충 지원	6	11.8
문화 활동 동아리 및 동아리 연합체 육성	1	2.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5	9.8
기타	1	2.0
합계	51	100.0

[표 9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2순위(전체시설, 2015년 기준)

구분	빈도	퍼센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 인력 지원	7	13.7
문화예술교육 강사 지원	5	9.8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7	13.7
프로그램 리소스(자료) 센터 구축	4	7.8
기관 내 설비, 장비, 전용 공간 확충 지원	10	19.6
문화 활동 동아리 및 동아리 연합체 육성	3	5.9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3	25.5
지식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	1	2.0
담당인력역량강화프로그램지원	1	2.0
합계	51	100.0

[표 10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3순위(전체시설, 2015년 기준)

구분	빈도	퍼센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 인력 지원	5	9.8
문화예술교육 강사 지원	6	11.8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5	9.8
프로그램 리소스(자료) 센터 구축	10	19.6
기관 내 설비, 장비, 전용 공간 확충 지원	6	11.8
문화 활동 동아리 및 동아리 연합체 육성	1	2.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3	25.5
담당인력역량강화프로그램지원	3	5.9
합계	49	96.1

주 : 시스템 결측값 2곳, 3.9% 포함하여 총합 51곳, 100%

⑬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개별시설)

2014년 개별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조사결과, 각 영역별 높은 분포의 기관시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전문인력 지원은 문예회관과 미술관 각 25%, 강사지원 미술관(25%), 프로그램개발 박물관(17%), 자료구축 문예회관(13%), 설비, 공간 등은 문화원(29%), 운영비지원은 문화원(29%), 관련법정비는 도서관(5%), 컨설팅서비스는 도서관과 박물관 각 9%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역량강화프로그램은 문예회관과 박물관 각 13%로 밝혀졌다.

2015년 개별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1순위 조사결과, 각 영역별 높은 분포를 보이는 기관시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기획 운영전문 인력지원은 도서관(13.7%)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문화예술교육강사지원 역시 도서관(9.8%), 우수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은 문예회관과 도서관, 박물관 각 3.9%로 드러났으며, 프로그램리소스센터 구축은 문화의집,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각 2.0%의 수치를 보였다. 기관 내 설비 장비전용 공간 확충 지원은 도서관(5.9%), 문화 활동 동아리 및 동아리 연합체 육성은 문예회관(2.0%),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문화원(5.9%), 기타는 박물관(2.0%)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개별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2순위 조사결과, 각 영역별 높

은 분포를 보이는 기관시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기획 운영전문 인력지원은 도서관(9.8%), 문화예술교육강사지원 문화원과 도서관 각 3.9%, 우수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은 도서관(7.8%), 프로그램리소스센터 구축 역시 도서관(3.9%), 기관 내 설비 장비전용 공간 확충 지원은 박물관(7.8%), 문화 활동 동아리 및 동아리 연합체 육성은 문화원과 도서관, 박물관 각 2.0%로 나타났고,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도서관과 박물관 각 7.8%, 지식정보 및 컨설팅서비스는 문화원 2.0%, 담당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은 박물관(2.0%)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개별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3순위 조사결과, 각 영역별 높은 분포를 보이는 기관시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기획 운영전문 인력지원은 박물관(6.1%), 문화예술교육강사지원은 도서관(6.1%), 우수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 역시 도서관(6.1%), 프로그램리소스센터 구축은 박물관(8.2%), 기관 내 설비 장비전용 공간 확충 지원은 도서관(6.1%), 문화 활동 동아리 및 동아리 연합체 육성은 문예회관(2.0%),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도서관(12.2%), 담당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은 도서관(4.1%)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10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개별시설, 2014년 기준)

(단위: %)

구분	전문인력 지원	강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자료 구축	설비, 공간 등	운영비 지원	관련법 정비	컨설팅 서비스	역량강화 프로그램
문예회관	25	13	13	13	25	-	-	-	13
문화원	21	-	14	-	29	29	-	7	-
도서관	23	5	14	5	14	23	5	9	5
박물관	13	4	17	4	17	22	-	9	13
미술관	25	25	-	-	-	50	-	-	-

주 : 문화원 1곳 무응답으로 제외

[표 10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자원 1순위(개별시설, 2015년 기준)
(단위: %)

구분	기획 운영전문 인력지원	교육강사 지원	모델 개발	리소스 센터 구축	공간 확충 지원	동아리 연합체 육성	운영비 지원	기타	전체
문예회관	.0	5.9	3.9	.0	2.0	2.0	.0	.0	13.7
문화의집	2.0	.0	.0	2.0	.0	.0	.0	.0	3.9
문화원	2.0	2.0	.0	2.0	2.0	.0	5.9	.0	13.7
도서관	13.7	9.8	3.9	2.0	5.9	.0	2.0	.0	37.3
박물관	11.8	3.9	3.9	2.0	2.0	.0	2.0	2.0	27.5
미술관	2.0	.0	2.0	.0	.0	.0	.0	.0	3.9
전체	31.4	21.6	13.7	7.8	11.8	2.0	9.8	2.0	100.0

[표 10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자원 2순위(개별시설, 2015년 기준)
(단위: %)

구분	기획 운영 전문 인력 지원	교육 강사 지원	모델 개발	리소 스 센터 구축	공간 확충 지원	동아 리연 합체 육성	운영 비지 원	컨설 팅 서비 스	담당 인력 역량 강화 지원	전체
문예회관	2.0	.0	2.0	.0	5.9	.0	3.9	.0	.0	13.7
문화의집	.0	.0	.0	.0	.0	.0	3.9	.0	.0	3.9
문화원	2.0	3.9	.0	.0	3.9	2.0	.0	2.0	.0	13.7
도서관	9.8	3.9	7.8	3.9	2.0	2.0	7.8	.0	.0	37.3
박물관	.0	2.0	3.9	2.0	7.8	2.0	7.8	.0	2.0	27.5
미술관	.0	.0	.0	2.0	.0	.0	2.0	.0	.0	3.9
전체	13.7	9.8	13.7	7.8	19.6	5.9	25.5	2.0	2.0	100.0

[표 10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자원 3순위(개별시설, 2015년 기준)
(단위: %)

구분	기획 운영 전문 인력 지원	교육 강사 지원	모델 개발	리소스 센터 구축	공간 확충 지원	동아리 연합체 육성	운영비 지원	담당 인력 역량강 화지원	전체
문예회관	2.0	.0	.0	2.0	2.0	2.0	4.1	2.0	14.3
문화의집	.0	2.0	.0	2.0	.0	.0	.0	.0	4.1
문화원	.0	2.0	.0	2.0	4.1	.0	4.1	.0	12.2
도서관	.0	6.1	6.1	4.1	6.1	.0	12.2	4.1	38.8
박물관	6.1	2.0	4.1	8.2	.0	.0	6.1	.0	26.5
미술관	2.0	.0	.0	2.0	.0	.0	.0	.0	4.1
전체	10.2	12.2	10.2	20.4	12.2	2.0	26.5	6.1	100.0

2015년 개별시설별 개설 프로그램 운영수를 대상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일반성인과 아동 관련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아는 도서관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이 많았고, 아동은 문화의 집, 청소년 역시 문화의집, 일반성인과 노인은 문화원, 다문화는 문화의 집, 가족단위와 기타는 박물관인 것으로 꼽혔다. 전체로 보았을 때, 문화의 집(8.50)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문화원(7.14), 도서관(6.61), 문예회관(6.17), 박물관(4.08), 미술관(2.00)의 순으로 드러났다.

[표 10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대상(2015년 기준)
(단위: 개)

구분	유아	아동	청소년	일반 성인	노인	다문화	가족 단위	기타	전체
문예회관	.50	1.33	.33	1.67	.50	.00	1.83	.00	6.17
문화의집	.50	3.50	1.00	2.50	.00	1.00	.00	.00	8.50
문화원	.00	.14	.57	4.00	2.14	.00	.14	.00	7.14
도서관	.94	2.33	.94	1.28	.39	.17	.56	.00	6.61
박물관	.00	1.08	.33	.50	.17	.00	1.58	.42	4.08
미술관	.00	.00	.00	2.00	.00	.00	.00	.00	2.00
전체 평균	.46	1.54	.63	1.61	.59	.11	.89	.11	5.96

3) 충남 지역문화재단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

충남 지역문화재단의 설문 및 분석 대상은 현재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충남문화재단과 아산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으로 하였다. 충남의 지역문화재단의 현황에 대한 분석은 인력현황 및 사업 분야, 사업 환경과 여건, 사업 운영과 관리, 향후 시행 계획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2013년 기준)』의 12개의 기초문화재단 결과 데이터(pp.118~127)와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²⁰⁾

(1) 인력현황 및 사업 분야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인력현황은 전체 직원 수는 31명이며, 이 중 정규직은 12명, 기간제 15명, 기타 4명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중 자체예산 고용 인력은 12명으로 전체 정규직 모두가 자체예산 고용 인력이었다. 기간제의 경우에는 자체예산 고용 인력은 4명이고, 지원 사업 고용 인력은 1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106]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인력현황 및 교육담당인력 고용형태(2015년 기준)

구분	전체	정규직			기간제			기타 전체 직원수
		자체예산 고용인력	지원사업 고용인력	총 인원	자체예산 고용인력	지원사업 고용인력	총 인원	
빈도	31	12	0	12	4	10	15	4
백분율	100	38.7	0	38.7	12.9	32.3	48.4	12.9

20) 본 연구에서 충남문화재단은 광역문화재단이지만, 전국 기초문화재단의 설문 결과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여타의 광역문화재단보다 기초문화재단과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또한 충남문화재단은 충남의 기초문화재단(아산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 천안문화재단)들보다 설립 시기가 늦은 2014년이기에, 전국의 기초문화재단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국 기초문화재단의 주요사업 분야에서는 축제기획 및 운영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간/시설 운영과 시민대상 문화예술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 참여한 충남지역 기초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분야로는 공간/시설운영, 문화예술교육, 창작 및 활동지원, 축제기획 및 운영, 시민대상 문화예술사업, 정책 연구는 조사에 참여한 재단에서 100% 시행하는 주요 사업 분야이다. 또한 문화예술 후원 및 기부, 문화나눔사업, 연수 및 아카데미, 창작 및 향유 기반 구축, 위탁 및 협력사업, 대외정보서비스, 기타 등은 조사에 참여한 재단에서 75% 시행하는 주요 사업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는 조사 참여한 모든 재단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 분야로 밝혀졌다.

(표 107)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사업 분야(2015년 기준)

구분	빈도	백분율(%)
공간/시설운영	4	100
문화예술교육	4	100
문화예술 후원 및 기부	3	75
창작 및 활동지원	4	100
축제 기획 및 운영	4	100
시민대상 문화예술사업	4	100
문화나눔사업(통합문화이용권 등)	3	75
국제 교류	0	0
연수 및 아카데미	3	75
정책 연구	4	100
창작 및 향유 기반 구축	3	75
위탁 및 협력사업	3	75
대외정보서비스	3	75
기타	3	75

(2) 문화예술교육 사업 환경과 여건

본 연구에서 충남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고려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나 조직체계에 대해서는 평균 4.7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국 기초문화재단의 결과는 2.83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충남지역 문화예술교육사업에서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

충남의 지역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4.75점으로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기초문화재단은 다소 낮은 점수 값인 3.67로 드러났다.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사업자체 예산 유무에 대해서는 평균 4.2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기초문화재단의 결과는 2.92점으로 보통이하의 다소 낮은 점수 값을 보였다.

충남의 지역문화재단의 지역주민 문화예술 교육 관심도는 평균 4.25점으로 높은 점수 값을 보였고, 전국 기초문화재단의 결과에서는 평균 3.92점의 값을 보였다.

지자체 문화예술교육관심도는 충남의 지역문화재단이 4.2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기초문화재단은 3.75점으로, 충남의 지역문화재단이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충남지역 기초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사 수급에 대해서는 2.75점으로 전체에서 가장 낮은 점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사업 수행기관/단체수급의 경우 충남의 지역문화재단은 2.7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 값이었으며, 전국 기초문화재단은 2.92점으로 충남의 지역문화재단보다 다소 높은 점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08]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환경 및 여건(2015년 기준)

구분	전담인력	문화예술 교육중요도	사업자체 예산유무	지역주민 문화예술 교육 관심도	지자체문화 예술교육관 심도	프로그램 강사수급	수행기관 단체수급
평균	4.75	4.75	4.25	4.25	4.25	2.75	2.75

주 :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3)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과 관리

2015년 충남지역 기초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목적으로 재단의 사업방침(33.4%)과 지역사회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33.4%)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지역사회기여(25.0%), 정부시책으로 인한 예산지원(8.33%)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에서는 지역시민들의 문화수요 충족이 가장 높았고, 기관의 사업방침,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지역사회기여, 정부시책으로 인한 예산 지원의 순이며, 이는 2015년도 충남지역 기초문화재단과 흡사한 조사결과이다.

[표 109]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시행 맥락(2015년 기준)

구분	빈도	퍼센트
자체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0	0
외부의 지원에 의해 영향 받은바 크다	1	25.0
두 요인 모두에 의해 비슷한 비중의 영향을 받음	3	75.0
합계	4	100.0

[표 110]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목적(2015년 기준)

구분	빈도	퍼센트
재단의 사업방침	4	33.4
지역사회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4	33.4
정부시책으로 인한 예산 지원	1	8.33
시민의 삶에 질 개선 등 지역사회 기여	3	25.0
합계	12	100

주 : 3개까지 복수 응답

2015년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관련 수요조사는 미시행이 75%로 월등하게 높았지만, 만족도 조사는 100%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가조사는 시행(75%)이 미시행(25%)보다 더 높게 드러났다. 전국 기초문화재단의 수요조사는 미시행이 높고, 만족도조사는

시행이 높으며, 평가조사는 미시행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11]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관련 조사 시행 여부(2015년 기준)

구분	수요조사		만족도조사		평가조사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전체(%)	25	75	100	0	75	25

2015년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 시 어려운 점으로는 예산재정확보가 전체에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재단의 전문전담인력부족이 20%,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저조(홍보부족) 20%, 재단책임자 또는 관계자의 마인드 부족, 타 기관과의 협력 체계 미비, 기타는 10%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초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시 예산 재정확보가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그 뒤로 재단 내 설비/장비/공간 등 인프라 부족, 재단의 전문 인력 부족, 지역주민 수요부족 등의 순으로 꼽혔다.

[표 112]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 시 어려운 점(2015년 기준)

구분	빈도	퍼센트(%)
예산재정확보	3	30
재단의 전문전담인력부족	2	20
재단책임자 또는 관계자의 마인드 부족	1	10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저조(홍보부족)	2	20
타 기관과의 협력 체계 미비	1	10
기타	1	10
합계	10	100

주: 3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4) 기초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향후 시행 계획

충남의 지역문화재단의 2016년 문화예술교육 사업 향후 시행 계획에 모든 기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중요사업에 대한 질문에 1순위에서는 지역주민의 문화 수요충족 가능한 프로그램이 75%로 응답하였고, 기관고유의 특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은 25%의 응답률을 보였다. 2순위에서는 문화체험기회 및 향유 역량강화프로그램과 지역공동체 함양 프로그램이 각 50%의 응답률을 보였다. 전국 모든 기초문화재단에서도 향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중요사업으로는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역량 강화 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과 창의 체험 및 학교 연계사업이 그 뒤를 이어 나타났다.

[표 113] 2016년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시행의향 및 중요사업

구분	향후사업 시행 의향있음	1순위		2순위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 가능한 프로그램	기관고유의 특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문화체험기회 및 향유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함양프로그 램
전체(%)	100	75	25	50	50

2016년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중점대상에 대한 질문에 1순위에서는 성인(50%), 어린이(25%), 노인(25%)의 순으로 중점 대상에 응답하였고, 2순위에서는 청소년(50%), 복합(가족 등)과 특수목적계층이 각 25%의 응답률을 보였다. 전국 기초문화재단에서는 어린이가 가장 높았고, 청소년층과 성인층이 각각 그 뒤를 이어 나타났다.

[표 114] 2016년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중점 대상

구분	1순위			2순위		
	어린이	성인	노인	청소년	복합 (가족 등)	특수목적계층 (취약, 다문화계층 등)
전체(%)	25	50	25	50	25	25

2015년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제로 1순위에서는 사업운영비 지원확대(75%)와 관련법 정비(25%)의 비율로 나타났고, 2순위에서는 우수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개발(50%), 문화예술교육강사지원과 사업운영비 지원확대 각 25%의 비율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순위에서는 관련 공무원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식제고(5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기획 운영전문 인력지원과 우수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이 각 25%의 수치를 보였다. 전국 기초문화재단은 사업운영비의 지원확대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담당인력의 역량강화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 교육 강사 지원, 우수문화예술교육 사업 모델 개발이 그 뒤를 이어 나타났다.

〔표 115〕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제

	1순위		2순위			3순위		
	사업 운영비 지원 확대	관련법 정비	문화예 술교육 강사 지원	우수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 램모델 개발	사업 운영비 지원 확대	문화예 술교육 프로그 램기획 운영전 문인력 지원	우수 문화예 술교육 프로그 램모델 개발	공무원의 문화예술 교육관련 인식 제고
응답율 (%)	75	25	25	50	25	25	25	50

4) 분석 종합 및 시사점

(1) 문예회관에 대한 시사점

문예회관은 지역복합문화시설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문화기반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충남에는 타 지역의 평균보다 많은 총 17개의 문예회관이 존재하며, 가동률은 낮은 편이다. 2013년에는 문예회관의 이용자 대상이 성인(56.5%)과 노인(20.8%)이었는데, 2015년에는 성인(35.7%)과 청소년(30.0%)으로 변경되었으며, 타 문화기반시설에 비해 특수계층(2.86%)에 대한 이용이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또한 중점 교육 대상으로 2013년에는 노인에서 2015년에는 1순위가 성인으로 변화하였다.

문예회관은 2013년 전체 직원 평균수가 6.5명에서 2015년에 12.71명으로 증가하였고, 문화예술교육 담당 직원과 시간제 강수 수도 2013년 1.3명에서 2015년에 10.5명으로 월등히 증가하였다. 충남의 타 문화기반시설에 비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총예산이 약 438백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예회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여가활용 및 가족 프로그램’이지만, 현재는 ‘단순 관람·감상·전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문예회관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로 ‘참여자의 인식 부재’와 ‘예산 재정보조’를 꼽았고,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교육 강사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향후 문예회관은 단순 관람형의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형인 공연을 직접 선보이는 형태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문예회관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중점 교육 대상을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소외계층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 문예회관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1차적으로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2차적으로 참여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할 수 있는 정책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2) 지방문화원에 대한 시사점

지방문화원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운영 기관으로, 타 지역에서는 노인들을 중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충남에는 총 16개의 지방문화원이 존재하며, 2013년에는 문화원의 이용자 대상이 성인(38%)과 노인(23%)이었는데, 2015년에는 노인(55%)과 청소년(30%)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중점 교육 대상으로 2013년에는 성인에서 2015년에는 1순위가 어린이, 성인, 기타로 이전보다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문화원은 2013년 전체 직원 평균수가 3.8명에서 2015년에 3.43명으로 감소하였고, 문화예술교육 담당 직원과 시간제 강수 수도 2013년 13.9명에서 2015년에 9.12명으로 감소하였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외부지원 예산은 문화원(147백만 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원의 기관 평균은 약 145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 프로그램’이고, 현재는 ‘단순 관람·감상·전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문화원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로 ‘예산 재정 확보’로 꼽았고,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운영비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문화원은 중점대상과 이용자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주 이용자인 노인(55%)에 대한 문화예술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 하며, 3년간 문화예술교육 관련 담당자의 숫자가 줄어들었기에 전문 인력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예산 재정 확보와 운영비 지원에 대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3) 문화의집에 대한 시사점

문화의집은 개인의 감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타 지역에서는 문화의집이 ‘인력·재정 확보·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는 총 7개의 문화의집이 존재하며, 2015년을 기준으로 이용자 대상이 성인(45%)과 청소년(30%)으로 나타났고, 중점 교육 대상으로 1순위가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응답하였다.

2015년 문화의집 전체직원 평균수는 6명이고, 문화예술교육 담당 직원과 시간제 강수 수는 32명으로, 충남의 타 문화기반시설 보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간제 강사 수(지원사업인력)가 월등히 많은 것(30명)으로 드러났다. 문화의 집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총예산이 약 113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이지만, 현재는 ‘단순 관람·감상·전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문화의집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로 ‘관계자의 마인드 부족’과 ‘예산 재정보호’를 꼽았고,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획 운영전문 인력지원’과 ‘프로그램 리소스(자료) 센터구축’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문화의집은 중점대상과 이용자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주 이용자인 성인(45%)에 대한 문화예술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 하며, 문화예술교육 담당직원의 인원은 충남의 타 문화기반시설에 비해 적은 숫자(2명)이기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문화의집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1차적으로 전문 인력의 보완과 2차적으로 관계자의 마인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워크숍)과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할 수 있는 정책여건의 개선이 중요하다.

(4)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사점

지역민의 문화적 활동과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점차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는 도서관은, 타 지역에서 일회성의 단순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는 총 57개의 공공도서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도서관의 이용자 대상이 성인(58%)과 노인(30%)이었는데, 2015년에는 어린이(29.74%)과 성인(29.53%), 청소년(25.94%)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중점 교육 대상으로 2013년에는 어린이와 성인에서 2015년에는 1순위가 어린이, 청소년으로 변화되었다.

도서관은 2013년 전체 직원 평균수가 7.5명에서 2015년에 8명으로 증가하였고, 문화예술교육 담당 직원과 시간제 강수 수는 2013년 32.4명에서 2015년에 9.43명으로 감소하였다. 충남의 타 문화기반시설에 비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총예산이 약 168백만 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서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이

지만, 현재는 ‘단순 관람·감상·전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도서관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로 ‘참여자의 인식 부재’와 ‘예산 재정확보’를 꼽았고,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획 운영 전문 인력 지원’과 ‘교육 강사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도서관은 중점대상과 이용자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주 이용자가 3년간 계속 성인이었기에 성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 하며, 도서관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간제 강사 수 자체인력이 3년간 27.8명에서 5.06명으로 현저히 줄어들었기에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도서관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기획 전문 인력과 교육 강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박물관에 대한 시사점

박물관은 복합문화센터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문화기반시설로, 충남에는 총 44개의 박물관이 있다. 2013년에는 박물관의 이용자 대상이 성인(44%)이었는데, 2015년에는 성인(31.07%)과 청소년(27.86%)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중점 교육 대상으로 2013년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2015년에는 1순위가 어린이, 청소년, 복합(가족)으로 이전보다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박물관은 2013년 전체 직원 평균수가 12.5명에서 2015년에 19.64명으로 증가하였고, 문화예술교육 담당 직원과 시간제 강수 수도 2013년 4.4명에서 2015년에 10.46명으로 월등히 증가하였다. 박물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총예산이 약 163백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물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지만, 현재는 ‘단순 관람·감상·전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박물관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관의 인력 부족’과 ‘예산 재정 확보’를 꼽았고,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획 운영 전문 인력지원’과 ‘공간 확충과 운영비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향후 박물관은 단순 관람형의 문화예술교육 과정을 장기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 또한 중점 교육 대상을 성인까지 확대해 나가는 생애학습지원의 교육과정을 지향해야 한다. 박물관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예산과 전문

인력'의 지원,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의 확충에 대한 정책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6) 미술관에 대한 시사점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미술관이 타 지역에서는 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충남에는 총 8개의 미술관이 존재하며, 2013년에는 미술관의 이용자 대상이 성인(37.5%)과 어린이(22.5%)이었는데, 2015년에는 성인(62.5%)과 노인(15%)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중점 교육 대상으로 2013년에는 어린이에서 2015년에는 1순위가 어린이, 성인으로 확대되었다.

미술관은 2013년 전체 직원 평균수가 4명에서 2015년에 4.5명으로 증가하였고, 문화예술교육 담당 직원과 시간제 강수 수는 2013년 5.5명에서 2015년에 4명으로 감소하였다. 충남의 타 문화기반시설에 비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총예산이 약 5백만 원이며, 프로그램 수도 2개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자체예산이 미술관(90백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술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과 '창의체험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으로 조사되었다. 미술관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로 '참여자의 인식 부재'와 '기관의 인력부족'을 꼽았고,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획 운영 전문 인력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이라고 응답하였다.

미술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간제 강사의 수가 감소하였고, 기관의 인력 부족이 프로그램을 향후 진행하기에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따라서 미술관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1차적으로 전문 인력의 보완과 2차적으로 참여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할 수 있는 정책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7)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시사점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 복지를 실현의 역할을 하는 지역문화재단은 충남에 충남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 아산문화재단, 천안문화재단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현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충남문화재단과 아산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으로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충남의 지역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나 조직체계는 4.75점으로, 전국 기초문화재단의 결과(2.83점)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사 수급에 대해서는 충남의 지역문화재단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현재 충남의 지역문화재단 사업 중점 대상으로 1순위는 성인(50%), 어린이(25%), 노인(25%)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중요 사업 1순위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 가능한 프로그램(75%)’, ‘기관 고유의 특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프로그램(25%)’, 2순위로 ‘문화체험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50%)’, ‘지역 공동체 함양 프로그램(50%)’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사업관련 수요조사는 미시행(75%)이 많았고, 만족도 조사나 평가조사는 대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 시 어려운 점으로 ‘예산 재정확보(30%)’, ‘재단의 전문 전담인력 부족(20%)’과 ‘참여자(홍보) 부족(20%)’이 꼽혔다. 향후에 충남의 지역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할 의향은 모두 있었으며,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제 1순위로 ‘사업운영비 지원확대’, 2순위로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3순위로 ‘공무원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식의 제고(50%)’로 꼽았다.

따라서 향후 거점의 역할을 하는 충남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기초문화재단간에 교류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의 역할이 배분되어야 한다. 이는 본 연구의 전문가 워크숍에서도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으로,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의 보강은 교육과정 공동 제작 등을 통해 보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에서는 강사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지역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며, 참여자의 수요조사를 향후에 실시한 후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예산의 지원뿐만 아니라 생애지원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담당 공무원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장기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인식의 제고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

(8) 분석 종합 및 시사점

전반적으로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강사 수는 2013년에는 11.5명에서 2015년에는 9.99명으로 감소하였고, 문화예술교육의 실시 여부는 83.2%에서 93.9%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예산은 2013년 317백만 원에서 2015년에는 1,321백 만 원으로 현저히 증가하였고, 총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는 18.26개로, 단순 관람·강사·전시 형태의 교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은 2015년을 기준으로 ‘지역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중점 교육 대상으로 1순위를 어린이(39.2%), 청소년(19.6%), 성인(17.6%)으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이유로 ‘예산 재정보호(27.5%)’와 ‘참여자 인식 부재(25.5%)’로 꼽았고, 향후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2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 인력 지원(21%)’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은 전문 인력과 예산의 확충이 이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예산과 전문 인력의 보완이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는 타 지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현황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다. 또한 충남의 지역문화재단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밝힌 것처럼 문화재단과 문화기반시설의 교류를 통해 전문 인력의 보강 및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인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추진과제로 문화취약 계층 대상의 예술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해외 문화예술교육의 흐름은 ‘생애학습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점차적으로 다양한 대상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각 대상이 필요하고 원하는 교육과정의 개설되지 않을 경우, 참여자의 관심과 홍보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초 수요조사와 만족도 조사, 우수 사례 발굴에 대한 보완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 116]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의 종합 분석(2015년)

구분	대상		인력 (명)	여건	기관 예산		프로그램 형태
	방문 자	교육 대상			예산	지원받은 여부	
문예회관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보통	전담 인력, 자체 예산 확보, 지역주민 관심, 강사인력 구인 어려움	보통	지원받음 다수	단순 관람, 감상, 전시형태 다수
문화의집	성인·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부족	전담 인력 및 조직 구축 부족	부족	지원받음 다수	단순 관람, 감상, 전시형태 다수
문화원	노인· 성인	어린이· 성인·기타	부족	전담 인력 및 조직 구축 부족	부족	받지 않음 다수	단순 관람, 감상, 전시형태 다수
도서관	어린이· 성인	어린이· 청소년	부족	전담 인력, 자체 예산 확보, 지역주민 관심, 강사인력 구인 어려움	부족	받지 않음 다수	단순 관람, 감상, 전시형태 다수
박물관	성인·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보통	전담 인력, 자체 예산 확보, 강사인력 구인 어려움	부족	받지 않음 다수	단순 관람, 감상, 전시형태 다수
미술관	성인· 노인	어린이· 성인	부족	전담 인력, 수행시설, 자체 예산 확보 부족	부족	받지 않음 다수	단순 관람, 감상, 전시형태 다수와 그 외 형태
문화재단	-	성인· 어린이·노인	부족	강사 인력 구인·수행기관/ 단체 수급 어려움	보통	모두 지원받음	지원 형태

주: 1) 각 시설별 문화예술교육의 여건은 점수가 4.0 미만인 것을 부족한 것으로 보았음

2) 충남문화재단의 인력을 제외하고, 각 시설별 문화예술교육 담당 직원의 평균수는 3명 정도에 불과함

3) 충남문화재단의 예산을 제외하고, 기초문화재단 예산의 평균은 문예회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7]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운영시 어려운 점과 활성화 방안

구분	운영 시 어려운 점과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	활성화 방안
문예회관	참여자 인식 부재·예산 재정 확보	교육 강사 지원·교육 프로그램 모델의 개발
문화의집	예산 재정 확보·관계자 마인드 부족	기획 운영전문 인력 지원·프로그램 리소스(자료) 센터의 구축
문화원	예산 재정확보·인프라 부족	운영비 지원·교육 강사 지원·공간 확충 지원
도서관	참여자 인식부재·예산 재정 확보	기획 운영 전문 인력 지원·교육 강사 지원
박물관	기관의 인력 부족·예산 재정 확보	기획 운영 전문 인력 지원·공간 확충과 운영비의 지원
미술관	참여자 인식부재·기관의 인력부족	기획 운영 전문 인력 지원·교육 프로그램 모델의 개발
문화재단	예산 재정확보·재단의 전문 전담인력 부족·참여자(홍보) 부족	사업운영비 지원 확대·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공무원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식의 제고

5. 소결 및 활성화 과제도출

(1) 생애학습지원의 문화예술교육과정 개발

문화예술교육의 중점 대상은 현재 어린이, 청소년, 성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그 성과를 사회에서 펼쳐나가는 것이 가능한 생애학습주기의 문화예술교육 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2)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시설, 교육기관 간 문화거버넌스 구축

충남의 지역문화재단과 문화기반시설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혔던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의 보강은, 상호간에 교육 프로그램의 교류를 통해 예산 및 인력(강사 등)을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충남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문화예술단체, 기업, 문화기반시설, 문화재단, 축제 등과의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문화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3) 지역 내 사회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과 활용

2013년~ 2015년까지 충남의 지역문화재단과 문화기반시설에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이 계속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 내 사회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육성 및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도민 문화향유를 위한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충남 문예회관의 가동률은 현저히 낮은 편이며, 현재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모두 단기적인 관람·강사·전시 형태의 교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 충남 문화기반시설 및 지역문화재단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공연을 직접 선보이는 형태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충남 문예회관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5)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교육 동아리의 활성화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지역의 특성과 결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스스로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이나 그룹을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참여자들이 성장하여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기획하기까지의 일정한 지역적 축적을 위해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성이 담보된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일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다수의 애호가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

(6)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의 개발 및 홍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예산의 지원뿐만 아니라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수상활동을 실시하여 참가자의 동기부여 및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여자의 열정과 노력의 성과물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7) 지자체 추진체계의 개선

지자체에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장기적으로 교육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충남의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에서는 공무원들의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문화예술교육의 재정자립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지역의 색채를 가진 문화예술교육의 개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산 확보 방안, 재정자립도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을 모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제4장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

1. 접근 틀과 기본방향

1) 접근 틀과 기본방향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접근 틀은 아래 [표 118]과 같으며, 도출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생애주기와 교육대상별 과정개발’,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과 활용’,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활용성 제고’, ‘주민주도형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충남 우수문화예술교육 모델사업 추진’, ‘조직과 시책강화 및 추진체계 개선’ 등으로 제시하였다.

[표 118] 접근 틀과 기본방향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과제	
- 생애학습지원의 문화예술교육과정 개발 -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시설, 교육기관 간 문화거버넌스 구축 - 지역 내 사회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과 활용 - 도민 문화향유를 위한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교육 동아리의 활성화 -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의 개발 및 홍보 - 지자체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의 개선	
기본방향	생애주기와 교육대상별 과정개발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과 활용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활용성 제고
	주민주도형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충남 우수 문화예술교육 모델사업 추진
	조직과 시책강화 및 추진체계 개선

2) 추진전략

앞에서 제시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생애주기와 교육대상 계층별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②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 교육기관 등 연계 문화예술교육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 ③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 인력을 활용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④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별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발굴과 시행, ⑤ 지역주민이 주도형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사업 강화와 지역축제의 참여 확대, ⑥ 충남 우수 문화예술교육 경연대회 개최와 모델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⑦ 충남 문화예술교육 정책역량강화와 자립형 시책의 발굴 및 사업의 추진 등 이다.

[표 119] 기본방향별 추진전략

기본방향	추진전략
생애주기와 교육대상별 과정개발	- 생애주기와 교육대상 계층별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 교육기관 등 연계 문화예술교육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
지역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과 활용	-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 인력을 활용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활용성 제고	-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별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발굴과 시행
주민주도형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 지역주민이 주도형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사업 강화와 지역축제의 참여 확대
충남 우수 문화예술교육 모델사업 추진	- 충남 우수 문화예술교육 경연대회 개최와 모델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조직과 시책강화 및 추진체계 개선	- 충남 문화예술교육 정책역량강화와 자립형 시책의 발굴 및 사업의 추진

2.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전략과 추진방안

1) 생애주기와 교육대상별 과정개발

(1)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단계적 개발

① 여건과 사례

현재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우리 생활 속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생애학습주기의 문화예술 교육 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워크숍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안산문화재단은 청소년 극단(고등어)에서부터 성인 극단(참치)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안산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예술교육 사업으로는 ‘예술아카데미’와 ‘꿈의 오케스트라 안산 <안녕?! 오케스트라>’를 꼽을 수 있다. 예술아카데미는 안산문화재단의 고유한 교육 사업으로 2004년 개관 이래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하반기로 운영되는 정규아카데미와 시즌특강, 예술제로 구성되며 유아부터 실버층까지 각 연령대별, 직군별을 교육대상으로 하여 연간 100여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 자체 기획으로 구성된다.

충남에서도 도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② 추진방향

충남에서도 도민들의 생애에 맞추어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개발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문화재단과 각 시군별 문화원, 문화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종합적 시각에서 검토하여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연계되는 연령대에 따른 교육대상별 과정의 개발을 추진한다.

③ 사업내용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도민들의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추어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충남과 각 시·군에서 진행되는 사회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종합분석과 충남 생애주기별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을 발굴한다. 추진해야할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 ☐ 충남 생애주기별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종합분석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
-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개최
- ☐ 충남 생애주기별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발굴과 시책추진



자료 : <http://blog.naver.com/PostView.nhn>

(그림 24) 안산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예시

④ 사업추진방안

충남 도민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토록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시범 및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충남도의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은 기존의 문화예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특히,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을 위해서는 관련 교육기관의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시설의 활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2) 노년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별 프로그램의 집중 육성 및 운영

① 여건과 사례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전남의 고령인구 비율이 21.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전북(17.9%), 경북(17.8%), 강원(16.9%), 충남(16.3%) 등의 순이며, 이미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0%이상)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이 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보면 충남이 고령화 순위가 전국의 5위로서 충남의 노년층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에서도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소외계층의 문화예술교육의 해외사례로 일본의 시가현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고, 청소년 대상 오페라 초대 및 보급 활동 등 청소년의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가현에는 NPO에 의한 시가 차세대 문화예술센터가 설립되어 학교와 문화시설, 예술가 등을 연결하는 연계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문화예술의 진정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Art Brut'의 미술전은 장애가 있는 작가의 삶을 소개하고, 일반인에게 해설함으로써 관람객의 고정관념이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장애인들도 현대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부족하지 않은 인격체임을 교육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창조시키고 있다.

이에 충남에서도 노년층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운영한다.

② 추진방향

초고령화시대에 충남은 전국에서 고령화 순위 5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인구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육성해야함을 물론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집중 발굴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③ 사업내용

노년층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대상별로 사업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육 장소, 방법, 시간 등에 있어서도 각기 다르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령화인구가 많이 분포된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노년층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도 공공주도형의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발굴하여 운영한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행복 100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 유니버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집중 육성 및 사업추진
- ☐ 다문화 문화예술교육사업 발굴과 시책추진



자료 : <http://forwits.blog.me>, www.kyongbuk.co.kr/?mod

〔그림 25〕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사례

④ 사업추진방안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프로그램은 충남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발굴하기 보다는 국내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범적으로 운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충남의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 공교육 및 민간 문화예술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문화예술사업 중에서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별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을 위해서는 관련 교육기관의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시설의 활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1) 충남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상호 교류

① 여건과 과제

사회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충남의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 등의 협력사업과 프로그램의 상호교류가 필요하다. 충남에서는 2015년에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총 59개를 수행하였는데, 그 중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29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30개였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중에서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이 수행단체가 된 기관은 29개 사업 중 온양문화원과 태안문화원 등 2개소였고, 충남 소재의 지역문화재단은 1개소도 없었다. 그리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중에서도 30개 사업 중 온양문화원과 당진문화원 등 2개소였고, 이 역시 지역문화재단은 1개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가지 사업에 수행하는 단체는 대부분이 민간 문화예술단체나 연구소, 협회, 평생학습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남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그 동안에 개별적인 민간 문화예술단체나 기관이 주관 수행단체가 되었으나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 등과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 시스템의 구축과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고, 문화재단이 없는 인접 시군까지도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야 한다. 현재는 사업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남문화재단과 도내 기초문화재단간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연계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충남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간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은 물론 문화예술 지원 사업 등의 전반적인 사업연계는 보다 지속가능한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② 추진방향

전국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은 중앙부처와 각 지방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주도하면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충남문화재단도 최근에 설립되어 운영되면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진문화재단은 당진문화예술학교를 직접 운영하면서 선도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광역의 충남문화재단과 기초의 천안, 아산, 당진 문화재단은 물론 문화기반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상호 협력과 교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③ 사업내용

충남문화재단과 천안, 아산, 당진 문화재단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의 중앙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기반시설에서도 중앙정부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모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과 시설들은 서로가 연계하여 협력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연계 협력과 상호 교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 ☐ 충남의 문화재단과 문화기반시설 업무협약 체결 및 정기 워크숍 개최
- ☐ 충남문화재단과 천안, 아산, 당진문화재단 통합문화예술교육 연대 사업 추진
- ☐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용시책 발굴과 운영



자료 : <http://blog.naver.com/mitra1004>

〔그림 26〕 충남문화재단과 문화원연합회, 한국예총충청남도연합회 협력 워크숍 사례

④ 사업추진방안

충남의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청도청 차원에서 충남문화재단과 천안, 아산, 당진 문화재단 등이 동일한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통합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책화하여 추진한다. 그리고 이들의

사업추진은 내포신도시에 있는 문예회관 등의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운영도 함께 시행한다. 특히, 문화재단간의 상호간에 교육 프로그램의 교류를 통해 예산 절감 및 인력(강사 등)을 함께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2) 충남 교육기관과 문화시설, 단체, 문화재단 등 문화예술교육 협력사업 추진

① 여건과 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에서는 2015년에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총 59개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 중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29개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30개 사업에서 온양문화원과 태안문화원 등 2개소와 온양문화원과 당진문화원 등 2개소를 제외하고는 이들 두 가지 사업에 수행단체는 거의 모두가 민간 문화예술단체나 연구소, 협회, 평생학습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사례로는 지역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그 동안 충남에서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2008 태안→감상형, 2009 공주, 2010 홍성→서양음악사, 2011 당진→현대무용’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이 없었기에,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기반시설 및 단체, 재단 등의 유기적 교육과정의 결합이 연계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현재 약 교육과정 1회당 3,000만 원 정도의 운영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에서는 금액 지원 및 충남의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는 장소 및 그 외에 지원하는 형태로 참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충남에는 특히, 문화예술단체로 공연예술단체 40개, 공립예술단 3개, (사)한국예총 충남도연합회, 문화예술 민간단체, 전문예술법인·단체, 문화예술 관련 협동조합,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등과 문화예술 관련 교육기관 등이 다수 있으므로 이들과 연계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들의 발굴과 프로그램 운영이 상호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예로, 충남의 사회문화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충남의 교육청, 충남예총, 서천미디어센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영상진흥위원회, 공립예술단 등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② 추진방향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전체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도민 한사람의 생애주기에 맞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매우 다양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기관과 문화예술기관과 단체,는 사회문화시설과 문화 사회적 기업 등이 그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면서 서로 연계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③ 사업내용

충남에는 중·고등학교, 대학교와 문화예술단체, 문화기반시설, 문화재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과 시설, 단체 등이 매우 많고 다양하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대상과 언론을 포함하여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물론 이들 간의 문화거버넌스를 통한 협력사업의 추진은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프로그램을 주도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 충남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 포럼 구성 및 운영 : 충남문화재단 등

□ 문화예술교육 협력 정기 워크숍 및 모니터링 사업 실시



자료 : <http://joeunede.kr>, <http://blog.naver.com/mitra1004>

〔그림 27〕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문화재단의 업무협약식 사례, 충남문화재단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관계자 워크숍 사례

④ 사업추진방안

도민들의 문화예술교육은 지역별로 도민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공간과 지역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현재 충남에서는 도민

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시책 및 정책개발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충남문화재단이 주체가 되어 충남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매년 정기적인 포럼 개최 시에 문화예술교육 협력 분야별 워크숍 및 모니터링 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3) 시·군별 공공교육시설 및 유희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학교 설립 및 운영

① 여건과 과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이외에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학교가 필요하다. 현재 충남에서는 당진문화재단의 사례와 같이 민간예술 지원 사업(광역시)과 문예의전당의 자체기획 사업뿐만 아니라 당진문화예술학교를 설립하여 19개 창작소를 통하여 문화예술학교 교육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우수강사 파견교육 및 동아리, 장소지원, 상주 등의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해외사례로 일본의 아이치 섬머 세미나는 아이치현의 나고야시 고등학교에서 지역시민과 학교가 연결된 시민 참가형 세미나로 개최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 나고야 섬머 세미나는 매년 7월 중순에 여름방학기간에 3일간 2,000강좌 이상(2013년 기준) 개강되는 일본 최대의 교육 이벤트로, 「누구나 선생님, 누구나 학생, 어디라도 학교」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모든 강좌는 봉사활동으로 운영되며, 장소도 사립 고등학교나 나고야 시립학교를 무상으로 빌려 쓰고 있다. 이 행사는 아이치현의 각 사립고등학교의 토요강좌 개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아이치현의 섬머 세미나를 벤치마킹하여 효고현의 「모두의 섬머 세미나」가 실시되고 있는 등 일본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충남 당진의 문화예술학교와 같이 지역 공공적 유희시설을 활용한 문화학교의 운영이나 일본 아이치현의 지역 고등학교의 방학기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사례와 같이 충남도 지역의 실정에 맞게 거점지역별로 문화예술학교를 설립 및 운영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추진방향

충남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위해서는 교육을 위한 시설과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설과 공간들은 기존의 문화기반시설의 활용뿐만 아니라 방학기간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공공 교육시설 및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예술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토록 한다.

③ 사업내용

충남 도내의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의 교육시설 및 폐교와 공공기관 등의 유휴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예술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 또는 문화예술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역별로 입지여건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충남 문화예술 특성화 학교 연계 방학문화예술학교 개설 및 운영
- ☐ 충남 도내 대학 평생교육원 문화예술학교 개설 및 운영
- ☐ 충남 문화예술권역별 문화예술학교 설립 운영 : 북부권 제외(당진문화예술학교 활용)
- ☐ 당진문화예술학교 인접 시군 연계 거점 문화예술학교로 육성



자료 : <http://blog.naver.com/topcnitv>

[그림 28] 당진문화예술학교의 설립 및 운영사례

④ 사업추진방안

충남의 문화예술 특성화 학교와 연계하여 방학문화예술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도내

대학의 평생교육원의 문화예술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여 수강자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의 비용을 수강자의 부담으로 추진한다. 대학의 평생교육원은 충남도내의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권역별로 구분하여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를 하도록 한다. 문화예술학교의 경우 북부권은 현재의 당진문화예술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주변 시·군 지역주민들을 수강대상으로 하고, 기타 지역은 폐교나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예술학교’를 설립하여 운영을 추진한다. 예산과 흥성의 경우는 충남도청이 있는 문예회관의 활용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3) 지역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과 활용

(1) 지역 내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문화예술교육 참여활동 강화

① 여건과 과제

지역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에서 전문 인력을 강사로 활용해야 한다. 충남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현황을 살펴보면, 공연예술단체로 총 40개소로 연극 8, 무용 3, 양악 15, 국악 12, 복합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충남도연합회에는 8개 협회의 도지회와 14개의 예총지회가 소재하고 있다. 도지회 예술분야는 8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국악, 문인, 미술, 무용, 연극, 음악, 연예, 사진 관련하여 총 8개 협회가 활동 중이다.

한국예총 충남도연합회의 회원 수는 2015년 기준 4,505명이며, 보령예총이 714명으로 가장 많고, 천안예총이 558명, 당진예총이 474명, 공주예총 36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분야별 활동인원 수는 국악(1,689명, 37.5%)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미술(677명, 15.0%), 연예(551명, 12.2%), 문학(543명, 12.1%), 음악(492명, 10.9%), 사진(285명, 6.3%), 연극(183명, 4.1%), 무용(85명, 1.9%) 순이다.

이상과 같이 충남에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의 전문 인력이 4,500명 이상이므로 지역 내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활동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

② 추진방향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시설과 공간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으로 사업 수행 인력과 교육을 진행하는 운영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충남도의 풍부한 전문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문화예술교육사업의 발굴과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사업내용

충남에는 문화예술단체 회원 4,500명 이상이 각 장르별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예총 충남도연합회가 8개 협회의 도지회와 14개의 예총지회가 조직화되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별적인 참여보다는 조직을 통하여 전문 인력이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 충남 문화예술교육 사업 수급계획 수립과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 ☐ 한국예총 충남도연합회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전문 인력 활동 협력 운영
- ☐ 충남 문화예술교육 사업 전문 인력 운영사업 추진



자료 : <http://search.daum.net/search?w>

(그림 29) 한국예총충청남도연합회의 지역 활동 사례

④ 사업추진방안

충남도에는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예술교육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확한 전문 인력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예총 충남도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충남의 시·군과 권역과 장르별로 구분하여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경력과 본인의 참여 가능여부 등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현황조사를 통하여 추진한다. 이후 충남도연합회와 예술 강사 전문 인력 활동에 대한 협력과 운영사업을 추진한다.

(2) 지역문화재단과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추진

① 여건과 과제

국내의 문화예술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구분되며, 공교육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훈련된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전문 강사의 지원 분야는 국악, 연극,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사진, 공예, 디자인 등의 다각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지역에서 주민들의 문화예술교육의 운영사업에는 공교육과 다르게 전문 인력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지역문화예술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남의 지역문화재단과 문화기반시설에서는 이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보강이 계속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이에 충남의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 강사의 선발 및 연수를 진행하여 각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맞는 강사를 직접 파견하는 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사회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육성 및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추진방향

문화예술교육 사업에서 지역주민들의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은 현재 대부분이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주요 수행조직으로써 운영되고 있다. 향후 지역문화재단과 문화기반시설들이 문화예술교육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획에서부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③ 사업내용

충남 문화예술교육사업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별 민간 문화예술단체 주도의 사업과 더불어 통합적인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충남문화재단과 천안, 아산, 당진 문화재단등과 각 시·군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대한 전문 인력의 확충을 추진한다.

- ☐ 충남문화재단 및 시·군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 전문 인력 확충 : 통합공모사업 연계 전담인력
-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기반시설의 예술 강사 등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추진



자료 : <http://blog.naver.com/moonhwasalim>, <http://search.daum.net/search?w>
 {그림 30}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아카데미의 운영 사례

④ 사업추진방안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문화재단과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할 경우, 중앙의 문화예술교육 시범 및 공모사업을 상호 연대하여 통합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각 시·군의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예술 강화 등의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을 시책화하여 추진한다.

4)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활용성 제고

(1) 문화기반시설별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 지원

① 여건과 과제

충남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시설 활용과 프로그램 운영의 잠재력이 높으며, 문화기반 시설을 전국 평균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충남의 주요 문화기반시설은 총 153개소로 이중 공공도서관이 57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박물관 44개소, 문예회관 17개소, 지방문화원 16개소, 미술관 8개소, 문화의집 7개소, 문화재단 4개를 보유하고 있다.

충남 시·군별 현황을 보면 문화기반시설이 천안 25개소, 공주시 17개소, 아산시 15개소, 금산군이 각각 13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양군과 계룡시가 4개소가 있어 이들 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문화기반시설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이용대상이 갖는 인식과 실제 이용자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문화기반시설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발굴과 운영에 참여 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기반시설들이 갖는 도농복합형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특수 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의 각 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의 보완과 각 시설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예산의 비중도 전체 지역 평균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각 시설별 문화예술교육의 예산의 확보도 필요하다.

② 추진방향

충남에서 문화기반시설들이 문화예술교육사업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이용자의 인식과 실제 이용자 간의 행태 차이에서부터 관련 예산과 인력의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므로 충남지역내의 문화기반시설별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③ 사업내용

충남 문화기반시설을 문화예술교육사업과 연계하여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설별로 교육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를 검토한다. 그리고 교육대상이 주민수요에 적합할 경우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한다.

- 충남 문화기반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수요 조사
- 시·군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추진 : 충남 문예회관 시범사업 등
- 문화기반시설 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등



자료 : <http://artezine.blog.me>

〔그림 31〕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사례

④ 사업추진방안

충남 도민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출발은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활용에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생활권내에 있는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운영시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시·군과 문화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조사한 후 적정한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문화기반시설별 유형에 따라서 소규모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설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발굴하여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충남과 시군 문화재단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① 여건과 과제

충남에는 충남문화재단과 천안문화재단, 아산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 총 4개의 지역문화재단이 있다. 충남에서 교육사업과 관련한 조직이 있는 재단으로 충남문화재단과 당진문화재단이 있으며, 충남의 문화재단 4곳 모두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다만 천안문화재단은 천안예술의전당과 연계한 인문학 강좌만 이루어지고 있다.

충남문화재단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협력사업 악기기부은행’ ‘하모니로 크는 나무’, 네트워크 교류, 인력양성 및 정보화 사업, 자체기획사업, 예술 강사 지원 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등의 문화예술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다.

아산문화재단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꿈의 오케스트라 <아산온궁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였으나, 2016년에는 선발되지 않아 운영하지 못하였다.

당진문화재단은 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연령 및 장르별 교육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당진문화재단의 ‘문화예술학교’는 복합형 문화예술전문교육 강좌인 ‘시민문예아카데미’와 지역 교육 강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술강사 아카데미’, 중등교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인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에는 ‘당진문화원’과 ‘당진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공통수탁으로 이루어졌으나, 2016년부터 개별 수탁으로 변경되었다.

이상과 같이 충남문화재단을 비롯한 3개의 시·군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을 각각 추진을 하고 있으나 재단별 편차가 있고, 도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특성과 장르별 문화예술교육사업의 발굴과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② 추진방향

충남문화재단과 천안, 아산, 당진 문화재단에서는 사업의 규모와 종류는 차이는 있지만 재단별로 문화예술교육사업과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다. 각 재단들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시범사업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발굴뿐만

아니라 상호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서 지역특성과 운영에 대한 협력적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③ 사업내용

충남문화재단과 문화재단이 있는 시에서 운영되는 문화예술교육사업과 프로그램은 상호 연계성을 가지면서 지역 특성의 프로그램의 발굴과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타 지역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사업과는 차별성을 가지도록 한다.

- ☐ 충남문화재단과 천안·아산·당진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협력 MOU체결
- ☐ 충남문화재단 연대 통합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공모사업 지원
- ☐ 충남문화재단 연합 워크숍 정기 개최



자료 : <http://search.daum.net/search?nil>
 [그림 32] 충남문화재단의 업무협약과 공모사업 지원 사례

④ 사업추진방안

충남에 현재까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4개의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사업과 프로그램을 연대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호 업무 협조를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한다. 그리고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중앙공모사업뿐만 자체 기획사업도 상호 연계성을 검토하고, 통합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충남을 대표하는 공모사업으로서 지원을 하되 세부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로 실행사업과 운영계획을 마련한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사업뿐만 아니라 상호의 업무협력과 기능적 연계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충남 문화재단 연합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타 시도의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한 특강을 통한 벤치마킹을 실시한다.

5) 주민주도형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1) 지역주민 주도형 사회문화예술교육 동아리 사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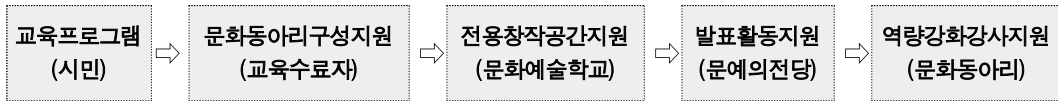
① 여건과 과제

문화예술교육은 공공부문에서의 사업수행과 민간예술단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이다. 충남의 도시와 농촌 등의 지역적으로도 균형 있게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주민의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에 맞도록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방문하는 문화기반시설에 있어서도 도서관·박물관 등의 이용자 현황은 일부 계층이나 매니아 그룹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별로 다양한 동아리 사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창작공간(예전 미곡창고)에는 영화·공예·연극·전시 등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전문 분야들이 동아리를 관리해주는 지도자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문화재단에서는 주민들에게 동아리 모집을 실시하여, 지도강사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충남지역의 사례로 당진문화재단은 시민 문화예술교육사업의 방향은 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있다. 이를 위해 시민 문화예술 활동의 “요람에서 활동까지”를 목표로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예술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문화동아리 구성을 지원하여 지속적 활동기회를 부여한다. 그리고 동아리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지원하며, 문화동아리가 발표할 수 있도록 공연·전시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동아리에 전문 강사 지원 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꾀하고 있다.

더불어 당진문화재단이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운영 목표가 ‘동아리 지원’으로써 이를 위하여 개런티는 없지만, 동아리 운영 시 5천만 원을 지원하고, 계속적인 장소의 지원 및 인센티브로 시상을 주는 것과 우수강사 파견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 : 당진문화재단(2016), 2016년 워크숍의 당진문화재단 사례.

〔그림 33〕 당진문화재단의 지속가능성 확보 추진체계

이와 같이 사회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자율적이면서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참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데, 이는 지역주민 주도형의 사회문화예술교육 동아리 사업의 강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② 추진방향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은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업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하고, 지역사회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과 동아리 단체의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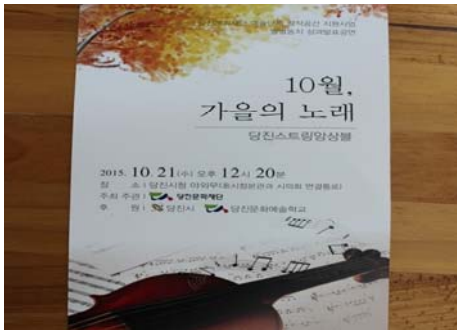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 구성의 지원과 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공간의 지원뿐만 아니라 발표활동의 지원, 나아가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동아리활동의 강사지원을 추진한다.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동아리 구성 지원
- ☐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창작 공간 및 발표활동 지원 : 문화기반시설 활용사업
- ☐ 문화 활동 동아리 역량강화 강사지원 사업

④ 사업추진방안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한 이 후 사업을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사업별 동아리 그룹의 구성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그리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각 시·군의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예술학교를 활용하여 동아리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매년 정기적으

로 발표회나 모범사례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발표회와 모범사례 공모를 통하여 우수한 실력을 갖춘 동아리 단체는 자체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강사지원 사업을 함께 실시한다



자료 : <http://blog.naver.com/dangjin2030>

(그림 34) 당진문화예술학교의 동아리 성과 발표 사례

(2) 문화예술교육 지역주민과 동아리의 지역축제 참여기회 확대

① 여건과 과제

문화예술교육은 도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기회를 제공하면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도민들이 스스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교육성과를 느끼고 만족감을 높이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지역주민과 동아리 등이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충남의 축제 중에서 축제육성위원회와 마을단체, 민속 및 전통예술단체 등이 대부분 주도하여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주민주도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에서의 재정적 지원과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문화유적·민속·전통예술 축제나 이벤트는 점차적으로 주민주도형의 축제로 개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도 문화유산과 관련된 축제에서 점차적으로 공공지원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므로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지역주민이나 동아리들이 직접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추진방향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을 마친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중의 하나는 지역축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충남의 축제는 지역마다 민속·전통예술 축제나 이벤트가 점차적으로 주민주도형의 축제로 변화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에서 양성된 지역주민과 문화예술동아리들이 지역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③ 사업내용

충남에는 국제적인 지역의 대표축제에서부터 지역 전통문화행사까지 다양한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축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지역의 전통성과 예술성이 있는 문화예술의 공연과 전시 등의 프로그램이다. 그러므로 문화예술교육사업과 프로그램도 지역축제와 연계되도록 하면서 교육을 받은 지역주민과 동아리 단체도 이들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 ☐ 지역축제 연계 문화예술교육사업과 프로그램 발굴
-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이수 지역주민과 동아리 지역축제 참여 부대행사 육성
- ☐ 지역축제 시 문화예술교육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자료 : <http://blog.naver.com/yecheonbon>

(그림 35) 경기종합예술제와 문화예술동아리페스티벌의 사례

④ 사업추진방안

충남도와 각 시·군의 문화예술교육사업과 프로그램은 현재까지도 지역의 전통성과 예술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를 발전시켜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와 문화예술 축제와 연계해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자와 동아리들이 부대행사에 참여토록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역축제의 성격과 테마가 적합할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6) 충남 우수 문화예술교육 모델사업 추진

(1) 충남 우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① 여건과 과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활성화는 참여자들에게 동기부여와 자기만족의 기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발표회나 경연대회를 통한 성과를 통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안산문화재단의 청소년극단 <고등어>는 ① 창작극 공연, ② 연 2회 이상의 공연 제작, ③ 다양한 공연 예술 축제 참가를 목표로 상반기에는 마임극을 제작, 하반기에는 뮤지컬을 제작한다. 4년차 운영되고 있는 <고등어>는 지금까지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비롯하여 ‘행복한세상 전국 청소년연극제’, ‘부산연극제’ 뿐 아니라 일본의 ‘키즈무나페스타’, ‘리카리카페스타’ 등에 참가하여 좋은 수상 성적과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충남에서는 도, 시·군에서 각 우수 사례에 대한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해외의 자매결연도시와 연계한 문화예술 교류행사와 각종 국제경연대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장기·지속적으로 동아리 활동 및 자생력 있는 우수모델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사회문화예술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추진방향

최근에는 지역마다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 문화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이벤트와 문화행사 중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여기에서의 공연과 전시 등은 문화예술교육과 연계된 경연대회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충남에서도 충

남도청을 중심으로 하는 우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해외의 관련 국제행사에도 출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③ 사업내용

문화예술교육사업과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벗어나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노력의 과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그 성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과정을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경연도 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 한다.

- ☐ 충남 문화예술사업과 프로그램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 ☐ 우수 문화예술 동아리 국제행사 참가 지원



자료 : <http://search.daum.net/search?nil>
 [그림 36] 안산 청소년극단 〈고등어〉 활동의 사례

④ 사업추진방안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참여자들의 동기부여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남의 문화예술 대상사업에 대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동아리는 국내의 관련 행사나 대회의 참여와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충남학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확산

① 여건과 과제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인문학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된다. 충남은 최근 지역의 대학과 관공서의 자치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충남학과 각 시·군의 지역학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의 개발 및 확산이 필요하다.

최근 충남문화재단이나 각 시·군뿐만 아니라 민간 문화예술단체에서 수행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사업 및 세부프로그램 명칭을 보면, 지역의 전통적인 마을명칭이나 마을과 지역 내의 전통문화예술을 근간으로 하여 현대적 문화예술과 융복합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면서,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충남의 전체적인 문화예술의 맥을 이루는 충남학과 각 시·군에 기반을 둔 지역의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

② 추진방향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예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서 충남과 각 시·군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학에 대한 주민과 대학의 강의가 이루어지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충남학 등 시·군의 지역학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한다.

③ 사업내용

현재의 충남과 각 시·군에 진행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장르와 교육 대상별로 사업들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남학과 시·군 인문학을 근간으로 하는 사업아이템과 프로그램도 발굴하여 육성한다.

☐ 충남학 및 시·군별 인문학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 지역 인문학 특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시범 운영 : 금강문화예술, 내포문화예술 등



자료 : <http://www.onulnews.com>, <http://search.daum.net/search?nil>
 [그림 37] 충남학 포럼과 강사위촉

④ 사업추진방안

충남 도민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관심도를 높이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문화예술교육사업과 프로그램을 시책을 발굴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사업, 또는 자체 기획 사업에 충남학 및 시·군별 인문학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7) 조직과 시책강화 및 추진체계 개선

(1)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전문성과 연계업무의 네트워크 강화

① 여건과 과제

충남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추진은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에서는 공무원들의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원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각 시설별 문화예술교육의 재정자립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충남도와 시·군의 전문 인력과 도민들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문화재단과 문화기반시설에서 근무하는 인력도 부족하며 전문성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충남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은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정책과 예술팀에서 업무분담이 되어 있으며,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예술 강사 지원,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당진시의 경우는 자치행정국의 문화관광과 문화정책에서 업무분담이 되어 문화재단 운영지원 등을 통하여 당진문화예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의 행정적인 업무분담을 살펴본 결과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관련이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은 각기 다른 담당자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사료되어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전문성과 연계업무의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② 추진방향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을 수행은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지역주민의 참여활동으로 구성된다. 모두가 중요한 구성요소이지만 행정적인 시책방향과 지원여부, 업무의 전문성과 연계성은 사업을 추진하는 초석이므로 이를 행정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전문성과 연계업무의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한다.

③ 사업내용

충남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충남도에서 전담업무를 담당하면서 충남문화재단이 수행기관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당진시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의 전문성과 관련업무와의 연계성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인력 및 연계업무의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자료 :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 <http://search.daum.net/search?nil>
 (그림 38)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과 협동조합 창립 사례

- 충남 문화예술교육 인력 전문성 강화와 확충 :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등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관련 문화기반시설 활용 등 네트워크 강화 사업 추진
- 충남도와 각 시·군 문화예술교육사업 업무연찬회 실시

④ 사업추진방안

충남 도민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은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도와 각 시·군, 문화재단에서 필요한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확충과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업무연찬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업 관련한 문화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와 업무를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2)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 시책강화와 자립형 프로그램 발굴 및 시행

① 여건과 과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활동과 별개가 아닌 예술인이 참여하고, 시민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문화예술 향유와 창작활동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그렇게 때문에 충남 도민들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지역의 색채를 가진 문화예술교육의 개발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산의 확보, 자립적인 재정자립도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문화예술교육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당진문화재단은 2013년 3월 출범하여 년 48여회의 기획공연을 개최하는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블랙박스공연장·음악실·미술실·무용실·세미나실 등 19개의 전용 창작실을 갖추고 40개의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당진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자체기획사업과 국비사업으로 나뉘고, 교육대상은 일반시민, 청소년, 예술 강사 등으로 나누어 수립하였다. 교육은 문화예술학교와 문예의 전당에서 이루어지고, 성과활동은 문예의 전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사업은 도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

이므로 충남과 각 시·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시책강화와 자립형 프로그램의 발굴과 시행이 필요하다.

〔표 120〕 당진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사업과 프로그램 사례

대상	사업명	연계사업	비고
시민	당진문화예술학교	문화동아리주간사업 문화동아리박람회 예술단체 창작스튜디오지원	연 80회 강좌
	문화동아리 역량강화사업		
	당진가족오케스트라		
	당진시민오케스트라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국비
	문화자원봉사자 육성프로그램		
	문예(인문학)아카데미		3개 강좌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국비
예술인	예술강사아카데미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지원사업		국비
	문화기획인력 양성프로그램		
	예술단체 경영컨설팅		
	문화예술인력 선진지 견학사업		
청소년	청소년 문예아카데미		
	학교연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예술영재 아카데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국비
정책	당진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조사		

자료 : 당진문화재단(2016), 2016년 워크숍의 당진문화재단 사례

② 추진방향

교육은 백년지대계²¹⁾라는 말과 같이 문화예술교육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은 충남도민들의 문화생활을 질을 제고하기 위한 맥락이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충남도민의 문화향유

21)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는 백 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인재 양성이 곧 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의 기초교육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시책을 강화하고, 문화재단의 특성에 적합한 자립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육성한다.

③ 사업내용

충남과 각 시·군의 문화예술교육사업과 프로그램의 시책강화를 위해서는 지역과 교육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하고, 도시기능과 문화기반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거점권의 육성과 집중적인 문화예술교육사업과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예술권역별 사업들은 그 지역의 문화재단이나 사업주체들이 지역의 전통성과 특징을 반영한 자립적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기존의 사업 및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 ☐ 충남 문화예술교육 진흥사업계획서 작성 : 문화예술권역 선정과 거점사업 발굴
- ☐ 문화예술권역 문화재단(사업주체)별 자립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 충남도민 문화향유 핵심사업화 : 충남 문화예술권별 거점 교육사업 추진



자료 : <http://search.daum.net/search?nil>

(그림 39) 문화예술교육의 자립화와 사회공헌사업 사례

④ 사업추진방안

충남 도민 문화예술향유 신장을 위해서는 도민의 문화인식을 제고하면서 문화 활동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충남도에서는 충남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과 인접한 시·군을 연계한 문화예술권역을 선정하여 거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한다. 더불어 문화예술권역에서의 거점사업은 그 지역의 문화재단(사업주체)가 발굴하는 자립화 프로그램을 대표적 교육 사업으로 하여 충남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종합정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화예술교육은 소통과 사회의 통합적인 역할을 하면서, 상상력·창의성 함양, 협동심과 인성 계발의 효과 등을 길러준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문화 자치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충남은 도민들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이 전국 6위로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향유지수 3개 부분이 하위권으로 드러났다(이인배 외, 2012). 문화예술교육이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 또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여건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이와 연계되는 지역문화기반시설 및 지역문화재단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운영 실태분석 및 과제를 도출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동향을 분석하고, 충청남도과 각 시·군 시행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진행되어야 할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둘째,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충남의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현황조사(2013년 기준) 분석과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시설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설문 조사(2015년 기준)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밝히고, 향후 충청남도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책 촉진에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차원의 전략수립

과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이론 연구 및 문헌고찰, 실태조사, 전문가워크숍과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등으로 진행되었다.

(2) 이론적 고찰 및 분석의 틀 설정

①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 정의

문화예술교육(文化藝術教育, Culture and Arts Education)은 문화예술과 교육의 합성어로, 예술교육과 문화교육 두 가지 개념이 결합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예술교육은 음악·미술·연극 교육 등 개별 예술장르들의 교육과정을 통칭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화교육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필수적인 문화적 해득력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을 뜻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으로부터 시작하였으나, 점차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근거로 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학교문화예술교육 이외의 모든 형태의 교육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폭넓게 실시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구분해내기는 쉽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과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취미·여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과정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②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 여건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교육적인 목표와 학교 교육을 통한 예술 전공자들의 활동 폭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실현되었고,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은 2004년 2월 ‘문화예술교육과’가 신설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관광부)의 주요 정책 영역으로 공식화되었으며, 2005년 2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 설립되고, 2005년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으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제도적인 기반이 정비되었다. 문화예술교육정책이란 문화예술교육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개발하고, 그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이 활발해지면서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은 ‘지역화 과제’, ‘접근성의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능력’, ‘파트너십의 확대’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3~4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드러나 있고,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방향이 제안되었다.

③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분석의 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기존연구를 주제별로 범주화하면 ①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 ② 문화예술교육 통계 연구, ③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 ④ 문화기반시설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초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초안이나 조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며,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중에서 지역의 시책과 관련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가 전국 문화예술교육의 실태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지역성이 반영된 문화시설기반 및 문화재단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실증조사 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충남 지역의 현실에 맞는 시행계획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틀은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이론고찰 및 정책 여건,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의 운영 실태분석 및 과제도출,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 등으로 세부항목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문화예술교육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충남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3)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분석 및 과제도출

① 충남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의 실태분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지역문화지수 결과에 따르면,

충남 15개 시·군은 ‘종합순위’, ‘시·군·구별’, ‘문화 대분류별 평가’에서 모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 결과는 상대적 열위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충남의 지역문화 격차를 향후에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충남이 전국 평균보다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천안시·공주시·아산시·금산군·당진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청양군과 계룡시’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충남 시·군별 문화기반시설 현황은 천안 25개소, 공주시 17개소, 아산시 15개소, 금산군이 각각 13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양군과 계룡시가 4개소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충남에는 총 4개의 문화재단이 있으며 홍성에 소재한 광역문화재단인 충남문화재단을 비롯하여 아산문화재단, 천안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대도시 중에서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천안시·아산시’와 농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금산군’과 적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청양군’을 실태분석의 사례 지역으로 채택하였다.

②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실태분석(중앙정부)의 시사점

전반적인 우리나라 문화기반시설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으로 ‘중점 대상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이용자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각 시설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자의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인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추진과제로 문화취약계층 대상의 예술교육 접근 확대를 강조하는 만큼, 향후에는 충남의 문화기반시설들이 특수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할 때 어려운 점으로 ‘담당 인력의 부족’과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꼽혔는데, 충남의 사회문화예술교육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충남의 각 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의 보완이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문화예술교육의 예산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각 시설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예산의 비중도 전체 지역 평균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기에, 각 시설별 문화예술교육의 예산도 높여야 한다.

③ 충남의 시설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설문조사 분석의 시사점

전반적으로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강사 수는 2013년에는 11.5명에서 2015년에는 9.99명으로 감소하였고, 문화예술교육의 실시 여부는 83.2%에서 93.9%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예산은 2013년 317백만 원에서 2015년에는 1,321백 만 원으로 현저히 증가하였고, 총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는 18.26개로, 단순 관람·강사·전시 형태의 교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문화기반시설은 2015년을 기준으로 ‘지역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조사되었으며, 중점 교육 대상은 1순위를 어린이(39.2%), 청소년(19.6%), 성인(17.6%)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이유로 ‘예산 재정확보(27.5%)’와 ‘참여자 인식 부재(25.5%)’로 꼽았고, 향후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2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 인력 지원(21%)’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은 전문 인력과 예산의 확충이 이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여전히 예산과 전문 인력의 보완이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지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으로 꼽힌다. 충남의 지역문화재단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문화재단과 문화기반시설의 교류를 통해 ‘전문 인력의 보강’ 및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인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추진과제로 문화취약 계층 대상의 예술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점차 다양한 대상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받는 대상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참여자의 관심과 홍보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초 수요조사와 만족도 조사, 우수 사례 발굴에 대한 부분도 보완되어야 한다.

2) 정책제언

(1) 정책추진 과제

충남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생애학습의 문화예술교육과정 개발’,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시설·교육기관 간 문화거버넌스 구축 지역 내 사회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과 활용’, ‘도민 문화향유를 위한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활성화’, ‘우수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활성화’,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의 개발 및 홍보’, ‘지자체 추진체계의 개선’ 등을 진행해야 한다.

(2) 추진 전략

앞서 제시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진전략을 일곱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생애주기와 교육대상 계층별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둘째,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 교육기관 등 연계 문화예술교육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
셋째,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 인력을 활용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넷째,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별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발굴과 시행,
다섯째, 지역주민이 주도형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사업 강화와 지역축제의 참여 확대,
여섯째, 충남 우수 문화예술교육 경연대회 개최와 모델 프로그램 개발의 확산,
일곱째, 충남 문화예술교육 정책역량강화와 자립형 시책의 발굴 및 사업의 추진 등이다.

(3)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전략과 추진방안

① 생애주기와 교육대상별 과정개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단계적 개발 사업은 충남 생애주기별 사회문화예술사업 종합분석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개최, 충남 생애주기별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발굴과 시책추진 등이다.

노년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집중 육성 및 운영사업에 대한 내용은

‘행복 100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유니버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집중 육성
과 사업추진’, ‘다문화 문화예술교육사업 발굴과 시책추진’ 등이다.

②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충남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간 프로그램 상호 교류 사업의 내용은 ‘업무협약 체결 및 정
기 워크숍 개최’, ‘충남문화재단과 천안, 아산, 당진문화재단 통합문화예술교육 연대 사업 추
진’,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용시책 발굴과 운영’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충남 교육기관과 문화시설, 단체, 문화재단 등 문화예술교육의 협력 사업의 내용은 ‘충남 문
화예술교육 거버넌스 포럼 구성 및 운영: 충남문화재단 등과 문화예술교육 협력 정기 워크숍
및 모니터링 사업 실시’ 등이다.

시·군별 공공교육시설 및 유희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학교 설립 및 운영사업은 ‘충남 문화
예술 특성화 학교 연계 방학문화예술학교 개설 및 운영’, ‘충남 도내 대학 평생교육원 문화예술
학교 개설 및 운영’, ‘충남 문화예술권역별 문화예술학교 설립 운영: 북부권 제외(당진문화예
술학교 활용)’, ‘당진문화예술학교 인접 시군 연계 거점 문화예술학교의 육성’ 등이다.

③ 지역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과 활용

지역 내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문화예술교육 참여활동 강화사업은 ‘충남 문화예술교육 사업
수급계획 수립과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예총 충남도연합회와 문화예술교육프로
그램 전문 인력 활용’, ‘충남 문화예술교육 사업 전문 인력 운영사업 추진’ 등이다.

지역문화재단과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추진사업은 ‘충남문화재단 및
시·군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 전문 인력 확충: 통합공모사업 연계 전담인력’,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기반시설의 예술 강사 등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④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활용성 제고

문화기반시설별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 지원 사업은 ‘충남 문화기반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수요 조사’, ‘시·군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시범
사업 추진(충남 문예회관 시범사업 등)’과 ‘문화기반시설 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등)’ 등이다

충남과 시군 문화재단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사업은 ‘충남문화재단과 천안·아산·당진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협력 MOU체결’, ‘충남 문화재단 연대 통합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공모사업 지원’, ‘충남 문화재단 연합 워크숍 정기 개최’ 등이다.

⑤ 주민주도형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지역주민 주도형 사회문화예술교육 동아리 사업 강화사업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동아리 구성 지원’,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창작 공간 및 발표활동 지원 : 문화기반시설 활용사업, 문화 활동 동아리 역량강화 강사지원 사업’ 등이다.

문화예술교육 지역주민과 동아리의 지역축제 참여기회 확대사업은 ‘지역축제 연계 문화예술교육사업과 프로그램 발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이수 지역주민과 동아리 지역축제 참여 부대행사 육성’, ‘모범사례 시상’, ‘지역축제 시 문화예술교육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등이다.

⑥ 충남 우수 문화예술교육 모델사업 추진

충남 우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사업은 ‘충남 문화예술사업과 프로그램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우수 문화예술 동아리 국제행사 참가 지원’ 등이다.

충남학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확산사업은 ‘충남학 및 시·군별 인문학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굴’, ‘지역 인문학 특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시범 운영(금강문화예술, 내포문화예술 등)’ 등이다.

⑦ 조직과 시책강화 및 협력체계 개선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전문성과 연계업무의 네트워크 강화사업은 ‘충남 문화예술교육 인력 전문성 강화와 확충’,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관련 문화기반시설 활용 등 네트워크 강화 사업 추진’, ‘충남도과 각 시·군 문화예술교육사업 업무연찬회 실시’ 등이다.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 시책강화와 자립형 프로그램 발굴 및 시행사업은 ‘충남 문화예술교육 진흥사업계획서 작성 : 문화예술권역 선정과 거점사업 발굴’, ‘문화예술권역 문화재단(사업주체)별 자립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충남도민 문화향유 핵심사업화 : 충남 문화예술권별 거점 교육사업 추진’ 등이다.

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과제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연구과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담당자와 실무자들의 심층면접 및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통한 세부사업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충남의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정책을 제언하는 연구와 장애인 관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전략을 구축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향후 연구의 각 전략별 별도계획에서 보완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권순석·최혜자·김인설·목수정·백유진·안나경·우지연·이원재·이은희·정진애·함덕문(2015),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권순석·최혜자·김인설·목수정·백유진·안나경·우지연·이원재·이은희·정진애·함덕문(2015),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자료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김세준·김세훈·민정아·전민정·김명준·장두용·송안나·최윤희(2015), 『2014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김세훈·박만용·안이영노·서은영·김은경(200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류정아 외(2007), 『2006 문화예술교육정책백서』, 문화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 _____ (2015a), 201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_____ (2015b), 2015 공연예술실태조사.
- _____ (2016), 2014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박민규 외(2010), 『2010 문화예술교육 통계 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박신의·백령·신승빈·박인정·김경선(2011), 『2011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박영정·김보성·임학순·장애란(2010),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시민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백령·김명준·전태일·장두용·강민구·이경우·김현희(2013), 『2012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실태조사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스키타 야스코(2012), 아웃사이드 아트가 복지의 세계에 제기하는 것 - 어느 수상자의 라이프스토리를 통해서-, 종합문화연구소연보, 20, 81-96.
- 신승환·연혜경·김정선·김진아(2007), 『문화예술교육론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야마다 무네히로(2010), 아웃사이드 아트에 관한 연구 - 미술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고찰-, 시가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연구와 논문집, 13, 55-64.

양혜원·김세훈·박영정·임학순·권순일·이사민(2015), 『2015 사회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사업전략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양현미·김세훈·박영정·홍기원(2010),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양현미·박은영·전효관·정은희·홍진표·장용미(200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윤소영·류연정(2010), 『문화기반시설 다문화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인배·권영현·김경태·권미정(2012), 『충남 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지역문화정책성과 연계로 중심으로-』, 충남발전연구원.

정무성·최상미·김정선·정은주·한송이·이혜인(2015),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문화소외계층) 수요 조사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지은·이석규·김춘경(2014), 문화소외지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례 연구 -
동아일보 연천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4(2), 1-10.

정지영·정지은·이석규(2014), 문화소외지역의 문화예술교육운영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 부산 녹명원드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9(3), 63-83.

정지은(2016),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문화예술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영과잉 음이향 모형을 중심으로, 상품학연구, 34(2). 67-75.

정현수·한준·김정욱·김기현·백령·박종호·진재원·유지은(2014), 『2013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최영화·정원옥(2015),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지원방안』, 충남연구원.

충남문화재단(2015), 충남도민 문화예술 향유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한은실(2008),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에 따른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법률 및 조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법률 제13304호〕 일부개정 2015.05.1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056호〕 타법개정 2016.03.2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9호〕 일부개정 2016.02.29.

□ 부록1. 사전자문의견

구분	착수연심회 의견	반영 및 조치계획
정종은 박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하며, 광역단체 관점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본 연구의 의의를 강조할 것 ○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광역 현장의 핵심 매개인력과 네트워크를 설정하여,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것 - 타 광역시에 대한 우수 사례연구도 추가하여 충남의 현황분석과 비교할 것 - 국내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문제점(일반 시민 확대, 학교교육과 연계, 수행 단체의 역량 부족 등)을 광역 단위에서 해결 방안들을 모색할 것 ○ 연구 구성(목차)의 체계성 - 2장을 이론적 고찰 부분으로 한정하여 주요 개념들 간에 포지셔닝으로 작성하고, 3장은 정책여건 분석으로 작성할 것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광역 단위의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추가 ○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타 광역시의 사례 분석 및 충남의 현황과 비교 분석 추가 예정 - 충남의 문화기반시설 및 재단의 담당자(매개인력) 설문조사 추가 예정 ○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 - 국내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과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충남 여건에 맞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 도출 예정
이원현 교수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발전을 위한 모범적 연구 사례로 평가되며, 지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현황제시와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연구의 목적을 강조할 것 ○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문화예술교육 정책통계 자료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활용하여, 충남 여건에 맞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 할 것 - 연구 목적은 사회문화예술교육부터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계획, 충남의 현황까지의 흐름이 체계적임 - 충남의 사회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의 전문 인력 선발과 파견에 대한 현황을 좀 더 파악하여 제시할 것 예)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부여제도 등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역 단위의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 목적과 의의를 추가 ○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향후 충남의 전문 인력 선발과 파견에 대한 조사연구 추가 예정 (예: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등)

□ 착수연심회 자문의견

착수연심회 의견	조치 결과
조한영(충청남도 문화정책과 과장)	
○이론적 고찰이나 현황분석도 함께 추가할 것 ○개선 방안을 도출할 때 실효성을 위해 추진 현황조사와 이론적 고찰이 전제되어야 할 것	○2015년 충남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재단 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
문옥배(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작적 정의 추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외에 한국문화예술포럼연합회 의 사회문화예술교육 과정도 검토할 것 ○향후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방안을 도출할 때 재단 및 문화기반시설에서 자체 기획 사업을 해야 하는지, 정부 차원(예산을 미리 정하는 형태)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지자체의 예산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것 ○설문 조사 때, 자체 기획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문화예술교육사 및 전문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작적 정의 수정 및 한국문화예술포럼연합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추가 ○장기적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문화기반시설, 문화재단의 역할 및 지자체의 역할 분석 ○설문조사 때 자체 기획 여부,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 검토
전병태(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되지 않은 문제점 분석 및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오태근(충남예총 회장)	
○향후 본 연구의 본론에 해당하는 운영·현황 분석에 대한 실증적 현장 연구 기간을 더 확대할 것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 분석에 대한 내용 추가
백운성(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위와 정의에 대한 부분 검토할 것 ○인구천명당시설수(역량 지표), 표준화지수 등 사회문화예술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4개 시군을 왜 선택했는지 제시할 것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위와 정의 수정 및 충남 문화지수에 관한 부분 추가 ○4개 시군을 선택한 이유 작성

□ 최종연심회 자문의견

최종연심회 의견	조치 결과
문옥배(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동아리 경연대회의 내용을 우수 공모 사업 발굴 내용으로 수정할 것	○우수 공모 사업 시상에 대한 과제를 추가로 작성
오태근(충남예총 회장)	
○정책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전략 모델 등의 제시 ○실제 현장 종사자의 입장에서 정책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야 함	○향후 연구과제로 제안
전병태(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애인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 범위를 추가할 것	○향후 연구과제로 제안
이상진(충남연구원 연구실장)	
○전반적으로 최종연구보고서의 질 향상을 위한 사독 및 오타 점검 및 목차의 수정 ○사진의 초상권 침해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 ○충남 4개 지역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것 ○2장 제목 ‘~정책동향’ 으로 변경 및 3장 2절 제목 수정	○사독 진행으로 오타 점검 실시 및 사진의 재검토 및 출처 명시 ○설문 조사의 충남 4개 지역 선정에 대한 이유 작성 ○2장, 3장 2절 제목 수정
임준홍(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위원)	
○제목·내용·목차가 본 연구와 일괄적으로 이어지도록 보완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사진, 그림 등의 출처 제시	○사독 진행으로 전체 내용 보완 및 사진의 재검토 및 출처 명시

□ 부록2. 전문가 워크숍

가. 개요

일 시	2016년 8월 5일(금), 14:00 ~ 17:00	
장 소	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	
참석자	발제자(3인)	강창일(안산문화재단 대표) 백령(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서재승(㈜종합과학연구원 원장)
	토론자(3인)	문옥배(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차민경(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이종원(동아일보 문화기획팀 차장)
	사회자(1인)	정지은(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책임연구원)
	녹취록 작성(1인)	윤소민(성균관대학교 박사수료)

나. 내용

사회자: 국내외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충남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산문화재단의 경우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예술아카데미 꿈의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어 충남문화재단에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 강창일 안산문화재단 대표

주제 1: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운영방안 및 충남의 정책방안

충남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안산문화재단은 2004년도에 출범했고, 당시는 문화예술전당으로 시작하여, 2007년에 문화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생활문화, 지역문화와 연결 지어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재단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이 거점으로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공공의 지원을 활용해서 실현되어야 했다는 점과 국가의 예술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바탕으로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안산문화

재단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하며, 예술아카데미를 꾸준히 이끌어왔습니다.

지역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비, 미술관, 박물관, 전설시, 체육시설 등 교육공간을 확보되어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역의 자원을 파악하는 주체로서 지역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역문화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소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콘텐츠를 만들어, 문화예술교육과 연관 지었습니다.

안산문화재단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세 가지 방향성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공간이 담고 있는 문화예술콘텐츠를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둘째,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대상과 자원을 연결하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셋째는 문화교육진흥원의 정책방안과 연결되는 문화예술교육이 있습니다. 안산문화재단 운영의 전체 예산은 131억 정도입니다. 이 중 문화예술교육은 전체예산의 직접 사업비를 기준으로 3%정도 됩니다. 전체 사업비 중 직접 사업비는 65억 정도이고 교육 사업비는 약 6.4%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문화예술교육 사업비는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이익을 취해서 규모를 키워나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저희의 경우는 공연장 등이 있어 공연축제 전시 사업비가 비중이 큼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았을 때 문화예술교육 사업 규모는 크지 않지만 체계가 잘 갖춰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부 사업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직간접적으로 교육 사업비는 5~6천만 정도이고 상반기에 안산문화재단의 외부기금까지 포함해서 약 18억 정도 문화예술교육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역의 도시개발에서 공익사업으로 천만 원 지원을 받아 최근에는 오키나와를 다녀온 <청년국제문화교류사업>이 있는데, 안산의 경우 인구의 10%가 다문화입니다. 4년 전부터 다문화를 거점으로 한 <꿈의 오케스트라> 이것은 MBC방송의 용제오닐이 출현한 다큐를 통해 더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꿈의 오케스트라>의 경우 올해 4년 째여서 예산이 줄어 진흥원에서 6천의 예산을 지원받고, 경기도에서 받고 안산재단에서 1억 가까이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에 맞춰 <안녕 오케스트라>로 운영되며 80%로가 다문화 가정이며 일반가정이 20%정도 됩니다. 올해 내년, 후년 발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엘시스트마의 한국형으로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기업의 후원도 받았지만 좀 더 키워 보려고 합니다. 해외 팀이랑 연결하여 마스터클래스를 운영

하여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올해 공연사업과 축제사업 두 부분에서 커뮤니티 아트를 위한 지역의 극단 중 교육연극을 할 수 있는 극단을 선정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극단 <고등어> 라는 극단을 만들어 올해 4년차입니다. 현재 공연 중이며 상반기는 20명 하반기 20명, 고등학생 1, 2학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교육으로 상반기에는 오키나와에 가서 발표도 하고 왔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공연기획부 상주단체는 현대무용단이 있습니다. 개관 이래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술교육아카데미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 운영되며, 수요에 맞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안산문화재단의 경우는 공연사업, 축제사업, 전시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이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이 모여 교육적 성과를 내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장소, 참여강사, 참여 동기, 다양한 지원방법 등을 강구하여 안산문화재단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안산지역의 대학교와 협업을 이뤄 최근에는 Art&Technology 시설을 같이 연결해서 해 보는 등 예술교육차원으로 서로 연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초 단위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계속해서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예술의 향기가 퍼질 수 있습니다.

▶ 백령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주제 2: 국내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운영 현황 및 충남 정책방향

문화예술교육 혹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어떤 활동이 21세기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까라는 논의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에 참여 산업이라는 것을 화두로 80년대부터 영·미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 어떠한 영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사회에서 살 것인가라는 미래 학자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어떤 주제로서 얘기를 할 것인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통의 시대, 또는 생명부지의 서로 다른 영역의 것들이 만나 새로운 것을 생산 할 것이며, 창의성이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고력을 바탕으로 이뤄지며,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정보와 기회에 접근성이 주어져야 하고, 접근성을 기반으로 해서 수월성,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2000년대가

되면서 한국의 창조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가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창조산업 다음으로, 공유경제 공간의 문화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해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는 조금 뒤늦게 쫓아가는 상황이라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이 출범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권과 문화예술을 매개로 문화예술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학과 연결하는 등 Art&Technology가 연결되었다는 안산문화재단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점이 10년 정도 미리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연결이 앞으로 계속 축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기폭적인 상황이 생기면 그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사실 문화예술교육이 출범하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단어는 예술이 예술가로서 지역 사회 안에서의 역할이 있고, 예술가들이 실험하는데 있어 예술이 목표가 아닌 예술이 수단과 도구로서 행해지는데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1년 서울 아젠다에서 목표와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주체와 대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문화생활에서 내 예술 활동에서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놀이, 디자인, 스쿨 등 새로운 단어들과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교육학이 무엇이나라는 정의의 끝에는 인간의 정신의 행위를 바꾸기 위해서 사회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포장을 해도 결국은 교육학은 사람을 변화하게 하고 싶은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대입해야 한다는 것인데 문화예술교육이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시작되었으며, 2014년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등장하고 그 문서들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양적으로 확대하고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시행착오들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체부 회의 중 우리가 창의한국을 만들었을 때 레퍼런스가 되었던 것은 Creative Britain과 Creative American, Creative Future입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화했고 2004년에 이야기 했던 문화로서의 삶의 질, 문화다양성, 문화 역량에 관한 것 등에 정책이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검토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문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점점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시적 관점에서 미시적 관점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 교육정책이 아닌 문화정책으로서 보완이 필요하

며 주인의 삶, 예술의 힘을 기반으로 하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앙단위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중앙단위의 고민이 다시 광역, 기초로 내려와 지금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16개의 광역을 과연 어떻게 읽어 낼 것인지, 그들의 각자 지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이 2005년에 사업이 출범하였을 때 사회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 공격이 많았습니다. 학교가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교육인 것인지, 아니면 80년대 일본에서 가져온 사회교육의 변형인 것인지, 교과부에서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서 만든 것인지 등에 대해 물음이 많았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실상을 살펴보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사회취약계층으로 바뀌며 사회문화예술교육 안에 기반시설, 문화원을 포함하여 학교 외에 사회문화기반시설과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진행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회문화예술교육 중장기발전방안을 위해 지난 10년간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론 성과는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한 바로는 참여율이 저조하다, 교육의 수요에 대해 다양화가 필요하다, 소외시설과 협력기관 사례 안에서 유사 사례 안에서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문화학교의 박물관 프로그램이나, 박물관에서 진행해오던 프로그램과 혹은 재단에서 하고 있는 예술아카데미의 오브제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등의 변별력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아직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사회에 적용이 확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위상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적은 부분도 문제점으로 나타났지만, 또 다른 것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 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해 누구와 공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똑같은 예술교육이 아닌 지역에서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이 출범했을 때 좋은 점은 지역이 수혜의 대상, 참여자들 대상이 살고 있는 거주지의 의미가 아닌 지역 자체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사업 중 석수시장에서 했던 2%가 부족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서 아이들에게 대안 공간인 수도&위터가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의 건너에 있는 석수시장을 바라보고 60년대 이전부터 지켜온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그 공간에 대해 새로운 생각이 아이들한테 들었습니다. 후에 마을 지도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도&위터의 대안공간에서 석수시장을 바라보면서 예술가들이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석수시장이 없어지고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석수라는 지역성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 아닐까, 아이들은 시장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등 예술가의 감성과 문화적 기획이 만나 우수사례로 꼽힐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모든 지역에서 아이들이 다 마을지도를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대한 감수성과 문화기획자의 감성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상화에 따라 마을 지도가 만들게 되어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부산의 감천마을에서 해결하였습니다. <2016년 8월 4일 2시 내가 까마귀를 들은 장소>은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지도를 만드는 것, 그 마을에 대한 자기의 감성, 자기의 감각 자신의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한 마을지도를 만드는 것을 넘어 사람들과 공유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안동은 하회마을, 전통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사는 안동>이라는 프로그램은 안동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가장 떡볶이를 만드는 할머니, 안동에서 가장 무엇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은 엄마 아빠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역을 어떻게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지역에 대한 생각이 예술가와 결합하였을 때 굉장히 다른 시너지를 만들고 이 시너지를 가능케 하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남의 경우도 2006년부터 충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찾기 보다는 영어뮤지컬이라든지 엄마들이 무료강좌를 통해 받고 싶은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변화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체인 지역광역센터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문화기획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문화다양성입니다. 지역 안에 있는 다양성을 어떻게 할 것 인가를 가지고 공감과 공유의 시대이고 인문학 시대이기 때문에 인문학과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을 찾지 않으면 생존능력이 떨어 질 것입니다. 기회 인문학, 인생나눔인문학 사업과 같이 문화인문학에 관한 감성을 공유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충남에서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고, 전문 인력을 키우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 발표자3. 서재승 (주)종합과학연구원 원장

주제 3: 해외사례 문화예술정책 현황 및 충남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예술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례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불가하기에, 국가 정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보다 작은 차원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충남과 비슷한 여건을 찾아보았을 때 자매 결연을 맺은 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시작한 지 짧습니다. 계속해서 정체성, 차별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편차에 대해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인력부족, 공간부족 등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지역과 수도권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지역 문화재단을 통해 지역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지역편차의 문제는 큼니다. 충남의 경우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과 시설 활용도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예술분야 장르의 모든 것들은 전부 문화기반 시설과 연계가 되어있고 그 안에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자매결연 도시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지리학적인 부분이 비슷하여 발전의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공주, 부여는 시가현과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시가현과는 지리적으로 비슷한 여건이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과 시가현에는 가장 큰 시화호 호수가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자연과 공생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권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에 문화적, 역사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가현은 인구수는 140만 명입니다. 신칸센이 있는 지역은 도시적 여건을 갖춘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가현의 문화예술정책을 살펴보면, 문화에 대한 중요성은 비슷합니다. 이 중 중요한 키워드는 ‘누구나 다’입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누구나 다’로 문화예술의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본 목표 중 하나는 아이와 젊은이를 육성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이, 청소년이 중점인데,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는 부족합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가 되어있으며 그래서 신진예술가, 젊은 예술가 발굴에 육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으로 육성되지만 시가현에는 광역 자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술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산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으나 미비합니다. 시가현에서는 문화적 자산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시화호 호수를 중심으로 반영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인민관(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용, 국악, 댄스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강좌가 있으며 이러한 문화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은 문화기반시설이기에 그 부분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가현은 인구감소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의 문화예술 분야를 큰 틀로 말씀드리면 일본 내에 극장, 음악장 등의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문예회관 활성화시키기 등을 하고는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법률로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입국을 선포했는데, 입국은 관광이라는 의미로 나라의 가장 기반이 되는 산업을 관광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화예술로 선포한 것은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을 하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2011년 동북아 대지진이 있으면서 큰 피해를 얻으면서 문화예술의 힘이 각광을 받았고, 또 하나는 동경올림픽 때문입니다. 대부분 스포츠의 축제라고 하지만 이것에 문화를 입힌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문화예술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에 시가현 또한 중앙정책과 방향성을 매치시켜 그 방향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충남과 시가현을 보았을 때 하나의 시사점은 지역주민과 지역 지자체의 자발적, 주체적, 능동적 참여가 활발하게 증진되고 있다는 점, 문화기반 시설이 풍부하다는 점, 정보발신이 잘 된다는 점, 학교와 학교 밖이 비분리 되어 있고, 젊은이들의 육성하고 있다는 것이 시사점입니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본 시사점은 중앙정부에서 브랜드를 구축하고 작품의 우수성을 국가에서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그 우수성이 입증 되는 것과 동시에 참가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것 등이 다른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토론자1. 이종원 동아일보 문화기획팀 차장

동아일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주체는 동아일보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문화지원청, 주관은 지방문화재단 등 참여 대상은 중고등학생, 다문화, 빈민층, 소외층 등 학교의 지원을 받아 참여하였고, 일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네트워크가 모두 참여한 네트워크 융합의 장이었습니다. 처음에 8주에서 12주 동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2-3개월 만에 공연 및 인성 등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르는 무용, 오페라. 연극. 뮤지컬 등 타 장르 융합 등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연극, 뮤지컬로 하였고 아이들의 선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공연을 끝내고 아이들의 변화에 대해 기록을 한 것을 살펴보면 자신감과 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일 큰 변화는 인사를 잘하게 되었고, 자존감에 대한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안타까운 점은 학생들 교육은 이루어졌으나 발표회에 있어 학예회 수준에 미친다는 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문화예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이런 공연, 발표 등의 결과도 중요하고, 정성적, 정량적 결과 분석도 필요합니다. 많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결과 및 평가에 대해 반응만 듣거나, 피교육생의 마지막 모습이 연습실에서 그들의 축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완성도 피교육생의 교육효과를 보았을 때도 왜 문화예술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무대공연 또는 정책에 관련된 분야의 모든 사람이 모여 나눠야 하는 지역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의 활성화에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지역 네트워크입니다. 수업을 통해 공연을 하려고 하였을 때 조류독감이라는 큰 문제가 있어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후 교육 지원청이 모여 노력해주고 학교와 각 부처의 노력으로 문제없이 끝내겠다는 동의를 얻어 공연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경우는 지자체, 교육 행정 기관 등 어느 한 군데에서만 이루어져서는 그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만약 진행 되더라도 99.9%로 예산 낭비의 좋은 사례만 된다는 것을 실무자로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든 무엇이든 네트워킹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 토론자2. 문옥배 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충남의 실태 및 충남의 정책을 세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문화재단은 2013년에 설립되어, 민간 예술 지원사업의 광역시 사업과 문예전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진문화학교는 문화예술센터와 같은 19개의 문화 예술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문화재단은 모든 부분이 부족합니다. 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만 광역시에서 하는 것과 기초에서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프로그램이 많지 않으며 기초 지역의 단체들의 프로그램 질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술 강사 또한 양적으로 부족합니다. 기초문화재단은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한 회로 끝나게 됩니다. 문화예술에 대해 좋다는 것은 알지만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단절이 되는데, 아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진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 끝난 후 수료 한 대상자들에게 동아리를 구성하고 있고, 동아리에게 창작 공간을 무료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연말 등 잘 운영되는 동아리에게 문예회관, 미술관 등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홍보의 역할도 해줘 프로그램을 수여한 대상자들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안에서 우수한 강사를 뽑아 파견 및 역량강화교육을 또한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진흥원과 광역센터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단기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진문화재단은 모든 예산을 투입하였고 어느 정도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의 연계사업을 통해 발전적인 사업을 제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충남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과 연계된 사업이 없는데 연계사업이 생긴다면 좋은 방향이 보여 질 것 같습니다.

▶ 토론자3. 차민경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지속가능성에 대한 키워드가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2014년에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와 토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문제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거버넌스 문제 등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네트워크 없이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처음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도입 될 때 파트너십 용어 아래 이루어 졌습니다. 그만큼 거버넌스 체계가 안 되어 있으면 문화 예술교육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토론 중 문화예술교육의 사후관리에 대해 언급해 주신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공감합니다.

□ 부록3. 문화기반시설 설문지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반시설 대상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충남연구원은 원내 과제인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문화기반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본 설문의 결과는 향후 충남의 여건에 맞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응답은 통계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16. 07. 22

연구기관 :



연구과제명 :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자 : 정지은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책임연구원)

TEL : 041-840-1255

E-mail : jejung@cdi.re.kr

※ 본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 고 》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란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문학 등의 **예술영역**, 문화재 및 문화유산 등의 **역사문화영역**, 생활문화 내용 영역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몇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창작, 체험,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해놓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 ※ 미술관/박물관의 경우, 전시 연계 프로그램(예: 도슨트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등) 및 박물관 투어·체험프로그램 등의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B.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

B1. 귀 기관에서는 2015년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 응답 ①은 B2로 이동, ②는 B5로 이동)

① 있음

② 없음

B2. 귀 기관에서 2015년에 개설한 모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 A12-2에서 응답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 모두에 대해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대상 구분	유아(만 5세 이하)	아동(만 6세~11 세)	청소년	일반성인	노인 (60세 이상)	다문화(부모 중 1명이 외 국인인 경우)	가족 단위	기타	전체
계(전체)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프로그램 명	주 대 상 (B2-1)	대상2 (B2-2)	참여 인원 (1회 기준)	기 간 (B2-3)	총 횟 수	프로그램 내용			수강료 유무 (O, X)	지 원 여 부 (B2-7)
						유형 (B2-4)	장르 (B2-5)	학습 방식 (B2-6)		
(예시)미술관 학습 체험	①	①	20명	①	20회	②	②	②	X	①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B2-1. 주 대상 1

①유아 ②어린이(초등학생) ③청소년(중고등학생) ④성인(20~60세 미만) ⑤노인(60세 이상) ⑥복합(가족) ⑦기타

B2-2. 대상 2

① 일반 계층 대상 ② 특수 계층(장애인/저소득 층 취약계층, 다문화 계층 등) ③기타

B2-3. 기간

① 1개월 미만 ② 3개월 미만 ③ 3개월~6개월 미만 ④ 6개월 이상 ⑤ 기타

B2-4. 유형

① 예술 영역(미술, 음악, 등) ② 역사문화영역(문화유산, 문화재 등) ③ 생활문화 영역(여가, 취미 등) ④ 기타

B2-5. 장르

①미술 ②음악 ③국악 ④무용 ⑤연극 ⑥영화 ⑦공예 ⑧디자인 ⑨만화애니 ⑩사진 ⑪문화유산 ⑫복합 ⑬기타

B2-6. 교수학습 방식

①강좌·교습 ②체험과 실습 ③단기성 프로젝트(공연 및 전시, 관람 포함) ④ 복합형(관람+체험) ⑤기타

B2-7. 지원 사업 여부

① 자체 예산 사업 ② 지원 예산 사업 ③ 기타(복합 포함)

B3. 귀 기관은 외부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등)으로부터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응답 ④는 B4로 이동, ①, ②, ③은 B5로 이동)

- ① 과거에 받은 경험이 있고, 2015년에도 받았다
- ② 과거에 받은 경험이 있지만, 2015년에는 받지 않았다
- ③ 과거에 받은 경험이 없고, 2015년에 처음 받았다
- ④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B4. 귀 기관은 왜 외부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등)으로부터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

B5. 귀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행은 자체적인 필요와 외부의 지원, 둘 가운데 어느 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습니까?

- ① 자체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 ② 외부의 지원에 의해 영향 받은 바 크다
- ③ 두 요인 모두에 의해 비슷한 비중의 영향을 받았다

B6.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관의 사업방침(기관 대표의 의지)
- ② 지역사회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 ③ 정부시책으로 인한 예산 지원
- ④ 다른 기관의 후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⑤ 기관 홍보
- ⑥ 관객개발 확보 차원
- ⑦ 기타 (직접 기재:)

B7. 귀 기관에서는 개설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수강료는 받지 않고 재료비만 받음
- ④ 수강료는 받지 않고 기관회원으로서의 회비만 받음
- ⑤ 기타(직접 기재:)

B8. 귀 기관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강사료는 시간당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 ① 10만 원 이상
- ② 7만원 ~ 10만원 미만
- ③ 4만원~7만원 미만
- ④ 4만원 미만
- ⑤ 지급하지 않음
- ⑥ 기타 (직접 기재:)

B9. 문화바우처를 이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신 분들은 몇 명 정도입니까? (2015년 기준)

- ① 없음 ② 10명 이내 ③ 20명 이내 ④ 30명 이상 ⑤ 기타 ()

※ 문화바우처란 사회적·경제적·지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공연·정신·영화·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음반,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B10. 귀 기관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육 대상자들에게 수요 및 만족도, 평가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2015년 기준)

1. 수요 조사	프로그램 기획 전 요구사항 조사·파악을 위한 조사시행	①예	②아니오
2.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종료 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파악을 위한 조사 시행	①예	②아니오
3. 평가 조사	프로그램 기획에서 운영까지 전반적인 평가를 위한 조사 시행	①예	②아니오

B11. 귀 기관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행 할 때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는 행위)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주로 어디와 연계 및 협력하였습니까?

※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위해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3개까지 응답)

- ① 동종의 문화기반시설 ② 다른 종류의 문화시설
 ③ 문화예술단체 ④ 공공기관
 ⑤ 학교(대학교, 초중고) ⑥ 기타 (직접 기재:)
 ⑦ 외부기관과의 연계 없음 (☞ B12로 이동)

B11-1. 외부기관과 어떤 형태의 연계 및 협력(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는 행위)이 있었습니까?

- ① 프로그램 공동수행 ② 인력 지원 ③ 프로그램 개발 ④ 장소 협찬
 ⑤ 장비 지원 ⑥ 예산 보조 ⑦ 기타 (직접 기재:)

B12.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혹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자(시민) 인식 부재 ② 예산, 재정확보
 ③ 기관의 전문·전담인력 부족 ④ 기관 담당자 또는 관계자의 마인드 부족
 ⑤ 기관 내 설비·장비·공간 등 인프라 부족 ⑥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능력 부족
 ⑦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저조(홍보 부족) ⑧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미비
 ⑨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⑩ 기타 (직접 기재:)

C. 문화기반시설의 역할과 위상

C1. 다음은 귀 기관과 지역의 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용	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C1-1	우리 기관은 <u>문화예술교육 업무를 전담</u> 할 수 있는 <u>전문 인력(조직)</u>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C1-2	우리 기관에서는 <u>문화예술교육을 중요</u> 하게 생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C1-3	우리 기관은 <u>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과 장비들이 구비</u> 되어 있다(공간, 시설, 장비 등).	①	②	③	④	⑤
C1-4	우리 기관은 <u>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u> 을 위한 <u>자체 예산을 확보</u>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C1-5	우리 기관이 위치한 <u>지역 주민들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u> 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C1-6	우리 기관은 타 분야에 비해 <u>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u> 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D.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향후 시행계획

D1. 귀 기관에서는 향후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017년 기준)

- ① 예 (☞ D2로 이동) ② 아니오 (☞ D6로 이동)

D2. 귀 기관에서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어떤 대상을 계획하고 있거나 어떤 대상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유아(학령기 이전) ② 어린이(초등학생)
- ③ 청소년(중고등학생) ④ 성인(20-60세 미만)
- ⑤ 노인(60세 이상) ⑥ 복합(가족 등)
- ⑦ 특수목적 계층(취약계층, 다문화 계층 등) ⑧ 기타 (직접 기재:)

D3. 귀 기관이 위치한 시·군·구 단위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잘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문화원 ② 문화의 집 ③ 도서관 ④ 문화예술회관
⑤ 미술관 ⑥ 박물관 ⑦ 평생학습관 ⑧ 주민자치센터
⑨ 구민회관·마을회관 ⑩ 대학평생교육원 ⑪ 사회복지관 ⑫ 청소년시설
⑬ 여성회관 ⑭ 노인복지시설(노인회관) ⑮ 초·중·고등학교 ⑯ 기타 ()

D4.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②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
- ③ 여가활용 및 가족 프로그램 ④ 창의체험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 ⑤ 지역공동체성 함양 프로그램 ⑥ 기관 고유의 특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 ⑦ 기타 (직접 기재:)

D5. 귀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을 예정인지 ‘예’, ‘아니오’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 목	예	아니오
D5-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확대 될 예정이다.		
D5-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축소 될 예정이다.		
D5-3	새로운 대상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할 예정이다.		
D5-4	새로운 콘텐츠(내용)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할 예정이다.		
D5-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을 충원 할 예정이다.		
D5-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을 새롭게 개편 할 예정이다.		

D6. 귀 기관을 대표하여 응답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이력 지원 ② 문화예술교육 강사 지원
 ③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④ 프로그램 리소스(자료) 센터 구축
 ⑤ 기관 내 설비·장비·전용 공간 확충 지원 ⑥ 문화 활동 동아리 및 동아리연합체 육성
 ⑦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⑧ 관련법 정비
 ⑨ 지식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 ⑩ 담당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⑪ 기타 (직접 기재:)

D7.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문제점과 지원 방안(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향, 예산 제외)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칸 부족시, 별도의 용지에 추가 작성 가능

E. 응답자 기본 정보

E1. 응답자 연령	만()세	E2. 응답자 연락처	Tel.
E3. 응답자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E4. 응답자 직위	
E5. 응답자 주 담당업무			
E6. 응답자 경력 (관련 직종 누적)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10년 이상 ⑤ 10년 이상		

♣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부록4. 문화재단 설문지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단 대상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충남연구원은 원내 과제인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문화기반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본 설문의 결과는 향후 충남의 여건에 맞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응답은 통계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16. 07. 22

연구기관 :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연구과제명 :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자 : 정지은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책임연구원)

TEL : 041-840-1255

E-mail : jejung@cdi.re.kr

※ 본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 고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란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문학 등의 예술영역, 문화재 및 문화유산 등의 역사문화영역, 생활문화 내용 영역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몇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창작, 체험,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해놓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 재단에 소속된 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응답에서 제외해주시길 바랍니다.

A. 재단(센터)의 일반적 현황

A1. 재단명			A2. 설립(개관)연도	_____년																							
A3. 재단 소재지	_____ (시/군/구)																										
A4. 직원 및 교육 담당인력 (2015년 12월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전체 직원 수 (정원 기준 현 직원 수)</th> <th colspan="3">문화예술교육 담당직원 수</th> </tr> <tr> <th>총인원(A)</th> <th>자체예산 고용인력</th> <th>지원 사업 고용인력</th> </tr> </thead> <tbody> <tr> <td>정규직</td> <td>_____명</td> <td>_____명</td> <td>_____명</td> <td>_____명</td> </tr> <tr> <td>기간제 계약직</td> <td>_____명</td> <td>_____명</td> <td>_____명</td> <td>_____명</td> </tr> <tr> <td>기타</td> <td>_____명</td> <td>_____명</td> <td>_____명</td> <td>_____명</td> </tr> </tbody> </table> ※ 광역문화예술교육 자원센터 인력은 지원 사업 예산을 통한 고용 인력입니다.				구분	전체 직원 수 (정원 기준 현 직원 수)	문화예술교육 담당직원 수			총인원(A)	자체예산 고용인력	지원 사업 고용인력	정규직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기간제 계약직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기타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구분	전체 직원 수 (정원 기준 현 직원 수)	문화예술교육 담당직원 수																									
		총인원(A)	자체예산 고용인력	지원 사업 고용인력																							
정규직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기간제 계약직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기타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A5. 재단 사업 분야 (2015년 기준)	※ 해당되는 사업 분야에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간/시설 운영 ② 문화예술교육 ③ 문화예술 후원 및 기부 ④ 창작 및 활동 지원 ⑤ 축제 기획 및 운영 ⑥ 시민 대상 문화예술사업 ⑦ 문화나눔 사업(통합문화이용권 등) ⑧ 국제 교류 ⑨ 연수 및 아카데미 ⑩ 정책 연구 ⑪ 창작 및 향유 기반 구축 ⑫ 위탁 및 협력사업 ⑬ 대외 정보서비스 ⑭ 기타 (_____)																										
A6. 사업비 예산 (2015년 기준)	<table border="1"> <tr> <td colspan="4">※ 재단의 총 예산 : _____백 만원</td> </tr> <tr> <td colspan="4">※ 문화예술교육 사업 예산(2015년) / 단위: 백 만원</td> </tr> <tr> <th>총 예산</th> <th>자체 예산</th> <th>예산 지원 기관</th> <th>외부 지원 예산</th> </tr> <tr> <td rowspan="4"></td> <td rowspan="4"></td> <td>(공공)_____</td> <td></td> </tr> <tr> <td>_____</td> <td></td> </tr> <tr> <td>(민간)_____</td> <td></td> </tr> <tr> <td>_____</td> <td></td> </tr> </table>				※ 재단의 총 예산 : _____백 만원				※ 문화예술교육 사업 예산(2015년) / 단위: 백 만원				총 예산	자체 예산	예산 지원 기관	외부 지원 예산			(공공)_____		_____		(민간)_____		_____		
※ 재단의 총 예산 : _____백 만원																											
※ 문화예술교육 사업 예산(2015년) / 단위: 백 만원																											
총 예산	자체 예산	예산 지원 기관	외부 지원 예산																								
		(공공)_____																									

		(민간)_____																									

A7. 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지원 받은 예산 외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까? (2015년 기준) ① 있음 ② 없음																											

B. 문화예술교육 사업 환경과 여건

B1. 다음은 귀 지역과 재단의 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B1-1	우리 재단은 문화예술교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조직) 이 구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B1-2	우리 재단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을 중요 하게 생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B1-3	우리 재단은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을 위한 자체 예산 을 확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B1-4	우리 재단이 위치한 지역 주민 들은 문화예술교육 에 대한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B1-5	우리 재단이 속한 지자체 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에 대한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B1-6	우리 재단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사 인력 을 구하는 것이 수월하다.	①	②	③	④	⑤
B1-7	우리 재단은 문화예술교육 사업 수행기관/단체 를 구하는 것이 수월하다.	①	②	③	④	⑤

C.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과 관리

C1. 귀 재단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행은 자체적인 필요와 외부의 지원, 둘 가운데 어느 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습니까? (2015년 기준)

- ① 자체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 ② 외부의 지원에 의해 영향 받은 바 크다
- ③ 두 요인 모두에 의해 비슷한 비중의 영향을 받았다

C2. (2015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실시한 경우) 귀 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까지 응답)

- ① 재단의 사업방침(재단 대표의 의지)
- ② 지역사회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 ③ 정부시책으로 인한 예산 지원(광역센터지정 등)
- ④ 다른 기관의 후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⑤ 기관 홍보
- ⑥ 관객개발 확보 차원
- ⑦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지역사회 기여
- ⑧ 기타 (직접 기재:)

- ① 유아(학령기 이전) ② 어린이(초등학생)
- ③ 청소년(중고등학생) ④ 성인(20-60세 미만)
- ⑤ 노인(60세 이상) ⑥ 복합(가족 등)
- ⑦ 특수목적 계층(취약계층, 다문화 계층 등) ⑧ 기타 (직접 기재:)

D3. 귀 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실시할 경우, 어떤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만 응답해 주십시오. (2017년 기준)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② 문화체험 기회 및 향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
- ③ 여가활용 및 가족 프로그램 ④ 창의체험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 ⑤ 지역공동체성 함양 프로그램 ⑥ 기관 고유의 특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 ⑦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자 역량 개발 ⑧ 기타 (직접 기재:)

D4. 귀 재단이 생각하시기에 지역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이력 지원
- ② 문화예술교육 강사 지원
- ③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 ④ 프로그램 리소스(자료) 센터 구축
- ⑤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비 지원 확대
- ⑥ 관련법 정비
- ⑦ 지식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
- ⑧ 담당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⑨ 관련 공무원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식 제고 (관련 교육 또는 연수)
- ⑩ 기타 (직접 기재:)

D5.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칸 부족시, 별도의 용지에 추가 작성 가능

E. 응답자 기본 정보

E1. 응답자 연령	만(_____)세	E2. 응답자 연락처	Tel. _____
E3. 응답자 부서	_____	E4. 응답자 주 담당업무	_____
E5. 응답자 경력 (관련 직종 누적)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10년 이상 ⑤ 10년 이상		

F. 2015년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 현황

※ 귀 재단에서 2015년에 운영한 모든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해서 첨부한 ‘엑셀 파일(별첨)’에 별도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정지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이인배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부연구진 · 서재승 (주)종합과학연구원 원장

전략연구 2016-12 ·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재단의 활용을 중심으로 -

글쓴이 · 정지은, 이인배, 서재승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6년 12월 31일 / 발행 · 2016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255(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353-7 03350

<http://www.cni.re.kr>

© 2016.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